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1 호 11월 25일

평양 로동 신문사 발행 1955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잡지

제11호 (120)

1955년11월25일

내용

一〇월의 사상은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의 기치

三八년 전에 로씨야에서 울린 一〇월 혁명의 포성은 인류 력사에 새로운 려명을 가져 왔다.

지구의 六분의 一의 지역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승리는 무엇보다 로씨야 로동 계급의 승리였으며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맑스주의의 승리였으며 프로레타리아 혁명 리론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 혁명의 승리는 결코 로씨야 로동 계급의 승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승리는 전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였다.

쓰딸린이 지적한 바와 같이 一〇월 혁명의 승리는 인류 력사에 있어서의 근본적 전환을, 세계 자본주의의 력사적 운명에 있어서의 근본적 전환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 운동에 있어서의 근본적 전환을, 전 세계 피착취 대중의 투쟁 방법과 조직 형태, 생활 상태와 전통, 문화와 사상에 있어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여기에 로씨야 로동 계급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피압박 인민 대중이 위대한 一〇월을 해마다 자기들의 명절로 기념하며 또 모든 나라 피압박 계급들이 一〇월 혁명에서 자기의 해방의 담보를 보면서 一〇월 혁명에 대하여 깊은 동경을 가지는 원인이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은 일체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의 해방의 길—사회주의—공산주의에로의 길과 세계 모든 피압박 인민들에게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의 해방의 길을 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의 길을 열어 놓은 인류 력사상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혁명이였다.

위대한 一〇월 혁명 어전에 승리한 모든 혁명들은 한 착취 형태를 다른 착취 형태로, 한 착취 그루빠를 다른

착취 그루빠로 교체한 혁명이였으며 그 혁명들은 전쟁과 제 인민 간의 반목의 근원을 청산하는 그러한 혁명은 아니였다. 인류 력사에서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의 담보는 오직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에 의하여, 그 승리의 결과에 의하여 비로소 출현하였다. 一〇월 혁명의 결과 탄생한 청소한 쏘베트 국가가 지향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사회는 그 자체가 전쟁과 제 인민 간의 반목을 배제하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사회에서만이 실현된다. 동시에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이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사회 건설에서의 필수적인 요구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는 一〇월 혁명 이전에는 없었다.

착취자적 생산 관계와 착취 계급들과 그들의 국가 기구를 전복 청산한 토대 우에서 탄생 발전하는 청소한 쏘베트 국가는 一〇월의 고귀한 사상의 불가결의 구성 요소인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 정책을 자기의 대외 정책의 기초의 하나로 하였다. 一〇월 혁명의 결과 탄생된 청소한 쏘베트 국가는 세계에서 침략을 반대하여,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의 강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새로운 요인이였으며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였다.

선행한 력사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청소한 쏘베트 국가의 이와 같은 평화 애호적이며 제 인민 간의 친선적인 평화 애호 정책, 제 인민 간의 친선 정책은 위대한 一〇월의 사상의 구현이였으며 이 고귀한 정책의 기본적이며 확고한 원칙은 위대한 쏘련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에 의하여 완성되였던 것이다.

一〇월 혁명의 산아인 쏘베트 국가는 그의 본질에 있어서 전쟁을 반대하여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을 확고부동하게 옹호하여 나섰다. 一〇월의 사상이며 지향인 사회주의—공산주의에로 전진하는 쏘베트 국가에게 있어서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은 모든 귀중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의 하나이였다.

一〇월 혁명이 그의 길을 열어 준 사회주의—공산주의——이것은 칼 맑스의 훌륭한 표현을 빈다면 그것은 빵과 장미꽃이 모든 사람에게 유족한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족한 사회는 전쟁의 불길이 오고 가는 그러한 곳에서는 건설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쏘베트 국가에게 있어서 一〇월 혁명이 지향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길은 전반적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을 위한 일관한 투쟁의 길이였었다.

一〇월의 사상의 구현자인 청소한 쏘베트 국가는 혁명을 승리한 이튿날 자기의 첫 법령으로서 평화에 관한 법령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을 념원하는 쏘베트 국가가 제一차 세계 대전에 참가한 모든 나라들에게 군사 행동을 즉시로 중지하고 정당하고도 민주주의적인 평화에 관한 담판을 시작할 것을 호소한 것이였다.

평화에 관한 법령의 발포가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을 지향하는 쏘베트 국가의 자기 활동에 있어서의 첫 조치였다면 혁명 승리 후 제국주의의 무력 간섭을 격퇴한 다음에는 쏘베트 국가는 평화적 건설의 환경 하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즉 두 체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레닌의 테제를 자기의 대외 정책의 기본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혁명이 승리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나 온 三八년 간은 一〇월 혁명의 산아인 쏘베트 국가의 이 고귀한 지향과 사상에 대한 제국주의의 강도배들의 류례 없는 비방과 중상과 파괴적 시도로 또 그것을 압살하려는 갖은 발광으로 일관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一〇월의 고귀한 지향과 사상은 선량한 수억만 인민 대중을 쟁취하면서 영광스러운 쏘련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의 령도 하에 오늘 쏘련에서 승리하였으며 또 전 세계에서 승리하고 있다.

지난 三八년 간에 위대한 쏘련 인민은 쏘련 공산당의 령도 밑에 一〇월의 전취물인 쏘베트 주권을 공고히 하면서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쏘련을 강대한 사회주의 공업—꼴호즈 국가로 전변시켰으며 팟쇼 강점자들을 격멸하고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 력사적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 강화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오늘은 장엄한 공산주의 건설의 위업을 성과있게 추진시키고 있다. 쏘련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건설은 벌써 먼 장래의 문제가 아니라 인민의 창조적 로력과 최고급의 과학 기술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에 있어서 쏘련의 존재 그 자체는 세계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의 강유력한 담보로 되고 있으며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의 강화를 지향한 一〇월의 사상의 구현자로, 그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의 리념은 오늘 一〇월의 산아인 쏘련을 위수로 하여 류례 없이 단결되고 있으며 단결된 이 리념은 전쟁을 타승하는 불가제승적인 힘으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쏘련은 세계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을 위한 위대한 성새로 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一〇월의 사상의 구현자이며 세계 평화의 성새인 쏘베트 국가에는 전쟁에 관심을 두는 계급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공산주의의 건설은 이 나라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 어느 때나 쏘련에 있어서는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은 그의 선차적 요구의 하나로 되고 있다. 모든 인민을 평등한 것으로 인정하며 민족적 적대를 배격하며 제 인민 간의 친선과 협조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의 사상은 오늘 쏘련 인민의 지배적 사상으로 되고 있다.

전쟁과 제 인민 간의 반목에 대한 선전은 쏘련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률상에 있어서도 가장 엄격히 금지되여 있다. 쏘련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의 공고화에 대하여 무관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一○월 혁명 후 자기들의 존재에 대하여 심각한 불안을 느낀 제국주의 렬강들이 전쟁을 위한 군비 경쟁에 광분하고 있을 때 쏘련은 일관한 철저한 평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인민 경제의 평화적 건설의 제 년간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 제국주의 렬강들이 자국과 타국의 령토상에 침략적 목적을 가진 군사 기지망들을 확장하기 위하여 발광할 때 쏘련은 평화 옹호 정책을 고수하면서 자국 내에서 위대한 쓰딸린적 자연 개조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힘의 립장』에 선 원자광들이 최근 년간에 원자탄을 찬양하며 그것을 뒤흔들어 댈 때 위대한 쏘련은 인민의 복리의 증진과 최신 과학 기술의 생산에의 도입을 위하여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을 지향하는 一○월의 사상이 자기의 지향과 념원의 실현을 위하여 제국주의 렬강들과의 견결한 투쟁이 없이 다만 평탄한 길만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一○월의 사상과 지향은 가장 고난 많은 길을 걸어 승리하였으며 자기의 념원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가장 전투적인 시련의 시기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소한 쏘베트 국가는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을 위하여 전쟁 도발자들을 반대하여 시종일관하여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오늘도 그러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하면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고 있다。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쏘련의 이 고귀한 투쟁이 항상 승리하였으며 또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스스로 명백하다。

그것은 쏘련의 평화 정책이 쏘련 인민의 근본적 리익과 쏘련의 안전의 보장 뿐만 아니라 호상 협조와 친선에 대한 충심으로부터의 념원을 표시하는 모든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 및 공고화에 대한 지향을 그 근본으로 하였으며 또 그것이 평화와 친선을 념원하는 인류의 생활적 리익과 희망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극히 정당한 것이였기 때문에 승리하였으며 또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의 쏘련의 결정적 역할과 그의 세계사적 승리의 결과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일련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 탄생하였으며 이 나라들이 오늘 사회주의에로 확신성 있게 전진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 강화를 위한 쏘련의 정책은 력사상 미증유의 강대한 생활력을 띄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평화가 전쟁을 타승하며 친선이 반목을 극복하는 불가제승적인 힘으로 장성 강화되고 있는 오늘의

지구상에는 위대한 一○월의 햇불이 밝혀 준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의 대로를 전진하는 나라들과 인민들의 수효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초에는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쏘베트 련맹에 의하여 견지되며 실현되던 위대한 一○월의 사상——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의 사상은 오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위시한 수 많은 나라들의 평화 정책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수억의 평화 애호 인민들의 강력한 지향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一○월의 고귀한 사상은 날이 갈수록 그의 정당성과 위대성 그리고 그의 불가 극복성을 시위하면서 영생 불멸의 광휘를 전 세계에 빛내고 있다。 오늘의 지구상에는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의 길을 밝혀 준 一○월의 사상이 침투되지 않은 곳은 없으며 그의 생동하는 영향을 받지 않는 인민은 없다。

위대한 쏘련의 위력과 그의 숭고한 평화 애호 정책에 고무된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의 세력은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는 제국주의 전쟁 방화자들의 집요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친선의 기치를 더욱 드높이 추켜 들고 전쟁을 타승하여 나아가고 있다。

평화에 대한 열화같은 인민들의 지향은 위대한 一○월의 사상의 구현자인 쏘련의 이니샤티브에 의하여 최근 년간에도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또 달성하고 있다。

영웅적 조선 인민과 중국 인민의 정의의 투쟁과 위대한 一○월의 산아인 쏘련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한결같은 노력은 二년 전에 조선에서의 정전을 실현시켰으며 一년 전에는 인도지나에서의 전쟁의 불길을 끔으로써 평화는 전쟁을 타승하였던 것이다。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사활적 리익을 옹호하면서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의 촉진을 위하여 부단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쏘련의 노력에 의하여 최근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국제적 협조의 발전에도 커다란 전변들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쏘련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금년 七월에 소집되였던 四렬강 정부 수뇌자 제네바 회의는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킴에 있어서와 국가들 간의 호상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시키며 전반적 평화를 공고 발전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놀았다。

四렬강 정부 수뇌자들의 제네바 회의를 전후하여 국제 정세에서는 긴장 상태의 완화와 평화 및 국가들 간의 신뢰의 유지 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다한 긍정적 사변들과 제안들과 합의들이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一九五五년 二월의 쏘련 최고 쏘베트의 력사적 선언과 이에 근거한 쏘련 최고 쏘베트 대의원 그루빠들과 각국의 의회 대표단들의 호상 방문, 쏘련의 이니샤티브에 의한 대오 국가 조약의 체결, 쏘련—유고슬라비야 간의 전통적 친선 관계의 정상화, 一〇월 혁명의 영향 하에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에 궐기한 아세아 및 아프리카 제 국가의 반둥 회의,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 간의 경제, 문화, 과학 일군들의 빈번한 접촉, 인도, 비르마, 아프가니스탄 정부들의 초청에 대한 쏘련 지도자들의 수락, 쏘련—인도 및 비르마 수상들의 공동 성명, 쏘련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의 호상 관계에 관한 조약의 체결, 쏘련과 서부 독일 정부 간의 외교 관계의 설정, 자기 병력 六四만을 축소시킬 데 대한 쏘련의 결정, 포르크칼라 우드의 해군 기지의 분란에의 반환,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대한 문제에서의 진전, 최근의 제네바 四렬강 의상 회의, 평화 옹호 운동의 전례 없는 앙양 등등 이 일련의 국제적 사변들은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하게 기여하였으며 하고 있다.

달성된 이 일련의 성과들은 그 모두가 쏘련의 진지한 노력과 높은 위신 그리고 그의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의 강화를 위한 진지한 투쟁과 밀접히 련결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의 국제 정세는 위대한 一〇월의 산아인 쏘련의 성의와 노력과 그의 높은 위신에 의하여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며 국가들 간의 평화적 협조를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인류 력사의 모든 행정은 一〇월의 사상이 밝혀 준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향하여 불가제승적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더욱 력력히 뵈여 주고 있다.

오늘 조선 인민은 전 세계 진보적 인류와 함께 위대한 一〇월의 사상의 승리의 대렬 속에서 거대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위대한 一〇월의 기치는 조선 인민의 혁명 투쟁의 대 시기에 있어서 그의 승리의 기치로 되였으며 그 기치 밑에서 조선 인민은 자기의 모든 승리를 달성하였다.

위대한 一〇월의 사상의 서광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험악한 암운이 우리 민족의 머리 우에 내려 덮였던 그 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의 길을 밝혀 주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암담한 식민지 통치 하에서 조선 인민은 자기의 해방자와 해방의 담보를 북방 멀리 一〇월의 산아인 위대한 쏘베트 련맹에서 보고 있었다. 실로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승리가 없었더라면,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의 一〇월 혁명의 산아인 위대한 쏘베트 련맹의 결정적 승리가 없었더라면 조선 인민은 아직도 일

제의 기반에서 해방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一〇월의 산아인 위대한 쏘베트 무력에 의하여 해방된 조선 인민은 오늘 자기 조국의 번영과 장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를 직접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승리의 결과와 그의 산아인 쏘련의 사심없는 친선적 지지 및 원조와 련결시킨다.

一〇월의 산아인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해방된 조선 인민은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一〇월의 사상이 밝혀 준 그 광활한 대로를 따라 공화국 북반부에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미제의 침공으로부터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였으며 위대한 一〇월의 기치가 가리키는 그 길을 따라 오늘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전후 방대한 건설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혁명의 매 시기와 매 계단에 있어서 조선 인민이 쟁취하고 있는 빛나는 승리들은 평화와 진보와 사회주의에로 지향하는 위대한 一〇월의 사상, 맑스—레닌주의의 조선에서의 승리의 행정이다.

一〇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조선 인민의 승리는 확고 부동하다. 오늘의 조선 인민은 고립된 인민이 아니다. 오늘의 조선 인민은 위대한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의 국제주의적 지지 성원 속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장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투쟁에서 조선 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一〇월의 사상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빛낼 것이며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에 거대하게 기여할 것이다.

二〇세기는 위대한 一〇월의 사상의 승리의 시대이다. 오늘 위대한 一〇월의 사상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하는 세계 인민들을 승리에로 고무하며 향도한다.

一〇월의 사상의 위대한 광휘 속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인류의 이 장엄한 전진 운동을 저지할 힘은 없다.

위대한 一〇월의 사상은 그의 산아인 쏘베트 련맹과 제 인민 민주주의 국가 인민들의 창조적 생활 속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친선과 협조와 진보를 념원하는 고상한 지향 속에서 약동하고 있다.

一〇월의 사상은 평화와 제 인민간의 친선의 기치이다. 오늘 지구상의 방방곡곡에서 휘날리는 이 기치는 수억만 인민들의 기치이며 전쟁을 타승하는 불패의 기치이다.

우리 혁명의 성격과 추진력

박 태 화

인류 사회 력사는 한 사회 제도로부터 다른 더 높은 사회 제도로 발전 이행하는 행정이다。 한 사회 제도로부터 다른 더 높은 사회 제도로 이행할 때에는 적대적 계급으로 분렬된 사회에 있어서는 낡은 사회 제도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 제도를 수립하는 근본적 전환、변혁이 있게 되는바 이를 가리켜 사회 혁명이라 한다。 사회 혁명이라 함은 폭력적 방법에 의한 낡은 생산 관계의 새로운 생산 관계에로의 교체이며 사회 제도의 모든 령역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혁이며 반동적 지배 계급의 수중으로부터 혁명적 계급의 수중에로의 국가 주권의 이행이다。

혁명의 경제적 토대와 원인은 자라나는 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생산 관계 간의 모순 및 충돌에 있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이때까지 그 생산력이 그 내부에서 발전되고 있던 현존 생산 관계와 모순되게 되며 또 이 생산 관계의 법률적 표현에 불과한 소유 관계와 모순되게 된다。 이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 형태로부터 그 질곡으로 전화한다。 이 때에 사회 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맑스、엥겔스 저작 선집』 제一권 三二二페지)。

혁명은 새 생산력과 낡은 생산 관계 간의 모순을 해결하며 자기 존재를 끝마쳐야 할 생산 관계를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생산력의 앞으로의 발전에 적응된 새 생산 관계를 수립한다。 이와 같이 인류 사회에서는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경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 낡은 생산 관계는 그의 담당자인 반동적 계급에 의하여 옹호 보존되는바 그는 스스로 력사의 무대로부터 물러가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경제 제도를 백방으로 자기 국가 주권으로써 보위한다。

그러므로 사회 발전을 추진시키려면 사회의 혁명적 계급은 우선 현존하는 반혁명적 지배 계급의 국가 주권을 폭력적으로 전복하고 자기 계급의 주권을 수립하

여야 한다。 이 주권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낡은 생산 관계를 청산하고 새 생산 관계를 수립할 수 없으며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경제 법칙이 자기의 길을 개척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낡은 사회 경제 제도가 새 진보적 사회 경제 제도로 교체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혁명에 있어서 주되는 문제는 주권 문제라고 레닌은 가르쳤다。

반동적 지배 계급의 수중으로부터 새 진보적 계급의 수중에로의 주권의 이행은 가장 첨예한 계급 투쟁 즉 혁명을 거쳐 수행된다。 혁명은 곧 계급 투쟁의 최고 형태이다。

혁명의 성격은 해당 혁명이 어떠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며 어떠한 사회적 과업을 실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즉 그 혁명의 결과에 어떠한 생산 관계가 청산되고 어떠한 생산 관계가 수립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一七八九년 불란서 혁명은 생산력 발전에 저해를 주고 있던 봉건 제도를 파괴하고 당시의 생산력 수준에 적응하여 그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수립할 것을 자기의 기본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명의 성격은 반봉건적 부르죠아 혁명인 것이다。

로씨야의 一九〇五년 및 一九一七년 二월 혁명은 생산력 발전에 저해를 주고 있던 짜리 전제 제도와 경제 령역에서의 봉건적 생산 관계를 숙청하고 로씨야의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자유로운 길을 닦아 주는 데 자기의 기본 과업을 두었다。 이 로씨야 혁명들도 자기의 사회 경제적 내용으로 보아 역시 부르죠아 혁명이였다。

『짜리제의 전복』、『민주 공화국의 수립』、『八시간 로동제 실시』、『지주 토지 몰수』 등등과 같은 로씨야 혁명의 사회 정치적 및 경제적 과업들의 실천은 자본주의의 청산 또는 그 발전의 억제를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본주의의 발전을 조장하며 그 기초를 확대한다。

『부르죠아 혁명은 부르죠아 제도의 범위 즉 자본주의적인 사회—경제 제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혁명이다。 부르죠아 혁명은 자본주의의 토대를 파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그것을 확대 심화하면서 자본주의 발전의 요구를 표현하는 것이다』(『레닌 저작 선집』 一권 三분책 로동당 출판사판 六二페지)。

그러나 一九〇五년 및 一九一七년 二월 로씨야 혁명들은 제국주의 시대의 부르죠아 혁명이므로 과거 산업 자본주의 시대의 부르죠아 혁명과는 많은 면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즉 혁명의 동력 문제에 있어서 과거 서구라파 부르죠아 혁명들은 부르죠아지의 령도하에서 진행되였다면 로씨야 혁명들에서의 령도 계급은 프로레타리아트였다。 또한 이 혁명들은 압박과 착취에 시달리던 사회의 『최하층』이 프로레타

리아트의 령도 하에 독자적으로 궐기하여 혁명의 전 과정에 자기의 요구를 락인한 혁명이며 낡은 사회 제도가 타도된 그 자리에다 자기들의 요구에 맞게 새 사회를 건설하려고 기도한 인민적、 민주주의적 혁명이였다。

이 혁명은 제국주의 시기에 있은 첫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와 같이 혁명은 그 기본 성격이 동일하면서도 그 동력으로 보아 호상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혁명의 동력이라 함은 낡은 생산 관계와 그의 담당자인 반혁명 계급을 숙청하고 새 생산 관계의 승리를 보장하여 주는 력량 즉 혁명을 수행하는 계급들을 말하는 것이다。

혁명의 성격과 동력에 따라 여러가지 혁명의 형태들을 구분한다。

력사는 노예주를 반대하는 노예 폭동、 봉건 제도를 반대하는 자본주의 상승기의 부르죠아 혁명 및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제국주의 시기의 부르죠아 혁명 및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마지막으로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을 알고 있다。

※ ※ ※

一九四五년 八월 一五일 해방을 계기로 시작된 우리 혁명의 성격은 조선에서의 사회 경제 발전의 수준과 구체적、 력사적 제 조건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사회적 과업에 의하여 규정된다。

쏘베트 군대가 우리 조국 강토에서 악독한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을 구축함과 동시에 우리 민족은 장기적 식민지 노예의 처지로부터 해방되였다。

조선에 있던 일본 군대의 격파와 함께 북조선 주둔 쏘련군 사령부는 일제 기관의 관리들을 축출하고 모든 일제 식민지 통치 기관들을 숙청하였다。 이와 같이 쏘련 군대의 폭력적 수단에 의하여 조선에 존재한 반동적 정권 즉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의 정권은 전복되였다。 그러나 새 국가 주권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낡은 정권의 잔존 세력들은 완전히 숙청되지 않았었다。 이 잔존 세력을 끝까지 숙청하고 새 조선의 국가 주권을 수립하는 문제는 조선 인민、 우리의 혁명 력량 자체가 해결하여야 할 과업으로 되였다。

북조선 주둔 쏘련군 사령부는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의 정치적 지배를 숙청함과 동시에 그들의 경제적 지배까지 즉시 청산하여 버렸다。 쏘련군 사령부는 일본 국가 및 일제 독점 자본가들의 일체 소유를 수탈하여 줌으로써 조선 인민에게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조선에 어떠한 소유 형태、 생산 관계가 지배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사회 경제 제도가 수립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선 인민 자체가 해결하여야 할 것이였다。

조선 인민 앞에는 패망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와 그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분쇄하고 새로운 인민적 사회 경제 제도를 창설하며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혁명적 과업들이 제기되였는바 이 과업들의 실천 행정은 곧 조선 혁명의 진행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해방된 조선에 어떠한 정권이 수립되며 어떠한 경제적 변혁들이 수행되며 어떠한 사회 경제 제도가 수립되겠는가 하는 문제는 조선 인민에게 달린 것이며 조선 혁명의 승리 여하에 달린 것이다。

이것은 북조선 주둔 쏘련군 사령관의 포고문에도 명시되여 있다: 『…조선 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맡겨졌다。 쏘련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로력에 착수할만한 모든 조건들을 지어 주었다。 조선 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여야 할 것이다』。

근 四〇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식민지 노예의 쓰라린 학대와 갖은 압박과 착취를 받아 온 조선 인민은 우선 무엇보다도 과거와 같은 식민지 노예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며 민족의 장래 번영을 가져 오기 위하여 온갖 력량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이 창조적 전국 투쟁의 선두에는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로동 계급이 서 있었다。 조선 로동 계급은 비록 청소하고 당시 아직 자기의 전위 부대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과거 일제 통치 시대로부터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그 어느 계급 또는 계층보다 철저하게 투쟁하여 왔으므로 그의 영향은 광범한 인민 대중 특히 농민들 속에서 거대하였다。

이 반면에 국내에서의 반동적 세력을 대표하는 지주、 예속 자본가들은 그들의 반인민적、 매국적 역할이 과거 일제 때부터 대중 앞에 폭로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력량이 극히 미약하였으므로 외래 제국주의의 직접적 방조가 없이는 자립적 정치 세력으로 될 수 없었다。

민족적 독립을 원하는 일부 부르죠아들(민족 부르죠아지)은 민족 해방 혁명의 기치 하에 망라될 수는 있었지마는 그들의 계급적 처지와 경제적 및 정치적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대중의 선두에 설 수는 없었다。 로동 계급만이 민주주의적 완전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광범한 인민 대중의 선두에 설 수 있었다。

로동 계급의 주도적 역할 하에서 급격히 앙양되고 장성되는 인민 대중의 거대한 혁명적 력량과 적극성은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민족 반역자 등 반인민적

세력을 제압하면서 전 조선 방방곡곡에서 혁명적 정권의 맹아로서의 지방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一九四五년 九월 八일 남조선에 상륙한 미군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조선의 식민지화 정책을 즉시로 실시하면서 남반부 각 지방에 조직된 인민 위원회들을 해체하고 일제 시대의 통치 기구들을 복구하여 놓았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진보적、애국적 인사들을 투옥 학살하면서 자기들의 괴뢰 정부를 조직할 목적으로 친일―친미파、민족 반역자 등 일체 반동 세력을 집결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의 침략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토는 량분되기 시작하였으며 조국의 남 북반부에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이러한 력사적 시기에 우리 당은 조성된 정치적 정세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조국의 북반부에서 위대한 쏘베트 군대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들을 리용하여 조국 통일의 기초로 되는 강력한 민주 기지를 창설할 과업을 규정하였다。 우리 당은 통일된 완전 자주 독립 국가 건설、북반부에서의 민주 기지 창설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투쟁 로선을 제기하였다:

『一、광대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전개하여、애국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각당、각파와의 통일 전선을 전개하여、광대한 민주주의적인 력량을 집결하여 우리 민족의 완전 자주 독립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건립하기에 노력할 것。

二、민주주의적 건국 사업에 제일 장애물인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세력과 국제 파시쓰트 주구들을 청산하여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발전을 순리롭게 할 것。

三、전 조선의 통일적인 민주주의 림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각 지방에 인민의 진정한 정권인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며 민주주의적 모든 개혁을 실시하여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일제가 파괴하고 간 모든 공장、기업소들을 복구하며 철도 운수를 회복하여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의 기본 토대를 닦을 것。

四、이와 같은 임무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의 당을 더욱 확대 강화하며 당 주위에 광대한 군중들을 단결시키기 위하여 각계 각층 군중을 조직하는 사회 단체들을 강력히 추진할 것』

(『김 일성 선집』 제二권 一九五四년판 四九―五〇페지)。

이것이 八・一五 직후 우리 당의 당면의 정치 로선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이 제시한 목적과 과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해설을 주었다:

『로동당의 강령과 과업은 광범한 인민 대중을 동원하여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건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여하며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반역자들의 소유이던 산업、교통 운수、체신、은행 등을 국유화하며 로동자와 사무원들에게 八시간 로동제를 실시하며 사회 보험을 보장하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인민에게 언론、출판、집회、결사、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며 민족 문화、예술、과학을 발전시키는 등이다。 이 거대한 민주주의적 과업은 전 조선 근로 대중은 그 어느 계층을 물론하고 모두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 민주 개혁이 없이는 민주주의 완전 독립 국가를 수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민주 개혁이 없이는 인민 대중은 빈궁과 불평등에서 해방될 수 없으며 우리 조국의 광범한 문화적、경제적 발전의 대로를 열어 줄 수 없다。…우리들의 투쟁은 자본주의 국가의 낡은 국회식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선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즉 광범한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다』(선집 제一권 二三六―二三七페지)。

이와 같이 우리 당이 제시한 주되는 과업은 민족 해방 혁명의 과업 즉 외래 제국주의를 숙청하고 완전한 **민족**적 해방을 쟁취하는 그것이다。 외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데 자기의 예봉을 돌린 민족 해방 투쟁은 동시에 불피코 국내 반혁명적 예속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조선 예속 자본가들은 다른 모든 식민지 및 예속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적 독립과 권리를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으면서 그의 주구로 전환되였기 때문이다。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은 반봉건적 혁명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왜냐 하면 현 시기에 있어서 제국주의는 식민지 및 예속국들에 있어서 중세기적、봉건적 잔재를 옹호 보존하고 있으므로 지주들은 외래 제국주의의 믿음직한 주구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래 전에 자기의 생애를 끝마쳤어야 할 봉건적 생산 관계의 잔재와 그의 담당자인 지주는 어떤 착취 관계와 어떤 착취 계급들보다도 생산력 발전에 가장 혹심한 저해를 주고 있는만큼 이는 력사 발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도 반드시 숙청되여야 할 유물이기 때문이다。

외래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고 완전 자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세력을 부식하는 일체 주구들―지주、예속 자본가들을 동시에 숙청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 시기에 있어서 **민족** 해방 혁명은 반제、반봉건적 **민주** 혁명으로 되는 것이다。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 혁명의 임무는 대외 대내의 두 가지 적들을 격멸하고 국토를 완정시키며 조국을 통일시키는 **민족** 해방 과업을 실천함에 있다。 우리 혁명의 이 두 가지 임무는 호상 관련되여 있다。 그것은 즉 우리 조국 강토에서 외래 제국주의의 세력을 타도 구축하지 않고는 **민족** 해방은 달성될 수 없으며 또는 제

국주의자들의 엄호 하에 있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도당인 미 영 제국주의의 앞잡이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을 타도할 수 없는 까닭이다」(『김 일성 선집』 제四권 一九五四년판 二九二—二九三폐지)。

❊ ❊ ❊

우리 당이 제시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추진력은 로동 계급, 농민 계급, 도시 소부르죠아지, 민족 부르죠아지 기타 애국적 계층들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 고유한 목적인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장애로 되는 일체의 낡은 질서 즉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를 청산하는 데 절실한 리해 관계를 가진다。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행정에서 창건될 민주주의 완전 자주 독립 국가는 조선 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며 일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앞으로의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용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지어 주며 광범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제 개혁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인민 대중의 생활 형편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로동 계급은 이 혁명의 철저한 수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철저한 수행에는 농민 계급도 절실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이 혁명의 과업은 조선 인민을 식민지 노예로 전환시키려는 외래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동시에 국내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봉건적 소유 관계를 숙청하고 우선 농민들에게 유리한 토지 개혁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가 없이는 농민들은 지주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으며 지주의 토지를 획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농민들은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기치를 들고 출현한다。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지배 하에서 민족적 학대를 받았으며 또 받고 있으며 외래 제국주의자들과 국내의 반역적 대부르죠아지들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시시각각으로 파산 당하여 무산자로 전락하는 운명에 처해 있었으며 또 처해 있는 도시 소자산 계급(소상인, 수공업자들)도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의 승리에 절실한 리해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조국의 완전 해방과 광범한 민주주의적 자유, 예속적 독점 자본가들의 숙청만이 그들을 민족적 학대와 파산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도시 소자산 계급도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우리 혁명 수행에 참가하고 있다。

부강한 완전 자주 독립 국가 건설 및 일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조선인 부르죠아지는 두 개의 그루빠로 분렬되였다。 한 개의 그루빠는 민족적 독립

과 리익을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 먹으면서 반혁명적 제국주의 진영으로 넘어가는 예속 부르죠아지이며 다른 한 그루빠는 외래 제국주의의 압박에 자극되여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원하는 민족 부르죠아지이다。

조선 프로레타리아트를 수위로 한 혁명적 민주 력량이 절대 우세하고 매국적 반혁명 력량이 극히 미약한 조건 하에서 예속 부르죠아지는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희망을 걸면서 민족을 배반하고 완전히 그들에의 예속 하에 들어 갔으나 민족적 부르죠아지는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에 희망을 걸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민족 해방을 위한, 봉건 잔재의 숙청을 위한 혁명 운동을 지지하여 나섰다。

우리 당은 민족적 독립과 일반 민주주의적 자유를 열망하는 각계 각층 인민의 활동을 유일한 방향으로 즉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위한 투쟁에로 인도하였다。 여기에는 민족적 독립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민족 부르죠아지 및 기타 비근로자 계층들도 망라되여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민족 통일 전선은 혁명의 동력의 조직 형태이며 혁명적 계급 및 계층들의 협력의 조직이다。

이와 같이 부강한 완전 자주 독립 국가 건설과 일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대렬에는 로동 계급, 농민 계급, 도시 소부르죠아지 및 민족 부르죠아지 기타 애국적 계층들과 인사들이 가담하고 있다。

혁명 력량인 이 각계 각층들 중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는 것은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계급은 혁명의 철저한 수행에 대하여 다른 어느 계급들보다도 더 긴절한 관심과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성원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근로 대중으로서 사회의 존재에 필요한 물질적 향리품을 직접 생산하는 자들이며 또한 이 두 계급의 련합적 력량만이 낡은 세력의 저항을 타도할 수 있으며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에 있어서 령도적 계급은 로동 계급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령도적 계급으로 될 수 있는 온갖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는 가장 선진적인 경제 형태 즉 대규모 생산과 련결되여 있으며 그 때문에 큰 장래성을 가진 근로 계급이다。 그는 계급으로서 해마다 증대하고 정치적으로 발전하며 대규모적 생산에서의 로동 조건으로 말미암아 조직되기 쉬우며 그 계급적 처지로 말미암아 가장 혁명적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혁명에서 잃어 버릴 것이라고는 자기 철쇄 이외에 아무 것도 없으며 전취할 것은 자유와 행복이다。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조선이 해방됨과 함께 자기의 령도권을 더욱 확고히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새 조건들을 가지게 되였다。 즉 조선 인민의 혁명적 활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일제의 통치권의 전복, 쏘베트 군대의 북조선 주둔 및 전세

계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적 지지 원조는 우리 로동 계급의 력량을 급속히 장성시키는 조건으로 되였다。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전술에 기초한 혁명적 당인 우리 당의 조직과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그의 정확한 지도는 로동 계급의 령도권의 확립、강화에 있어서 결정적 조건으로 되였다。

* * *

북반부에서 로동 계급은 농민들과의 튼튼한 동맹에 기초하여 일체 반제、반봉건적 광범한 계층들과의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인민 정권을 수립하였다。

인민 정권 수립은 해방 직후에 지방 자치 기관으로서의 인민 위원회들의 조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각 도、시、군、면、리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조직된 인민 위원회들은 대체로 인민 대표자 대회에서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로써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구성되였다。 인민 위원회들은 처음에는 질서 유지와 인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혁명의 진척에 따라 강화 발전된 결과에 一九四六년 二월 八일에는 북조선 각 지방 인민 위원회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림시 중앙 정권 기관인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의 창설을 보게 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창설됨으로써 조선 력사에서 처음으로 립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인민 주권 기관이 수립되였으며 주권 기관들의 체계가 하부로부터 상부에 이르기까지 확립되였다。

지방 인민 위원회 조직과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의 창설은 혁명에 있어서 주되는 문제인 정권 문제의 승리적 해결을 의미한 것이다。

수립된 혁명적 정권의 국가적 형태로서의 인민 위원회는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인민 자신의 손으로 수립된 정권 형태이며 인민 위원회는 근로 인민을 핵심으로 하고 조선 인민의 각계 각층을 대표한 성분으로써 구성된 결과에 광범한 인민 대중 층에 뿌리박은 정권 형태이며 인민 위원회는 가장 광범한 인민들의 리익을 대표한 정권 형태이므로 인민의 요구에 가장 민첩하게 수응하여 주며 그들의 지지를 받으며 그들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새 형태의 정권 기관이며 인민 위원회는 낡은 부르죠아 사회의 소위 「의회적 민주주의」 정권 형태인 것이 아니라 악독한 일제 통치의 압박적 국가 기구를 소탕한 자리에 발생된 전혀 새로운 정권 형태이며 우리 조국을 행복스럽고 자유스럽고 부강한、일층 고상한 민주주의 사회로 끌어갈 수 있는 새 정권 형태』(『김 일성 선집』 제二권 一九五四년판 五〇—五一페지)이다。

수립된 인민 정권은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서의 공고한 로농 동맹에 기초한 각계 각층의 애국적、민주주의적 계층들의 공통적인 의사를 대표한 권력이였다。

이 정권은 『반동적 친일파 및 기타 제국주의의 주구、민족 반역자들과 또한 제국주의의 세력을 부식하려는 지주 및 예속 자본가들에게 한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 자체에 한하여서는 민주 제도를 실시한다。 이 인민 정권은 조선 인민 가운데서 제일 선진 계급인 로동 계급을 주도적 력량으로 하고 근로 대중의 선봉대인 조선 로동당의 령도 하에 전체 인민들과 또는 로동당을 핵심으로 한 조국 전선 산하 국내의 전체 애국적 민주 력량을 자기의 주위에 집결』(『김 일성 선집』 제四권 一九五四년판 四五페지)하고 있다。

조선 로동당의 령도 하에 인민 위원회는 반제、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북반부 지역에 있어서 식민지적、반봉건적 경제 제도를 청산하였다。

一九四六년 三월 五일 북조선 인민 위원회는 『북조선 토지 개혁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토지 개혁은 일본인 토지、조선인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 없는 혹은 토지 적은 농민에게 무상으로 넘겨 주었으며 일체 반봉건적 착취 형태를 청산하였다。 토지 개혁은 생산력 발전에 질곡으로 되여 있던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숙청하고 지주들을 종국적으로 청산하였으며 조선 농민의 세기적 숙망을 달성하게 하여 그들을 토지의 주인으로 되게 하였으며 그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켰으며 로농 동맹을 강화하였다。 토지 개혁은 실로 농촌 경리 발전에 있어서 일대 혁명이였다。 그러나 이 개혁은 토지에 대한 봉건적 소유 관계를 숙청한 자리에 사회주의적 토지 소유 관계를 수립한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근로 농민의 소규모적 사적 소유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토지 개혁은 농촌 부르죠아지 즉 부농을 숙청하지 않았으나 그의 경제적 지반을 약화시켰다。 토지 개혁의 결과 부농에의 경제적 예속 하에 있던 많은 빈농、고농들이 중농의 생활 수준에까지 제고되였으며 그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이 향상되였다。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에 대한 매매、소작、저당을 금지함으로써 토지가 일부 부유한 농민에게 집중되여 착취 수단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인민 정권은 또한 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소유、예속 자본가、친일파、민족 반역자의 소유로 되여 있던 산업、교통 운수、체신、은행、자연 부원 등등의 기본 생산 수단들을 국유화하였다。 그 결과에 九〇% 이상의 비률을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골간으로 되는 산업 부분이 소수 기생충들의 전용물로부터 인민 대중의 공동 소유로、그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에 복무하는 재산으로 전화되였으며 따라서 예속 자본가 계급이 숙청되였다。 인민 위원회는 계속하여 로동 법령、남녀 평등권 법령을 실시하였으며 인민에게 언론、출판、집회、결사、신앙의 자유를 보장하

였으며 인민 교육 제도와 민족 문화、예술、과학들을 부흥 발전시키는 등등의 민주주의적 제반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 로동당의 령도 하에 인민 정권에 의하여 실시된 제반 민주 개혁의 결과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낡은 사회 경제 제도가 청산되고 새로운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였다。

한편 미 군정 통치 하의 남조선에서는 조선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반하여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이 로골화되여 갔다。 우리 나라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쏘련과 중국을 반대하는 군사 전략상 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미제는 남반부에서 애국적 민주 력량을 탄압 박해하면서 민족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자국의 잉여 상품을 범람시키는 한편 전략 물자들을 략탈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토지 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본질적으로 봉건적인 지주 토지 소유 제도를 옹호하여 나섰을 뿐만 아니라 일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략취하려고 시도하였다。 미제는 일제 시대의 억압적 노예적인 교육 문화 제도를 보전하며 많은 교육 기관들을 폐쇄하면서 애국적 학생들과 교원、학자들을 검거 투옥하였다。

이와 같은 식민지 략탈 정책은 인민 생활을 극도로 령락시켜 로동자、농민、인테리들을 실업과 기아와 암흑의 구렁에로 몰아 넣었다。 다시금 외래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며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창조할 것을 열망하는 남반부 인민은 북반부 인민과 함께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 민족 반역자들을 반대하여 일어섰다。

남반부에서의 一九四六년 一〇월 인민 봉기、一九四七년 三월 총파업、一九四八년 『유·엔 조선 위원단』 입국 반대 투쟁、남조선 단독 선거 뽀이꼬트 투쟁 등은 남반부 인민도 전체 조선 인민과 함께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북반부에서와 같은 인민 주권의 수립、민주 개혁들의 실시를 갈망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한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미 군정과 그 주구들은 조국의 자유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에로 궐기하는 애국적 인민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우리 나라 남반부에 조성된 이와 같은 정세는 우리 혁명 수행의 복잡성과 장기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북반부에서의 위대한 민주 개혁들의 승리적 수행은 남반부 인민을 조국의 자유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였으며 또 하고 있으며 그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묶어 세우고 있다。

북반부에서의 민주 개혁들의 승리적 수행은 북반부를 우리 혁명 완수를 위한 기지로 전변시키는 데 있어

서 근본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된다。

『북조선의 위대한 제 민주 개혁의 승리들은 우리 조국의 완전 독립을 보장하는 튼튼한 정치 경제적 기초를 축성하였으며 현하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세 하에서 우리 북조선을 조국이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할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의 정책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구원하는 강력한 민주 세력의 기지로 전변시켰다。

북조선 민주 개혁의 승리는 우리 조국이 전 조선 인민이 일일천추로 고대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향하여 우렁차게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김 일성 선집』 제二권 一九五四년판 五七—五八페지)。

❃ ❃ ❃

우리 당은 민주 개혁의 제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켜 조국의 통일 독립의 현실적 기초로 되는 민주 기지를 경제、군사적으로 가일층 강화하는 길에 들어 섰다。

우리 당은 이 과업을 실천하는 첫 대책으로 이미 수립된 인민 정권을 상부로부터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일층 민주화하며 법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 민주 선거 실시에로 인민을 조직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북조선 인민의 고도로 되는 애국적、정치적 열성 속에서 一九四六년 一一월부터 一九四七년 二월까지의 사이에 진행된 도、시、군、면、리 인민 위원회 선거는 실로 조선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비밀 투표에 의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실시된 선거인 것이다。

인민은 실제 생활을 통하여 체험하는 가운데서 인민 위원회가 진실로 자기들의 리익을 위한 정권이며 자기들의 운명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정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로동당을 핵심으로 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에서 추천한 공동 립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하였다。

로동당의 지도적 역할과 그를 선두로 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의 일치한 보조는 첫 민주 선거의 빛나는 승리를 보장하였다。

민주 선거의 뒤를 이어 북조선에서의 최고 인민 정권 기관을 법적으로 고정화하기 위하여 一九四七년 二월에 개최된 인민 위원회 대표자 대회는 최고 주권 기관인 북조선 인민 회의를 창설하였으며 이리하여 북조선에 있어서의 인민 정권 기관들은 법적으로 고정화되였으며 일층 강화되였다。

북조선 인민 위원회는 로동당의 지도 하에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부흥 발전시키며 자주 독립 국가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며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一九四七년과 一九四八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채택하였다。

로동당은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서 인민 대중을 새 승리에로 고무 추동하였으며 당 단체들의 사업을 생산에 더 한층 접근시켜 전체 당원들로 하여금 모든 힘을 생산에 돌리게 하였다。

로동당의 령도와 근로 대중의 애국적 열성과 자각적、창발적 로력의 결과에 一九四七년도 및 一九四八년도 인민 경제 계획은 성과적으로 완수되였으며 우리 조국 북반부 인민 대중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현저히 제고되였다。

조국 통일의 기초로 되는 혁명적 민주 기지를 튼튼히 보위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인민군 창건이 필요하였다。 로동당의 지도 하에 一九四八년 二월 八일에는 인민 군대가 창건되였다。 당은 인민 군대를 근대적인 무장으로 장비 훈련하였으며 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당원들과 당 일꾼들을 군대에 파견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그들의 주구인 남조선에서의 친일—친미파、민족 반역자들의 매국적 망국 정책이 一九四八년 五월 一〇일 남조선 『단독 선거』와 괴뢰 정부 수립으로써 일층 로골화됨과 관련하여 조선 로동당은 애국적 조선 인민 앞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구국 대책으로서 새로운 결정적 방침들과 임무들을 제기하였다。 즉 그것은 남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전 조선 최고 립법 기관인 최고 인민 회의를 선거하고 전 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통일적 중앙 정부를 수립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는 것이였다。

남 북조선 제 정당、사회 단체 지도자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一九四八년 八월에 최고 인민 회의 선거가 전 조선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 로동당은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 산하 각 정당、사회 단체들과의 긴밀한 련결과 협력 하에서 남북 조선 인민을 선거에로 조직 동원하여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피선된 대의원의 절대 다수는 로동자、농민 및 인테리들의 대표 즉 근로자들이였다。

최고 인민 회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고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를 조직하였다。 인민 공화국 정부 수립은 인민 정권의 완성 발전이였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손으로 조직한 진정한 인민 정권——인민 위원회를 그 정치적 기초로 하고 자기들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한 제반 민주 개혁의 성과들을 그 사회—경제적 기초로 하면서 창건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은 통일적 완전 자

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조선 인민의 새로운 거대한 승리였다。

공화국 정부의 당면 임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화국 정부 앞에는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며 해방 후 三년 동안에 우리 조국의 북반부에서 실시된 위대한 민주 개혁들을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 실시하며 오늘 북조선 인민들이 향유한 권리와 행복과 자유를 우리 공화국의 남반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경제、문화 생활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장구한 식민지 통치의 잔재를 숙청하고 우리 조국을 민주주의적으로 혁신하며 우리 조국을 부강하고 문명한 민주주의의 독립 국가로 전변시키며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의 대렬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설 수 있는 독립 국가 민족으로 되게 할 력사적 임무가 제기되여 있다』(선집 제二권 一九五四년판 二七四——二七五페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국의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의 제도를 계속 공고히 하며 인민의 물질적、문화적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며 민주 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루차의 인민 경제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실천에 몰두하는 한편 평화적 조국 통일과 완전 자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백방의 구체적 대책들을 취하였다。

一九四九、一九五〇년도에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평화적 조국 통일에 관한 로동당의 제의를 토의하고 『평화적 조국 통일에 관한 선언서』와 결정들을 채택하였으며 그 후에 있어서도 남조선 국회、각 정당、사회 단체、군대 및 일반 인민에게 호소문을 보내여 외국의 간섭 없이 남 북조선 인민이 한 자리에 뫼여 호상 리해와 회담의 방법으로 조국의 통일 문제를 토의하며 남 북조선 인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통일적 민주주의 중앙 정부를 수립하자고 성의 있는 제의를 하였다。

우리 당의 창의에 의하여 루차에 걸쳐 제의된 정당한 제안들은 공화국 북반부 인민은 물론 남조선 각계 각층 인민과 지어는 일부 남조선 국회 의원들과 군대 내에서까지도 광범한 지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남조선 정권 당국은 미제의 사촉 하에 이 모든 제의들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一九五〇년 六월에는 드디여 동족 상쟁의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 하에 자기들의 진정한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호하며 조국의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의 제도를 수호하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 궐기하였으며 국내의 모든 사업을 전시 체제로 개편하고 모든 것을 전쟁 승리에 복종시켰다。

해방 후 五년 동안 우리 당의 지도 하에 조국의 북반부에 창설 공고화된 민주 기지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무력 침공을 좌절시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며 혁명을 보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기능을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조국 해방 전쟁은 조국의 완전 자주 독립을 위한 반제 민족 해방 혁명에서의 가장 첨예한 계급 투쟁의 표현이였으며 국제 반동 진영과 민주주의、사회주의 진영 간의 투쟁이였다。

이 투쟁은 조선 인민과 세계 민주 진영의 거대한 승리로써 끝났다。

그러나 조국 해방 전쟁은 우리 조국 령토로부터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종국적으로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통일 독립은 쟁취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 앞에는 통일된 민주주의 완전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과업은 가장 중요한 임무로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단일한 우리 나라의 전체적 발전에 참을 수 없는 저해를 주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빈궁에서 신음하게 하며 전체 조선 인민에게 커다란 불행으로 되여 있다。 그러므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전체 우리 조선 인민의 최대의 과업으로 되여 있다。 현하 우리의 모든 사업은 이 숭고한 목적에 복종되여야 하겠다』(김 일성)。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며 민주주의 완전 자주 독립 국가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그 민주 기지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여 공화국 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력량으로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력량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욱 전진시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제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은 북반부에서의 사회 경제 발전의 필연적 요구로 된다。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은 나라의 공업화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실시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점차적 방법으로 사자본주의적、소경영자적 요소들을 사회주의적으로 리용 개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로동 계급은 사회주의 건설의 사상적 및 정치적 원동력으로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신 사회주의 건설의 직접적 수행자이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은 소상품 생산자들、주로 농민 대중을 행복과 문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본래의 로선인 사회주의 건설의 길로 농민들을 인도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변혁의 단계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령도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기본 독적인 사회

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비프로레타리아적 계급들을 사회주의적으로 리용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기초 즉 그의 물질적 기초를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주되는 과업은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이다。 오늘 우리는 쏘련 인민과 중국 인민을 비롯한 형제적 인민들의 막대한 물질적、기술적 방조를 받게 되는 조건 하에서 전후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면서 三개년 계획에서 앞으로의 중공업 특히 기계 공업 발전을 위한 기초를 축성하고 다음의 五개년 계획에서 우리 나라 공업화의 제一단계를 끝마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오늘 三개년 계획은 그 첫해인 一九五四년도 계획이 초과 완수되고 계획 수행에서의 중요한 해인 一九五五년도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서 있으며 전체 계획의 성과적 수행이 예견되고 있다。 三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우리 나라 공업화를 촉진시키는 공고한 토대로 될 것이다。

농민들의 소상품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유일한 길은 자원적 원칙 하에 그들을 점차 농업 협동 조합 즉 대규모적 협동 경리인 협동 조합에 결합시키는 데 있다。

농민들은 협동 경리가 개인 농민 경리에 비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에 있어서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실지로 구체적인 경험에 의하여 확신하게 되는 경우에라야만 집단 경리에로 이행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대중의 열정에 의하여 직접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의 방조 하에서 개인의 물질적 리해에 의하여 직접 건설된다고 브·이·레닌은 교시하였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과 국가는 우선 협동 조합들의 생산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적 토대 즉 현대적 농업 기계들을 협동 경리에 풍부히 제공할 것이며 그들의 문화―기술적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킬 것이며 또 이러한 물질적、문화―기술적 토대 우에서 농민들의 소부르죠아적 심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교양할 것이다。

개인 농민 경리의 사회주의적 경리에로의 이행은 무엇보다도 공업 발전 수준과 농민들의 의식 및 문화―기술 수준에 제약되는만큼 그리 단시일 내에 완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농민 경리는 앞으로 일정한 기간 존속될 것이며 우리 나라 농업 생산력의 발전은 현재 일방으로는 농업 협동 경리의 강화 발전을 통하여、또 타방으로는 개인 농민 경리에 대한 물질적、기술적 방조를 통하여 실현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공업 특히 중공업의 발전과 농민들의 문화 수준 및 정치 의식 수준의 제고는 앞으로 개인 소농민 경리를 대규모적 협동 경리에 이행시키는 물질적 및 사상적 전제 조건으로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건설함에 있어

서 우선 중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면서 그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바 이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성분의 비중을 증대시켜 사회주의적 경제 법칙들이 인민 경제의 전반에 걸쳐 작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국의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은 북반부 인민의 물질적、문화적 생활 수준의 근본적인 향상을 보장할 것이며 로 농 동맹을 가일층 공고화할 것이며 남반부 인민을 더욱 혁명화하며 억압자、략탈자들을 반대하는 혁명 투쟁에로 더욱 고무 추동할 것이며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며 이리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혁명의 완수를 촉진할 것이다。

오늘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 하에서 통일된 완전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하여 장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국 통일 독립 완성의 물질적 담보로 되는 북반부 민주 기지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경제 형태들과 계급적 제 관계

윤 기 복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제반 민주 개혁과 민주 건설의 결과 사회 경제 구성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였다。

봉건 사회의 말기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개편되지 못한채 처음에는 자본주의 렬강의 반식민지로、마침내는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는바 이 때로부터 우리 조국의 사회 경제 체제는 식민지 반(半)봉건적 성격을 띠게 되였다。

해방전 조선 경제의 식민지적 성격은 국내의 주요 생산 수단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독점적 소유 하에 있었으며 공업、농업、운수、체신、금융、국내 상업과 대외 무역 등 조선 경제의 중요 부문들이 일제에 의하여 관할되고 그에 완전히 예속되여 있는 데서 표현되였다。

즉 공업에서는 일제 통치 말기에 일본 자본의 몫이 九五——九六%에 달하였으며 상업에서는 약 八五%에 달하고 있었다。

해방전 조선 경제의 반(半)봉건적 성격은 한 줌도 못되는 지주들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조선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이룬 농민 대중은 토지의 결핍 또는 부족으로 말미암아 가혹한 봉건적 착취를 당하고 있었으며 농촌 경리를 지배하고 있던 봉건적 착취 그 자체도 사실상 전반적인 식민지적(제국주의적) 착취의 부속물로 전화되여 있은 데서 표현되였다。

一九四〇년 현재로 총농가 호수의 三・三%에 불과한 지주층이 총경지 면적의 六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총농가 호수의 九六%를 넘는 농민들은 총경지 면적의 三七・八%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방전 조선 사회에는 대체로 생산 수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소유 형태들이 존재하였다: 즉 (1) 자본

주의적 사적 소유(일본 국가, 일본인, 조선인 예속 자본가 및 민족 자본가의 자본주의적 소유), (2) 토지에 대한 봉건적 소유(일본 국가, 일본인 및 조선인 지주의 봉건적 소유), (3) 수공업자 및 농민의 소규모적 사적 소유.

생산 수단에 대한 이와 같은 소유 형태들에는 각각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 봉건적 경제 형태 및 소상품 경제 형태가 대응하고 있었다.

그중 해방전 조선 사회에서 발생 발전한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식민지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니 그것은 주로 일제와 조선인 예속 자본가들이 조선 로동 계급을 제국주의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이였다. 조선인 민족 자본가들은 식민지 폭군으로서의 일본 독점 자본에 의하여 부단히 구축 파산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해방전 조선 농촌에서 토지에 대한 봉건적 소유에 기초한 경제 형태는 일제와 조선인 지주들이 조선 근로 농민을 봉건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이였는 바 이는 본질상 봉건적 생산 관계의 류형에는 속하지만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순전한 봉건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 그 자체가 벌써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었다.

주로 도시의 수공업 경리와 농촌의 근로 자작농 경리를 포괄하고 있던 소상품 경제 형태는 부단히 분화되고 령락되여 해방전 조선 경제에서 말차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요컨대 해방전 우리 나라 경제는 순전한 봉건 체제도 아니며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도 아닌 식민지 반(半)봉건적 경제 체제로서 특징지어진다. 이는 결국 반(半)봉건적 유제를 가진 (자본주의가 전체 포괄적으로는 발전하지 못한) 그러나 자본주의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식민지 경제이였다는 데 귀결되며 두 말할 것도 없이 일제에 의하여 강요되고 일제의 리익을 위하여 가장 유리하게 편성된 기형적인 사회 경제 체제이였다.

여기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 발전을 저해하던 주되는 질곡은 곧 우리 나라가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여 있은 사정과 농촌에서 반(半)봉건적 유제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은 사정이였다. 그리하여 해방전 조선 사회에는 이미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이 배태 준비되고 있었다.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일제의 장구한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였다. 이 때로부터 조선 인민 앞에는 조국의 자유 독립과 인민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력사를 창조하는 대로가 열리여졌다.

쏘베트 군대가 진주하였던 우리 조국 북반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여 조직된 인민 주권이 우리 당의 지도 하에 생산력 성격에의 생

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에 의거하면서 사회 경제 체제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길에 들어 섰다.

우선 우리의 인민 주권은 광범한 근로 농민 대중의 밑으로부터의 적극적 지지에 의거한 우로부터의 자체 발기에 의하여 력사적인 토지 개혁을 조직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발전에 세기적 질곡으로 되여 오던 토지에 대한 봉건적 소유는 근절되였으며 그 대신에 토지에 대한 근로 농민의 소규모적 사적 소유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따라서 북반부 농촌에서는 지주가 계급으로서 숙청되고 봉건적 착취의 기반이 영원히 청산되였으며 이제는 자기 로력으로써 자기 땅을 자유로 경작하는 소상품적 개인농 경리가 농촌에서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게 되였다.

인민 주권은 또한 제반 민주 개혁의 일환으로서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실시하였다. 이 개혁을 통하여 일제와 예속 자본가들의 소유 하에 있던 공장, 광산, 제조소, 운수, 체신, 은행 등이 수탈되여 국가 소유로 전화되였는바 이는 이 개혁을 실시한 우리 주권의 인민적 성격과 관련하여 명실 공히 전 인민적 소유이였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의 주요 골간이 국가의 수중에 장악됨으로써 조국의 북반부에서는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와 착취를 위한 물질적 지반이 청산되고 강력한 국영 경제 성분에 의하여 대표되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창설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우리의 중요 산업 국유화도 역시 사회주의적 국유화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중요 산업 국유화의 주요 특성은 그것이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에서 제기되고 수행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반제 민족 해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 개혁의 일환으로서 제기되고 수행되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개혁에 있어서 조선인 민족 자본가들의 자본주의적 소유는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았으며 그들의 기업 활동은 그 후에도 계속 인민 주권에 의하여 허용 보장되여 왔다.

이 밖에도 우리의 인민 주권은 로동 법령, 남녀 평등권 법령, 농업 현물세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고 사법 및 교육 기관들을 민주화하는 등 일련의 사회 정치 경제 개혁들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은 북반부에서 완전히 수행되였다. 그 결과 북반부에서는 해방전 조선 사회의 진보를 저지하던 주되는 질곡인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착취 기반이 분쇄되고 식민지 반(半)봉건적 경제 체제는 드디여 인민 민주주의적 경제 체제로 근본적으로 변혁되였다.

＊ ＊ ＊

인민 주권이 수립되고 제반 민주 개혁이 완수된 결

과 조국의 북반부는 八·一五 해방을 계기로 폭풍우와 같이 개시된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혁명적 민주 기지로 전변되였다。 이리하여 북반부에서는 인민 경제의 주도적 성분인 국영 경제를 백방으로 확대 공고화하는 방향에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산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며 조국 통일 독립의 위업 달성을 위한 군사、정치、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구축하는 과업을 계속 수행하여야만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북조선 로동당 제二차 전당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우리 당은 우리가 이미 쟁취한 민주 개혁의 성과를 확보 발전시키며 그 기초 우에서 민족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의 길로 들어섰다。 문제는 단순히 장구한 일제 통치의 결과와 전쟁 당시에 파괴된 민족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국영 부문이 지배적 세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민족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는 데 있다』(선집 제二권 七一—七二 폐지)。

이리하여 제반 민주 개혁을 완수한 후 북반부 인민은 사회주의를 향해 점차적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길에 들어 섰으며 우선은 인민 경제 부흥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착수하였다。

북반부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에로의 과도는 력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 특성을 가지였다:

첫째로 우리의 과도는 물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의 일반적 범주에 속하기는 하나 순전한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에로의 전형적인 과도이라느니보다 식민지 반(半)봉건 사회로부터 우선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겪친 후 점차 사회주의 사회로 과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이 아직도 전국적으로 완수되지 못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이 달성되지 못한 조건에서 민주 기지 북반부에서만 인민 경제가 사회주의에로 과도하는 길에 들어 섰다。 조선 혁명의 이와 같은 특수하고도 복잡한 환경에서 북반부가 먼저 사회주의에로 과도하는 것은 사회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오직 조국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더욱 공고화하는 길이며 조국 통일의 물질적 담보로 되기 때문이다。

세째로 우리 조국이 공업 지대인 북반부와 농업 지대인 남반부로 인위적으로 량단되여 있는 조건과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극도로 파괴되고 락후한 인민 경제 특히 산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은 북반부 인민 경제가 사회주의에로 과도함에 있어 부흥기의 일정한 난관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위한 북반부 인민의 투쟁은 조국 해방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시

저해를 당하였는 바 (여러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 중 전쟁으로 인한 부흥기의 중단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만 있은 특수한 사정이였다) 그 결과에 우리의 부흥기는 비교적 장기성을 요하게 되였다。

그러나 전후의 부흥기는 결코 전쟁전 부흥기의 단순한 반복인 것은 아니다。 물론 전쟁에서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며 산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는 부흥기의 과업이 전후에도 기본적으로 실시되고는 있으나 전후 시기에 있어서는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재건과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의 과업이 벌써 상당한 정도로 동반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사회주의로 가는 대로를 전쟁 전에 비하여 훨씬 광활하게 여러 놓았다。

끝으로 우리는 위대한 쏘련 인민이 이미 레닌—쓰딸린 당의 지도 하에 사회주의의 건설의 길을 선구적으로 개척한 산 모범과 형제적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실천적 경험을 본받아 비교적 용이하게 그리고 보다 급속한 템포로써 사회주의를 향하여 과도할 수 있다。 특히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하여 여러 형제적 국가 인민들로부터 보내 오는 막대한 정치—정신적 성원과 기술—경제적 방조는 우리의 승리를 위한 극히 유력한 담보로 되여 있다。

＊ ＊ ＊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적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도 아니며 또한 그것은 완전한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도 아닌 이른바 과도기 경제 체제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사회주의에로 점차적으로 이행하는 과도기 경제 체제인 것이다。

과도기 경제의 기본 특징은 본래 인민 경제의 다(多)우클라드성에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도 현재 여러가지 경제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창설되여 날로 확대 공고화되고 있는가 하면 또한 비(非)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들도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경제의 지도적 력량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에 의거하여 모든 비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들을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이야말로 과도기의 기본적 임무인 것이다。

현 계단에 있어서 공화국 북반부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제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형태로는 사회주의적 경체 형태이며、

둘째 형태로는 소상품 경제 형태이며、

세째 형태로는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이다。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인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소유에는 두 가지 형태가 구별되는바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그것이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생산 수단에 대한 국가 소유에 기초한 국영 경리들과 생산 수단에 대한 협동적 소유에 기초한 협동 경리들을 포괄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국영 경제 성분과 협동 경제 성분의 두 쎅또르로써 구성되여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북반부 인민 경제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공업 부문에서 그의 비중은 압도적 우세(九七——九八%)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국영 공업은 북반부 전체 공업의 약 九〇%에 달하고 있으며 협동 단체 공업은 七——八%에 해당한다。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 중에서도 인민 경제의 결정적이며 지도적인 핵심을 이루는 것은 국영 경제 성분이다。 국영 경제 성분은 산업 국유화의 결과 창설되여 그후 조선 로동당의 옳바른 경제 정책과 인민 주권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통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급속히 확장 발전되여 왔다。 거기에는 공업의 심장부인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하여 광업、야금 공업、석탄 공업、전기 공업、화학 공업과 같은 기초적 공업 부문들이 전적으로 집중되여 있으며 건재 공업、림산업、수산업、경공업 및 식료품 공업의 압도적 부분이 속해 있다。

현재 국영 경제 성분에는 국영 공업 기업소들 이외에 또한 중요 관개 시설、국가 농목장、국영 농기계 임경소 및 우마 임경소、국영 건설 트레스트들과 그 산하 사업소들、전체 철도 운수 및 기타 운수、전체 체신、국영 상업망과 사회 급양망、전체 대외 무역、중앙은행、국영 문화 후생 시설(영화관、극장、목욕탕、리발소、세탁소 등) 기타가 포함되며 나라의 자연 부원도 모두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이와 같이 국영 경제 성분의 기초에는 인민 경제의 제압 고소들에 대한 국가적 소유가 놓여 있는바 이는 우리 주권의 인민적 성격과 관련하여 명실 공히 전 인민적 소유이다。 여기에 바로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의 국가 소유가 해방 전에 있은 일본 독점 자본의 대변인으로서의 전(前)일본 국가의 소유나 또는 일반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국가 소유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 현대 자본주의 제국의 『국유화』된 경리에 있어서의 이른바 국가 소유 또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들에서의 종주 국가의 소유란 사실상 자기들의 국가 권력을 빌어 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더 많은 최대한 리윤을 획득하기 위한 독점 부르죠아지의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적 경제 체제하에서 주요 생산 수단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본질상 생산 수단에 대한 철저히 사회주의적인 사회적 소유로서 진정으로 전 인민적인 소유인 것이다。

국영 경제 성분에 있어서는 생산 수단이 전적으로

전체 인민의 소유에 속하는만큼 생산된 전체 생산물이 또한 전체 인민에 의하여 점유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발생할 수 있는 추호의 여지도 없으며 생산 과정에서의 인간들 호상간의 관계는 착취로부터 해방된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와 호상 원조의 관계로서 전적으로 특징지어진다。 생산 관계가 이와 같이 철저히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의 국영 경제 성분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를 대표하는 가장 위력한 경제 성분이다。

민주 개혁이 완수된 후 우리 당과 우리의 인민 주권은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를 확대 강화함에 있어서 비단 국영 경제를 확장하는 데만 주의를 돌린 것이 아니라 협동 조합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기초하여 도시와 농촌에 각종 협동 단체들을 조직、정비、강화하는 데도 적지 않은 주의를 돌려 왔다。 그 결과 공업、농촌 경리、상업、사회 급양、금융、봉사 등 인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협동 단체들이 다양하게 조직되여 도시와 농촌의 소생산자들을 광범히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함에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오늘날 협동 경제 성분에는 생산 협동 조합、수산 협동 조합、농업 협동 조합、소비 조합、농민 은행과 같은 각종 협동 단체들이 망라되여 있다。

협동 경제 성분에 있어서 경제적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곧 생산 수단에 대한 협동적 소유인바 이는 개별적 협동 단체의 소유、다시 말하면 이러저러한 개별적 협동 단체에 가입한 근로자들(수공업자 또는 농민)의 기본적 생산 수단에 대한 집단적 그루빠적 소유이다。 그러므로 이는 생산 수단에 대한 온갖 사적 소유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생산 수단에 대한 국가적 소유와는 형태상 구별되나 본질상으로는 동일한 류형에 속하는 사회주의적인 사회적 소유(공동 소유)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적 경제 체제하에서의 생산 수단에 대한 국가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가지 형태로서 량자는 다만 생산 수단의 사회화의 철저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만 구별될 따름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 체제 하에서는 협동 경제도 본질상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며 협동 경제 성분에서의 생산 관계도 역시 착취로부터 해방된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와 호상 원조의 관계로서 기본적으로 특징지어진다。

다만 오늘날 북반부의 협동 경제 성분에 있어서는 개별적 협동 단체에서의 협동적 소유의 침투 정도와 사적 소유의 극복 정도에 따라 협동 경리들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들로 구별되고 있을 뿐이다。

一、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들——여기에는 생산 협동 조합의 다수(공유화 조합)、농업 협동 조합 제三 형

태、소비 조합 및 농민 은행이 속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협동 경리들의 특징은 기본적 생산 수단에 대한 완전한 협동적 소유에 기초하여 소득이 오로지 로동에 의해서만 분배된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는 개별적 조합원들의 출자에 의한 분배의 몫이 전혀 용납되지 않고 있다。

례컨대 농업 협동 조합 제三 형태는 현재 우리 나라 농업 생산 협동화의 최고 형태로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농업 아르쩰리의 형에 속한다。 다만 토지가 국유화되여 있지 않고 토지에 대한 협동 조합원들의 사적 소유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여 있다는 점이 바로 이 농업 협동 조합으로 하여금 쏘련의 농업 아르쩰리와 구별되게 한다。 즉 여기에서는 임의의 조합원이 언제든지 협동 조합의 공동 토지 폰드로부터 자기의 출자 분을 회수하여 조합을 탈리할 수 있는 권리와 상속권이 기준 규약상 엄격히 보장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실질상 완전히 사회화됨으로써 토지 출자에 의한 분배의 몫이 전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되여 있다。

본래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실질적 내용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사적으로 점유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토지 출자의 몫에 따르는 생산물의 사적 점유가 전적으로 극복되였으며 수입이 오로지 로력일에 의해서만 분배되는 농업 협동 조합 제三 형태에 있어서는 출자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의 법적 형식 (사유권)에도 불구하고 실질상 (그 경제적 내용에 있어)토지에 대한 완전한 협동적 소유가 확립되여 있다는 것을 단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지적할 것은 이 농업 협동 조합들의 절대 다수는 농지와 농기구 및 축력들이 협동 조합의 공동 소유로 되여 있으며 로력에 의해서만 수입이 분배되는 원칙이 확립된 사실이다』(김 일성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근로자』一九五四년 제一〇호 一二폐지、방점은 필자의 것)。

생산 협동 조합의 다수 (『공유화 조합』)도 이 점에 있어서는 농업 협동 조합 제三 형태와 류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특히 소비 조합과 농민 은행에 있어서 자산이 완전히 사회화되여 있는 사실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二、반(半)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들——여기에는 생산 협동 조합의 일부 (비공유화 조합)、수산 협동 조합 및 농업 협동 조합 제二 형태가 속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협동 경리들의 특징은 기본적 생산 수단에 대한 불완전한 협동적 소유 (부분적인 협동적 소유)에 기초하여 소득이 주로는 로동에 의하여 분배되나 동시에 부차적으로는 출자에 의해서도 분배된다는 데 있다。

례컨대 농업 협동 조합 제二 형태에 있어서 토지가

협동 조합의 집중적 관할 하에 있으며 수입의 분배가 주로는 로력일에 의하여 실시되나 토지 출자에 의한 분배의 몫이 사소한 비중에서나마 (기준 규약에 의하면 二〇% 미만) 용납되고 있는 사정은 기본적 생산 수단에 대한 협동적 소유의 불완전성이 분배 과정에 미친 반작용으로써 설명된다。 결국 출자의 몫에 따르는 분배의 몫이 비근로 소득으로서 개별적 조합원에 의하여 사적으로 점유된다는 것은 출자 폰드에 대한 사적 소유의 요소가 기본적 생산 수단에 대한 협동적 소유의 압도적 우세 하에 사소한 비중으로나마 실질상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소유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二중성이 분배에 있어서의 二중성을 제약한다。

이와 같은 협동 경리들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엄밀하게 따진다면 아직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협동 경리의 수준에까지는 미처 이르지 못하였다는 의미에서 이를 반(半)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로 규정할 수 있다。

지적해야 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 반(半)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들이 현재 극히 과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 협동 경리를 둘러 싸고 있는 사회 경제적 제 조건의 변화、공동 축적을 강화하는 방도에 의한 조합 공동 재산의 급속한 장성、조합원들의 의식 수준의 가일층의 제고 등 일련의 요인들로 말미암아 상기 반(半)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는 점차 용이하게 조합원들 자신의 자원에 의하여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협동 경리에로 전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과도적인 형태에 불과하다。

맑스—레닌주의는 가르치기를 협동 경제의 본질은 언제나 구체적인 정치 경제적 제 조건 특히는 그것이 뿌리 박고 있는 사회 경제 체제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브·이·레닌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자본주의 국가의 환경 밑에서는 협동 조합이 집단적、자본주의적 기관으로 됨은 의심할 바 없다』(전집 제三三권 四三三폐지)。

『그리하여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부르죠아지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승리 하에서 문명한 협동 조합원들의 체제——이것은 사회주의의 체제이다』(동상서 四三一폐지)。

이 밖에도 오늘 날 북반부의 협동 경제 성분에는 농업 협동 경리 제一형태가 속하여 있다。 이것은 종래 개인농 경리들에 의한 품앗이 또는 소결이의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조직된 농촌 로력 협조반으로서 주로 로동만이 사회화되여 있는 가장 저급한 초보적인 형태의 농업 협동 경리이다。 이는 본질상 사회주의의 맹아로서 규정된다。

다음 공화국 북반부에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규모적 사적 소유에 기초한 소상품 경제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도시의 개인 수공업 경리와 농촌에서 아직도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근로 농민 경리가 속한다.

일제의 기반에 얽매여 있던 해방전 조선의 식민지 반(半)봉건적 경제 체제 하에서도 소상품적 경제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음은 전술한바 이거니와 당시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소상품 생산은 일본 독점 자본 및 조선인 예속 자본에 의한 가혹한 억압 착취로 말미암아 불가피적으로 부단히 령락, 파산 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해방 후 민주 개혁의 과정에서 소상품 생산의 처지는 중요하게 변동되였다. 이는 주로 소상품 생산을 둘러 싸고 있는 사회 경제적 제 조건의 변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 경제 체제의 변혁에 기인하였다.

첫째로 북반부에서 수행된 민주주의적 사회 경제 변혁의 결과 도시와 농촌의 소상품 경리는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의 멍에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였다.

둘째로 소상품 경리는 자본주의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니라 인민 경제의 제압 고소들을 튼튼히 장악한 사회주의적 국영 경제 성분의 지도 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강력한 국영 경제 측으로부터의 온갖 기술적 및 경제적 방조를 받게 되였다.

셋째로 사회주의적 국영 경제의 지도적 역할로 말미암아 소상품 경리에 대한 상업 자본 및 고리대 자본의 략욕적 침해의 여지도 극도로 제한되였으며 계속 제한되여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제 사정은 당연히 소상품 경제 성분 그중에도 특히 토지 개혁의 결과 북반부 농촌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된 개인농 경리에 있어서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급진적 향상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소상품 경리를 둘러 싸고 있는 객관적 환경의 이와 같은 근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상품 생산은 역시 그 자체로 보아 소상품 경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여전히 생산 수단에 대한 소규모적 사적 소유가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까닭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소규모적 사적 소유란 타인의 로력을 착취하지 않으며 주로 자기 로력에 의거하는 개인 근로자들(개인 근로 농민 또는 개인 수공업자)의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생산 수단이 타인 로력의 착취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리만큼 소규모적인 동시에 그를 운영하는 소생산자 자신에 의하여 사적으로 점유되여 있다. 따라서 생산된 생산물이 그를 생산한 소생산자 자신에 의하여 사적으로 점유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생산 수단에 대한 이와 같은 소유 형태는 그에 기초한 소상품 경리의 경영주로 하여금 근로자인 동시에 소유자로서의 二重성을 떠게 하며 따라서 이들 소생산자로 하여금 그가 근로자인 한에서는 부르죠아와 구별되는 동시에 그가 소유자인 한에서는 본래의 프로레타리아와 구별되게 한다. 바로 여기에 소상품 경제 형태를 대표하는 계급인 소부르죠아지가 흔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길 사이에서 동요하게 되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상품 생산 및 소부르죠아지의 운명은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및 부르죠아지의 지배 하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적 생산 및 로동 계급의 지도 하에 있는가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그리하여 민주 개혁의 결과 창설된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 민주주의적 경제 체제 하에서 수공업과 농촌 경리를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업이 로동 계급과 인민 주권 앞에 제기된 것은 북반부에서의 사회 경제 발전의 력사적 필연성이였다.

그런데 소상품 경제 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업은 생산 수단에 대한 개인 근로자들의 소규모적 사적 소유를 국가적 소유로 전화시키는 방도에 의하여 해결될 수는 결코 없다. 왜냐 하면 그와 같은 방도는 곧 소생산자들의 리익에 심각히 저촉되는 까닭이다.

이리하여 여기에서는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교시한 바와 같이 그리고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이 똑똑히 뵈여 주는 바와 같이 과도기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소생산자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하며 소상품 경제 형태를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로 개조하는 유일한 길은 자원적 원칙에 따라 점차적으로 소생산자들을 협동화함으로써 생산 수단에 대한 그들의 소규모적 사적 소유를 협동적 소유로 전화시키는 데 있다. 이 길만이 오직 소상품 경리로 하여금 사회주의적 대규모 집단 경리로 전환되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인 것이다.

끝으로 북반부 인민 경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가 잔존하고 있다.

북반부에서는 민주주의적 변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제와 예속 자본가들의 자본이 수탈됨으로써 제국주의적 착취의 기반은 근절되였으나 민족 자본가들의 소유는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 당과 인민 정권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되였으며 그들의 기업 활동은 계속 허용 보장되여 왔다. 이는 북반부 인민 경제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의 국부적 잔존을 조건지었다.

북반부에서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에는 도시의 자본주의적 개인 공업 기업소들과 개인 상업 및 농촌의 부농 경리들이 속한다.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는 오늘날 북반부 인민 경제에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그 경제적 지반이 매우 빈약하다. 그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데 있다:

첫째로 해방전 조선 사회에서 민족 자본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농촌에서는 자본주의가 거의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던 까닭에 민주 개혁을 통하여 일제 자본과 예속 자본이 수탈되자 북반부에서는 자본주의가 인민 경제의 말차적 지위에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에 반하여 조선 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던 일제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가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화된 결과로 북반부에서는 과도기 첫 시기부터 벌써 사회주의적 성분이 인민 경제의 많은 부문들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둘째로 민주 개혁을 완수한 후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계속 확대 공고화됨에 따라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점차 축소되였다.

세째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개인 기업소들은 미제의 야만적 폭격과 강도적 략탈로 인하여 무참히도 파괴 파산 당하여 전후에 들어와서는 다시 일어서기에 매우 곤난한 형편에 처하여 있었다. 그리하여 지금 북반부에는 개인 기업소가 아주 적으며 있다고 하면 정미소, 야장간, 소규모의 고무 공장 정도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에서는 크나 적으나 자본주의적 착취가 진행되고 있다. 즉 도시에서는 사자본가들이 임금 로동자들을 착취하여 자본주의적 리윤을 획득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상업 리윤이라는 비근로적 착취 수입을 얻고 있다. 농촌에서는 부농적 요소들이 고용 로력의 채용 (일 고용, 계절 고용, 년 고용 등), 축력 및 농기구의 대여, 은밀한 형태로서 진행되는 각종 현물현금 고리대, 곡물 시장을 통한 투기 모리 등 제 방법으로 빈농들과 일부 중농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는 제국주의적 착취와 봉건적 착취가 이미 완전히 근절된 조건에서 공화국 북반부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마지막 착취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과 류통의 제 분야에서 사자본주의적 경제 요소들이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과 인민 생활의 안정 향상에 기여하는 한에서는 그들의 기업 활동을 계속 허용하면서 그의 창의 창발성을 리용하며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에로의 전진 운동을 저지하는 한에서는 그들 자본주의적 제 요소를 서서히 제한하는 방도로써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를 공화국 인민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로정에 적응시켜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나갈 것을 예견하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와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는 서로 적대되는 사회 경제 형태이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인민 경제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경

제 정책에 의하여 향도되고 있는만큼 이 두 경제 형태간의 적대적 모순도 반드시 점차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는 점차적으로 소멸되여 갈 것이다.

* * *

인민 민주주의적 경제 체제가 수립된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새로운 경제적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의 경제 법칙들이 발생 작용하게 되였으며 그 작용 범위는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가 추진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장되여 가고 있다.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화국 북반부에서 그 작용의 객관적 지반을 전적으로 상실 당한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완전한 대립물인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즉 여기서는 근로자들의 나날이 장성하여 가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생산의 근본적 목적으로 되였으며 높은 기술에 기초한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개선은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되여 있다.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은 비단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지도적 지위가 확대 강화됨에 따라 다른 경제 형태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향을 주며 점차 전체로서의 북반부 인민 경제의 발전을 규제하는 결정적 힘으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칙의 작용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수립되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인민의 복리에 대한 끊임 없는 배려로써 시종 일관되고 있으며 북반부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급속하고도 계통적인 향상은 공화국 경제 발전의 철칙으로 되여 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에 있어서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인민 경제의 『항구적이며 의식적으로 유지되는 균형성』 (『레닌 전집』 제三권 五四五폐지)으로 하여금 경제 발전의 객관적 필연성이 되게 하였다. 이는 우리의 인민 주권에게 인민 경제를 계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는바 그 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에 현실성으로 전화되였으며 바야흐로 공화국의 현행 및 전망 계획화 실무는 날로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 법칙도 역시 비단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형태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작용을 주고 있는바 이에 기초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적 경제 성분을 계획적 (균형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소상품 경제 성분도 이를 간접적 절차로서나마 계

회적으로 지도하며 자본주의적 경제 성분에 대해서까지도 국가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분배 법칙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날 공화국 북반부에서 국영 경제 로동자、사무원들과 협동 경제 근로자들은 과거와 같이 소수 착취자들의 치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자기 조국의 륭성 발전과 근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유롭고 영예로운 로동을 하고 있으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사회 생산물을 분배받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현존은 낡은 경제 법칙들의 국부적 작용을 위한 물질적 지반을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에 있어서는 로동력이 상품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잉여 가치 법칙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제 형태에 있어서는 물론 심지어는 소상품 경제 형태에서까지도 경쟁 및 생산의 무정부성 법칙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경제 법칙들의 영향 범위가 계속 확장되며 사적 경제 성분에 미치는 그 작용이 강화됨에 따라 자본주의적 경제 법칙들의 작용 범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축소되여 간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요소들 부분들、단편들』(『레닌 전집』 제二七권 三〇三페지)이 혼재함으로써 서로 대립되는 경제 법칙들이 뒤섞여 작용하고 있으며 새 것과 낡은 것 간의 치렬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과도기 경제의 주요한 특색이다.

여기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과도기 경제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근거하여 그리고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 법칙의 요구에 따라 **과도기 현 계단에 있어서 인민 경제의 지도적 력량인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를 백방으로 확대 공고화하며 소상품 경제 형태를 협동화의 방도로써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또한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를 리용、제한의 방도로써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는 마침내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로 하여금 인민 경제의 유일하게 지배적인 경제 형태로 되게 하며 사회주의적 경제 법칙들로 하여금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체 포괄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성과적으로 구축하고야 말 것이다.

* * *

공화국 북반부에 존재하는 여러 사회 경제 형태들과 그들 간의 호상 관계는 곧 과도기 현 계단에 있어서 북반부에 존재하는 계급들과 그들 간의 호상 관계를 제약한다.

이미 제반 민주 개혁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일제의

주구였던 민족 반역적 예속 부르조아지와 지주 계급이 숙청된 공화국 북반부에는 현재 다음과 같은 계급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로는 로동 계급이며、

둘째로는 소부르조아지 주로 근로 농민이며、

세째로는 민족 부르조아지이다.

이들은 모두 조국의 북반부에서만 이미 수행되였으며 아직도 전국적 범위에서는 완수되지 못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 남반부의 애국적 민주 력량과 함께 광범한 정치적 군대를 형성하였으며 또한 형성하고 있다. 우리 혁명의 이와 같은 광범한 동력 중에서도 그 주력군은 물론 로동 계급과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근로 농민이다.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전 행정에 걸쳐 혁명의 유일한 령도 계급은 가장 선진적이며 철저한 혁명적 계급인 로동 계급이다.

현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로동 계급의 압도적 부분이 사회주의적 국영 경제 성분에서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로동에 종사하고 있다. 다만 극소한 부분이 아직도 자본주의적 사기업에 의하여 고용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하여 인민 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국영 경제 성분의 주도적이며 핵심적인 지위는 또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왜냐하면 로동 계급은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를 대표하는 계급이며 사회주의를 위한 진정한 투사들인 까닭이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의 로동 계급은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무산 계급)임을 이미 오래전에 그만두었다. 그는 온갖 생산 수단을 박탈당한 헐벗고 굶주린 임금 노예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권을 가졌으며 인민 경제의 제압 고소들을 자기의 수중에 튼튼히 틀어쥔 진정으로 자유로운 로동자들이며 국가의 령도 계급으로서 조직된 로동자들이다.

이와 같이 북반부 로동 계급의 처지는 해방 전에 비하여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더우기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남반부 로동 계급의 처지와는 천양지판으로 다르다.

특별한 사회 계층으로서의 사무원도 역시 주로 국영 경제 성분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이 착취 계급에 복무하던 낡은 인테리겐챠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교양되였거나 또는 근로 인민의 자녀들로써 새로 양육된 지식층이며 로동 계급의 리익과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복무하는 새 인테리겐챠를 이루고 있다.

소상품 경제 형태를 대표하는 계급인 소부르조아지의 처지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우선 근로 농민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는바 그들은 과거와 같이 외래 제국주의자들과 지주들、그리고 상업 자본 및 고리대 자본에 의한 二중 三중의 착취로 말미암아 부단히 령락 파산 당하던 처지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였다.

이것은 농민이 로동 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로서 그

들과 함께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투쟁한 최대의 보람이였는바 그 후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날로 급속히 향상되였으며 빈농은 대중적으로 중농화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북반부에서는 해방 전부터 계속 중농의 지위를 보존해온 소위 옛 중농과 토지 개혁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새 중농을 포괄하는 전체로서의 중농이 농촌의 중심 인물로 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반부 농촌에는 아직도 령세 농민이 일정한 정도로 남아 있다. 이는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극도로 감소된 령세 농민이 혹심한 전쟁 피해로 인하여 다시금 다소간 증가된 사정에도 직접 기인하는 것이나 토지 개혁 후 대중적 중농화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령세 농민이 존재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농촌에서 아직도 소상품 경제 형태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데 있다. 소상품 경제 형태가 남아 있는 한 계층적 분화가 극도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진행되지 않을 수 없으며 농촌에서 착취와 빈궁의 마지막 근원이 종국적으로 청산되지 못한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은 인민 민주주의 사회의 두 개의 기본적 계급을 구성하고 있다.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동맹이야말로 북반부에서 제반 민주 개혁의 승리적 완수를 위한 투쟁의 기본 동력을 이루었으며 오늘도 북반부 인민 경제의 전진 운동을 추진하는 위대한 사회적 력량으로 되여 있다.

그리하여 과도기 현 계단에 있어서 강력한 사회주의적 대규모 국영 공업으로부터 농촌 경리에 대하여 계속 부절히 베풀어지고 있는 국가적 지도와 거대한 기술 경제적 방조는 곧 근로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령도와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여 있다.

바야흐로 북반부의 근로 농민은 물론 도시의 소자산 계급까지도 로동 계급의 지도 하에 부유하고도 문화적인 새 생활의 의식적 개척자로서 대중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되고 있다.

이미 북반부에서는 전 농호의 四五・一%가 농업 협동 조합(제三 및 제二 형태)에 가입하였다. 그러므로 개인 근로 농민은 아직도 소상품 경제 형태에 머물어 있으나 농업 협동 조합원은 실로 조국의 력사상 일찌기 있어 본 일이 없는 새로운 류형의 농민으로서 이미 본질상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에 속하는 근로 성분인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늘 도시의 수공업자들도 역시 개인 수공업자들과 협동 조합 가입 수공업자들로 구분되고 있는바 전자는 아직도 소상품 경제 형태에 머물어 있으나 후자는 이미 본질상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근로 성분인 것이다.

이와 같이 계급으로서의 소부르죠아지가 점차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 경제 성분의 근로자들로 개조되여 가며 국영 경제 성분의 로동자、사무원들과 함께 사회주의적 경제 성분의 근로자로 대렬을 구성하여감은 소상품 경제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관련된 필연적인 로정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족 부르죠아지는 자본주의적 개인 상공업을 경영하는 도시 부르죠아들과 부농적 요소들로써 구성되여 있다. 이는 북반부에서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를 대표하는 계급이다.

현재 북반부에서 개인 자본가들과 부농적 요소들의 경제적 지반은 대단히 미약하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자기들의 능력에 알맞는 업종의 개인 기업 및 부농 경리의 운영을 허용받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일정량의 소비품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급속한 장성에 따라 그들의 착취 대상이 더욱더 근절되여 가는 제 조건은 그들로 하여금 불가불 점차 사회주의적 근로 성분(국영 경제 성분 로동자、사무원이나 협동 경제 성분 근로자)으로 개조되도록 한다.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과 부르죠아지 간에는 물론 일정한 적대적 모순이 내재하고 있다. 그러한 한에서 부르죠아지가 사회주의적 근로 성분으로 점차 개조되여 가는 로정에는 불가피적으로 일정한 계급 투쟁이 동반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도 역시 우리 당과 인민 주권의 옳바른 지도 하에서 점차적 방법으로 능히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현 계단에 있어서 전체로서의 조선 혁명의 기본 임무가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민족적 독립을 종국적으로 달성하며 남반부 인민을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로부터 해방하는 데 있는만큼 조선 인민 앞에 나서 있는 이 최대의 거족적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한결같이 결속된 일체의 반제 반봉건 민주 력량의 강유력한 통일이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향도하고 있는 현 계단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과도기 경제 정책도 역시 로동 계급에 의하여 령도되는 공고한 로농 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각계 각층 애국적 민주 력량의 강력한 정치—정신적 통일을 전제로 함으로써만 능히 성과적으로 완수될 수 있음은 두 말할 여지도 없다.

당내 민주주의와 지도에서의 집체성

허 빈

맑스—레닌주의당의 지도적 원칙과 당 생활의 규범들에 충실한 우리 당은 동일한 사상을 가진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한 근로 대중의 선진 분자들의 자각적인 전투적 동맹으로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자기의 조직적 구조의 지도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우리 당의 조직적 구조의 지도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하부로부터 상부에 이르는 전체 당 지도 기관들을 선거하며 선거 받은 당 지도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자기 사업을 결산 보고하며 하급은 상급에, 소수는 다수에, 전 당은 당 중앙에 복종하는 원칙에 의하여 당의 정책과 실제 사업을 당 중앙 위원회가 제시하는 유일한 방향에로 통일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도가 유일한 당 중앙 위원회에서 나오고 하급은 상급에 복종하는 원칙에 의거한다 하여 우리 당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가 하급 당 기관들의 자립적 활동과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여 우리 당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는 당 기관들의 자립적 활동과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의 발양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중앙 집권제는 당내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이며 우리 당이 지도의 최고 원칙으로 하는 집체적 지도는 당내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여 실현된다. 우리 당의 지도에서의 집체성은 당내 민주주의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다. 당내 민주주의는 지도의 집체성의 선차적 요구이며 이 요구를 만족시킴이 없이는 집체적 지도가 실현될 수 없으며 따라서 집체적 지도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내 민주주의와 지도의 집체성은 호상 불가분리의 련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호상 배제하지 않고 호상 침투되여 우리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강화한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엄격히 립각하여

당내 민주주의와 지도에서의 집체성을 확고히 준수함으로써 당 단체들과 당원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적극적으로 제고 발양시키며 당의 규률을 강화하며 당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 혁명의 성격과 기본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 기초 건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 단체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하며 당원, 비당원 근로 대중의 무궁 무진한 창조적 력량을 발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당은 각급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 및 자립성을 제고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는 당내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키며 당적 지도의 최고 원칙인 집체적 지도 원칙을 가일층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 * *

우리 당은 당원들의 열성과 자각성으로써 강력하다. 당은 당의 운명을 창조하며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당원들의 고상한 자각성과 적극성으로써 자기 대오를 더욱 튼튼히 조직 결속 훈련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앞에 제기된 중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한다.

당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매개 당원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쟁하면 할수록 또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 있어서 그들이 더 훌륭히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 당 앞에 나선 혁명적 제과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으며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양시키지 못한다면 정확한 당 정책의 수립도, 그의 옳바른 실현도 기대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시켜 당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우선 당 생활의 확고 부동한 법칙인 당내 민주주의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여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이는 당 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당원 대중의 적극성, 자립성, 창의 창발성을 제고하며 매개 당원에게 당의 주인이라는 감정을 발양시키며 그들을 당 정책 문제 토의와 당적 지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입할 가능성을 주며 당내에서 자각적 규률을 강화하며 당의 전투력을 부단히 제고하며 당대렬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맑스—레닌주의를 자기의 사상 리론적 기초로 삼으며 선진 당의 투쟁 경험을 자기의 실천적 지침으로 삼는 우리 당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당 생활의 확고 부동한 법칙으로 되고 있는 당내 민주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당 단체들의 활동에 있어서 당내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되며 그의 기본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 하부로부

터 상부에 이르기까지 전체 당 지도 기관들의 선거 제도이며 당 지도 기관들은 자기를 선거한 당 단체와 당원들 앞에서 정기적으로 자기 사업을 결산 보고하는 제도이다.

당 지도 기관들의, 결산—선거는 당원 대중이 자기가 선거한 당 위원회와 그의 구성 성원의 사업을 통제 검열 평가할 가능성을 보장하여 주며 당 사업에서 발생되는 오유와 결함들을 미연에 방지 제거함에 있어서 우로부터의 검열을 하부 당원 군중에 의한 검열과 배합시킬 가능성을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이것은 당 사업에 대한 당원 대중의 주인다운 책임감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당 지도 사업에 대한 당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당 지도 기관들의 책임성을 높이며 전체 당 단체들의 전투력을 제고시킨다.

이와 같이 당 지도 기관들의 정기적인 결산—선거는 당 생활의 확고 부동한 법칙인 당내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며 당원들에게 당 규약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당 생활에서의 필수적 요구이다.

지난 三년 간에 걸친 가혹한 전쟁으로 인하여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당은 당 지도 기관들의 결산—선거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전쟁의 환경 하에서는 각급 당 지도 기관들에게 그가 선거 받은 당 단체 앞에서 정기적으로 자기 사업을 결산 보고하여야 할 책임을 수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였다.

우리 당은 당 규약상 제정된 요구에 따라 전후 시기에 들어서면서 지방 당 단체들의 결산—선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다시금 금년 一一월 중순부터 지방 당 단체들의 지도 기관 결산—선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당면한 지방 당 단체들의 지도 기관 결산—선거를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그의 준비를 면밀히 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결산—선거 준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이 당원들 앞에서 진행하는 결산 보고의 준비이다.

결산 보고에는 매개 당 단체 지도 기관들이 지난번 결산—선거 이후 오늘까지 약 二년 간에 어떻게 사업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자기 지방에서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어떻게 지도하였으며 당 정책과 그로부터 흘러 나오는 당 단체들의 실제적 임무를 얼마나 실현하였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보고에 근거하여서만 당원들은 자기의 지도 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줄 수 있으며 이 평가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도 기관을 선거하게 된다.

만일 당 지도 기관 결산—선거 회의에 제출되는 결산 보고가 당 및 경제 사업 실행에 대한 심오한 분석

이 없이 다만 숫자와 통계로써 작성되거나 자기 사업을 자기 비판적으로 검토함이 없이 자랑만 주로 하고 사업상 결함들과 그 결함의 원인을 구명하지 않는다면 당 단체들의 활동을 개선하며 사업상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결산—선거를 위한 당 총회와 대표 회의에 제출되는 지도 기관의 결산 보고 준비에는 특별한 주의가 돌려져야 하는바 결산 보고는 책임 간부들의 직접 참가 하에 위원들과 열성 당원들의 의견이 광범히 참작된 기초에서 작성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의 지도 기관 결산—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의 다른 하나는 당원들에게 당 지도 기관에 어떠한 일꾼을 선거할 것인가를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매개 당원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부여된 선거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여 지도 기관에 신망있고 유능한 일꾼을 선거하도록 보장하게 하는 문제이다.

당내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양되여야 할 결산—선거 회의들에서 만일 당원들의 의사와 요구에는 관계없이 소위 회의 집행부의 『복안』으로써 지도 기관 성원을 지명하고 선거하려는 현상들이 발생된다면 이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란포한 위반이며 당원들의 권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유린이다.

자기의 지도 기관을 선거하는 권리는 당원들에게 부여된 당 규약상 제정된 권리이다. 이 권리에 대한 유린은 당내 민주주의의 란포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지도 기관의 선거가 어떤 개인의 편견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으며 당의 최고 원칙인 지도의 집체성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한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원들은 자기의 지도 기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 기관들의 구성을 혁명 사업에서 단련된 로숙한 혁명 간부들과 또 정치적으로 잘 준비되고 실무적으로 능숙한 일꾼들로 선거할 권리를 당 규약상 제정된 권리로서 부여받고 있으며 이 권리를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행사할 권리를 또한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이 권리의 유린을 우리 당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 단체들의 지도 기관 결산—선거 회의는 당내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며 당원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당원 대중을 교양하는 훌륭한 학교이다. 이 회의들은 당원들과 지도 일꾼들에게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자기 비판적으로 대하도록 하며 달성한 성과에 도취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극을 주며 당의 진정한 주인은 당원 대중이라는 것을 리론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통하여 알게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기간에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결산—선거 사업을 앞두고 당 단체 지도 기관 성원들을 함부로 다른 사업에 조동하는 현상들이 있었

는바 특히 이러한 현상들은 당원 대중에게 자기의 지도 기관 성원들의 사업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지도 기관 성원들에게 주는 밑으로부터의 옳은 충고와 교양을 방해하는 유해한 현상이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급 당 지도 기관 결산—선거는 당내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며 당원들에게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당 생활에서의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 당이 자기의 건설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자기 활동의 기초로 하며 또한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당원들의 권리를 정확히 보장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는 당 정책의 모든 문제들을 당원 대중이 직접 혹은 대표를 통하여 결정하며 혹은 출판물을 통하여 토의에 참가하는 데서도 표현된다。

당원 대중이 당의 주인으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리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로선과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때에라야만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원 대중의 적극성과 헌신성에 의하여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당은 당 단체들에게 당원들을 당 및 국가 사업의 실제적 문제들을 토의 해결함에 있어서 광범히 참가시키며 그것을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당 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당 회의——이는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생활의 중요한 문제들과 자기 당 단체 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토의함으로써 당원들을 사상 정치적으로 단련시키며 당파 국가의 결정들을 수행하기 위한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 그리고 강철같은 규률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학교이다。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비판과 자기 비판이 충분히 전개되도록 보장하는 당 회의는 당내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며 당원들의 적극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황북도 내 적지 않은 초급 당 단체들에서는 당 회의가 정기적으로 소집되지 못하고 있으며 토의되는 문제는 당원들의 열성과 흥미를 끌지 못하며 회의가 왕왕 당내 민주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하고 흥미있는 문제의 설정과 당내 민주주의의 철저한 발양은 당 회의들에 당원 대중의 적극적 인입을 보장하며 비판과 자기 비판의 활발한 전개를 보장하는 필수적 조건이며 이것은 또한 광범한 당원 대중을 당 사업에 인입하여 그들에게 정확히 당적 분공을 줄 수 있게 한다。

당 단체들은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공작하는 한 사람의 당원일지라도 그들을 당 단체들의 모든 생활 밖에 방임하여 둘 수 없다。 당 단체들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계획이 내세운 국가 계획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하

여 당원들에게 힘에 맞는 당적 위임을 더욱 광범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당 단체들이 력량과 능력에 적응한 위임과 과제를 당원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당 사업에서 그들의 적극성과 정치적 열성을 제고시킬 수 없다。

홀동 광산 운반 제一 분세포의 실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포내 당원들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적당한 당적 분공을 위임할 대신에 세포 지도 기관은、당원들은 『수준이 어리다』느니 『무능하다』 등 자기의 주관적 견해로써 결산—선거 이후 세포내 당원들의 거의 과반수에게는 당적 분공을 전혀 주지 않고 일부 당원들에게만 편중하여 당적 분공을 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당 단체들에서는 단순히 당 회의와 학습회에나 참가하고 당비나 납부하는 것으로써 당원들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 수행을 국한시키고 있다。

당원들은 응당 당 사업 문제 토의에 참가하여 자기의 창발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문제의 결정에 주인답게 참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문제의 집행에 구체적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일정한 당적 분공까지 위임받아야 한다。 문제 토의에의 적극적인 참가、위임된 당적 분공에 대한 실행——이것 없이는 당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당 생활에서 구현시킬 수 없으며 또 당내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지도에서의 집체성도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원들이 당 사업 문제 토의에 직접 간접으로 혹은 당 출판물을 통하여 참가하는 것은 당원들의 권리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당내 민주주의는 이 밖에도 당원들에게 자기에게 관계되는 문제가 토의되는 당 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상급 당 지도 기관들에 신소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데서 표현된다。 규약상 제정된 당원들의 모든 권리는 당내 민주주의의 표현이며 이것은 또한 당내 민주주의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다。

당내 민주주의는 당 내에서의 비판과 자기 비판의 자유로운 전개에서 표현된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맑스—레닌주의 새 형의 당의 활동의 법칙이며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는 무기이다。

그런데 비판과 자기 비판은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함이 없이는 활기있게 진행될 수 없다。 당내 민주주의의 발양은 활발한 비판과 자기 비판의 전개의 필수적 전제 조건이다。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여 그것이 발양되지 않는 당 단체들에서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이 활발히 전개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둔한 일이다。 당내 민주주의의 적극적 실시만이 활발한 그리고 구속을 모르는 비판과 자기 비판을 전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아직도 비판과 자기

비판이 활기 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억압하고 있는 현상들이 적지 않다。이러한 현상들은 일부 지도 일군들이 상부로부터의 비판은 접수하나 밑으로부터의 비판에 대하여서는 들은체 만체 하며 그를 접수하지 않으려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판을 두려워하며 특수적으로는 하부로부터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상부 앞에서만 책임을 질 것이지 하부 당원 대중 앞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또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하부 당원 대중으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지지 발전시킬 대신에 그를 억제하려는 범죄적인 견해이다。

지난 시기의 곡산 광산 초급 당 위원회 전 책임 간부들은 자기를 비판한 당원들에게 복수하여 부당한 책벌을 주거나 그들을 타 사업으로 조동시킴으로써 자기의 결함을 미봉하려 하였으며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박해하였다。

밑으로부터의 비판에 대하여 은연히 혹은 공공연히 자기의 직권을 악용하여 복수하는 자들은 당 대렬에서 있을 자리가 없다。

이와 같이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관료주의적으로 대하는 조건 하에서는 당 사업에서 결함과 오유를 제때에·적발 시정할 수 없으며 당원들을 당 지도 사업에 적극 인입할 수 없으며 당내 민주주의가 발양될 수 없는 것이다。

경험은 비판과 자기 비판에 대한 관료주의적 태도가 당 사업에 커다란 해독을 주며 당 단체들의 자립적 활동과 당원들의 열성을 마비시키며 당내에 관료주의자들이 둥지를 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직 당 단체들의 모든 활동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발양시키고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적극 지지 발전시키는 조건 하에서만 당 사업을 개선 강화할 수 있으며 당 내의 자각적인 규률과 당 대렬의 순결성과 통일을 보장할 수 있다。

당내 민주주의의·보장과 발양의 필수적 조건은 당 규약상 제정된 당원들의 권리의 원만한 보장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 규약상 제정된 당원들의 권리를 존중함이 없이는 당내 민주주의의 발양을 상상할 수 없다。

당내 민주주의——이는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당 생활에서의 확고 부동한 규범이다。

당내 민주주의를 철저히 발양시키려면 당원의 권리를 옳게 행사하도록 제반 조건들을 보장하여 주는 동시에 당 단체들은 당원들에게 당적 의무 수행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당원의 권리와 의무의 철저한 보장이 없이는 당내 민주주의가 발양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당내 민주주의는 당 단체들의 모든 활동의 기초로 되며 당원들의 적극성을 발양시키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당내 자각적 규률을 확립하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필수적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의 당내 민주주의는 어떠한 무원칙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중앙 집권제적 지도에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이다。 우리 당의 조직 원칙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는 불가분리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우리 당은 단일한 강령과 규약을 가지고 있으며 당의 최고 기관으로서는 전 당 대회가 있으며 전 당 대회와 전 당 대회 간에는 당 중앙 위원회가 유일한 최고 지도 기관으로서 하급 당 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또한 하급은 상급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전 당은 당 중앙에 복종하는 원칙을 준수하는 강철같은 규률로써 전 당을 한 몸과 같이 단결하고 있다。

우리 당의 많은 당 기관들과 수천의 초급 당 단체들은 정치、경제、문화 등 인민 경제의 전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그들의 사업은 당의 강령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유일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만이 수 많은 당 단체들의 사업을 한 가지 목적에로 복종시키며 당의 정책과 실제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는 우리 당의 조직적 구조의 지도적 원칙으로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민주주의의 중앙 집권제를 약화시키는 개인 영웅주의、자유주의、지방 할거주의、종파주의의 잔재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의 중앙 집권제의 레닌—쓰딸린적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실현하며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시키는 당내 민주주의를 가일층 발전시킴으로써 당 대렬을 공고히 하며 당의 전투력을 당의 유일한 목적의 실현에로 집중시킨다。

민주주의의 중앙 집권제를 자기의 조직적 구조의 지도적 원칙으로 하는 당의 지도의 최고 원칙은 집체적 지도이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중앙 집권제를 자기의 조직적 구조의 지도적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지도에 있어서 집체적 지도를 최고 원칙으로 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의 발양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집체적 지도——이것은 당적 지도에서의 민주주의의 철저한 발양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의 지도의 최고 원칙은 집체성에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집체적 지도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런데 집체적 지도는 집체적 지도 기관들인 당 위원회에 의하여 보장된다。

집체적 지도 기관으로서의 당 위원회들은 당의 정치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해당한 당 단체 앞에 제기된 정치、경제、문화적 제 과업의 성과적 실현을 보장하는 정치적 지도 기관이다。

특히 지도적 당 위원회들의 결정、지시는 당 단체들과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 정치적 방향과 그 수행 방도를 규정하여 주며 동시에 그것은 또한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활동의 규범으로 된다。

만일 당 위원회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어그러진 결정을 채택하거나 그릇된 지시를 하달한다면 또 당 위원회들의 실제 활동에서 과오와 외곡이 발생한다면 당 사업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직 당내 민주주의에 기초한 집체적 지도 원칙의 철저한 준수만이 지도적 당 위원회들의 결정、지시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 지도 기관들의 결정、지시가 옳바른 것으로、권위 있는 것으로 되도록 할 중대한 책임이 집체적 지도 기관들에 부여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 당의 지도의 최고 원칙은 집체적 지도 방법이다。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적 리론에 기초한 집체적 경험과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의 현명성만이 당과 국가의 정당한 지도를 보장하며 당 대렬의 불패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며 우리 당 앞에 제기된 정치、경제、군사、문화적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

당 기관들의 일체 활동에 있어서 지도의 집체성의 준수——이것은 당 정책 수립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당원、비당원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킬 뿐만 아니라 지도에서의 일면성과 우연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며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며 당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집체적 지도 원칙의 위반은 당 단체들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며 당 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을 엄중한 과오에로 이끌어 가며 당의 지도 기관들과 당원 대중 간의 긴밀한 호상 련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적 일군들의 부당한 편견을 당적 지도에 허용할 수 있게 한다。

집체적 지도를 실현하며 그것을 강화함에 있어서 당 위원회 전원 회의와 상무 위원회들은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군 당 대표회와 대표 회의 사이에 그 당 단체들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되고 있는 도、시、군 당 위원회 전원 회의들은 해당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된 모든 기본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해당 상무 위원회들에 구체적인 사업 방침들과 지시들을 주며 당 결정 실행을 조직 총화하며 당 기관들의 사업을 당 단체들의 활동에 접근시키는 등으로써 당과 국가 앞에 나선 모든 과업들의 성과적 실현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책임을 지고 있다。

당 규약상 요구에 따르는 당 위원회 전원 회의외 정기적 소집은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제때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당 위원회 위원들의 역할과 적극성의 제고、당내 민주주의와 비판과 자기 비판의 활발한 전개、당 결정 실행에 대한 검열과 통제의 강화、안일성과 자만 자족의 미연 방지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황해북도 내 일부 시、군 당 위원회들은 당 위원회 전원 회의를 당 규약상 제정된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집할 대신에 당 상급의 지시나 권고에 의하여서만 전원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향들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송림시 당 위원회의 실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지도 기관 결산—선거 이후 전원 회의를 三회 소집하였으나 그 전원 회의들은 모두가 당 상급의 지시에 의하여 소집되였던 것이다。 전원 회의를 창발적으로 소집하지 않았던 결과 송림시 당 위원회는 일상적 당 사업에 당 위원회 위원들을 광범히 망라시킬 대신에 상무 위원회가 일체 당 사업을 독단 처리하였으며 심지어 상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문제까지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이 단독 처리함으로써 지도의 집체적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송림시 당 위원회 앞에는 당 상급에서 지시한 문제 외에도 전원 회의에서 토의하여야 할 당 조직 정치 사업과 경제 건설 사업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전원 회의를 당 규약상 제정된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그것만으로써 지도의 집체성이 원만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당 위원회 책임 일군들이 전원 회의를 집체적 지도를 실현하며 사업을 개선하는 중요한 연단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준비 밑에 소집하는가에 있다。 전원 회의들을 신중한 목적 지향성 없이 단순히 일부 당 단체들과 당 일군들의 사업상 락후성을 뒤흔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 또 당 위원회 책임 일군들에게 『훈시하는 연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집한다면 그러한 전원 회의가 집체적 지도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최근에 진행된 사리원시 당 위원회 전원 회의가 바로 이렇게 진행되였다。 사리원시 당 위원회 전원 회의는 락후한 당 단체들의 사업과 당 생활을 태공하는 당원들을 뒤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할 목적으로 소집되였는바 회의에는 필요 이상 광범히 당 열성자들을 참가시키고 그들로부터 사죄적 자기 비판을 받는 것으로써 만족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전원 회의는 열성자 회의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당 위원회 위원들은 방청객처럼 함구무언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시 당 상무 위원회와 시 당 위원회 책임 일군들의 활동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없게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당의 집체적 지도는 다만 당 위원

회 전원 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는 것만으로써 원만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전원 회의들에서 토의되는 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집체적 경험을 옳게 종합하며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라야만 실로 집체적 지도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이 밖에도 당 위원회 위원들의 정치 실무적 수준과 그들의 역할을 제고하며 전원 회의 준비를 철저히 보장하며 회의 진행에서 당내 민주주의와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발양시켜야 한다. 특히 당 위원회 전원 회의의 성과는 전원 회의 준비 여하에 좌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북도내 일부 시、군 당 위원회 책임 일꾼들은 전원 회의 준비에 직접 참가하지 않으며 보고서와 결정서 초안 작성을 해당 부서 하부 일꾼들에게 위임하며 심지어 작성된 보고서와 결정서 초안만을 위원들과는 물론 상무 위원회 혹은 협의 회의에서도 검토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회의에 제기하고 있다.

전원 회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토의되는 문제에 관한 보고서、결정서 초안의 작성을 하부 일꾼들에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응당 당 책임 간부들이 직접 담당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위원들을 광범히 참가시키며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 위원회 위원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하며 당 위원회 책임 간부들은 일상적으로 사업을 위원들과 함께 토의하며 또 당면한 문제를 그들에게 제때에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황해북도내 일부 시、군 당 위원회들은 당 위원회 앞에 제기된 중요한 문제들을 제때에 위원들에게 알리며 그들과 함께 토의 해결할 대신에 당 위원회 위원장들이 독단으로 처리하는 사실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당 위원회들에서는 전원 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상무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의 역할을 무시하고 당 위원회 책임 간부들이 문제를 단독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상술한 결함들을 제거함으로써만 당 위원회 위원들은 자기를 선거한 당원 대중 앞에서 자기의 책임성을 자각하고 당 지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될 것이다.

집체적 지도 기관들인 당 위원회 전원 회의들은 당 결정、지시들의 집행에 대한 유력한 검열의 수단으로 되는만큼 전원 회의를 사업상 결함에 대한 예리하고 원칙적인 비판의 연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험은 당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위원들이 주저함이 없이 흉금을 털어 놓고 자기의 창조적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며 어떤 일꾼을 막론하고 례외 없이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회의에서 취급되는 문제를 진실하게 실무적으로 토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당 위원회 전원 회의의 역할을 제고하며 지도에서 집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 지도 일꾼들은 응당 당원 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존중히 여기며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접수하여 오유를 대담하게 시정할 용의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군 당 위원회 책임 간부들은 전원 회의에서 당원들과 위원들이 제기하는 의견과 비판적 지적에 대하여 주의를 적게 돌리며 심지어 토론자들의 토론이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토론을 반박하여 중단시키며 질문으로써 토론자들을 곤난케 만들므로써 비판적 지적과 건의를 억제하고 있다.

물론 회의에서 토론자들이 취급되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정확한 토론을 전개할 때 책임 간부들은 토론을 옳은 방향에로 이끌기 위하여 토론자들의 토론에 일정하게 방조를 줄 수도 있다. 이것은 회의에서의 비판적 수준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다. 그러나 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토론자들의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함부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토론자들을 곤난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원 회의 앞에서는 당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들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원 회의들에서 직무상 권한을 내세우려 하며 자기를 전원 회의보다 높이 내세우려는 일부 당 기관 책임 일꾼들의 옳지 못한 작풍의 또 하나의 표현은 전원 회의 폐회에 앞서서 『관례상』 하는 당 위원회 책임 일꾼들의 결론적인 발언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의 유해성은 그 발언이 왕왕 전원 회의 결정을 대치하는 데서 표현된다.

전원 회의에서 전체 토론을 다 듣고 나서 내용이 풍부하게 토론의 개괄을 지으며 문제 토의 과정에서 제기된 제의와 의견들에 해답을 주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결론적 발언은 긍정적인 의의도 가진다.

그러나 전원 회의의 마지막에 가서야 하는 위원장의 발언이 하나의 제도로 되거나 그것이 지령과 결정으로 대치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원 회의와 전원 회의 간에 있어서 해당 당 단체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당 위원회 상무 위원회는 기동적인 집체적 지도 기관이다. 당 위원회 상무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소집하며 그의 집체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며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황해북도 내 일부 시、군 당 상무 위원회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원 회의들에서 발생되는 결함과 류사한 그러한 결함들이 흔히 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함들이 전원 회의들에서 지도의 집체성을 약화시키던 것과 같이 상무 위원회의 지도의 집체성도 약화시키고 있다.

기동적인 집체적 지도 기관으로서의 시, 군 당 위원회 상무 위원회들에서의 엄중한 결함의 하나는 문제 토의에 있어서 상무 위원들 간에 활발한 의견을 교환함이 없이 통례로 시, 군 당 위원장을 일방으로 하고 상무 위원들을 타방으로 하여 문제의 가부를 위원장의 질문에 의하여 가결하는 그것이다.

은파군 당 위원회 상무 위원회의 실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지도 기관 결산—선거 이후 있은 二二회의 상무 위원회에서 四二건에 달하는 문제를 토의하였으나 그중 많은 부분은 상무 위원들에 대한 군 당 위원장의 질문으로써 결정이 채택되였다. 이러한 경우에 비록 결정이 만장 일치로 채택되였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만장 일치가 과연 문제 토의와 해결에 있어서 집체성을 보장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가? 문제가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상무 위원회들에서는 비판과 자기 비판도 발양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원장의 비위에 맞추려는 용서할 수 없는 시도가 종종 발현된다. 상무 위원회들에서 발현되는 이와 같은 경향 및 결함들은 지도의 집체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당 위원회들의 지도의 집체성을 강화함에 있어서 당 열성자 회의는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당 위원회들이 자기 활동에서 광범한 당 열성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창발적 제기에 의거하는 것은 광범한 당원 대중을 당적 지도에 인입하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체적 지도 그 자체를 강화한다. 당 열성자 회의는 이와 같이 당 위원회들의 지도 개선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황해북도 내 일부 시, 군 당 위원회들에서는 당 열성자 회의를 당 위원회의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할 대신에 차요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열성자 회의를 아주 드물게 소집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 열성자 회의는 간부들을 교양하는 훌륭한 학교이다. 열성자 회의에서 당원들은 당 조직—정치 사업과 경제 건설 사업에서 자기가 체득한 생생한 경험들과 의견들을 간부들에게 주며 또 열성자 호상간에 경험과 의견을 광범히 교환함으로써 당 사업을 추진시키며 사업 행정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는 데 위력한 방조를 준다.

철저한 준비 밑에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당 열성자 회의는 당 기관들과 지도 일꾼들의 사업에서 발생되는 결함들을 밑으로부터의 비판에 의하여 제거케 하며 당 및 국가 결정, 지시 집행을 위한 투쟁에서 당원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양시킨다.

이 밖에도 당 기관들이 일상적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관계 부문 일꾼들과 협의하여 그의 해결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지도의 집체성의 중요한 표

현이다.

전원 회의 혹은 상무 위원회에서 토의하지 않고도 그의 실행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관계 부문 일꾼들과 협의하고 직접 실천에 옮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계 부문 일꾼들과의 협의는 당 및 국가의 결정, 지시들과 해당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된 문제들의 효과적인 해결 대책을 토의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좋은 의견을 교환하며 그에 기초하여 그의 실행 방도를 강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지도의 집체성을 준수한다는 구실 밑에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당 위원회 전원 회의나 상무 위원회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데로부터 시시로 제기되는 문제들 중에서 관계 부문 일꾼들과의 협의로써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지 않고 보류하거나 또 회의에서 토의하고 반드시 결정서를 채택하여 해결하려는 경향들은 모두 좋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들은 긴급히 해결되여야 할 문제들까지도 그의 해결을 지체시키며 나아가서는 사업상 파탄까지 초래하게 한다. 또한 책임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들까지도 토의에 부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지도의 집체적 원칙을 준수한다는 구실로써 자기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키며 개인 책임 회피를 조성하는 유해한 경향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집체성은 지도의 최고 원칙이다. 그러나 문제 토의에서 집체성이 보장되였다 하여 결정 집행까지도 집체적으로 원만히 보장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심히 우둔한 일이다. 당내 민주주의는 문제 토의에서와 결정 채택에 있어서 집체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정 집행에 있어서의 개별적 책임제를 배제하지 않고 그것을 도리여 강조한다.

여기에 당내 민주주의와 지도의 집체성이 집행에 있어서의 개별적 책임제를 약화시키지 않으며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된 문제의 정확한 실행을 보장할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은 문제 토의에서 집체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 결정 집행에서의 무책임성과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에 대한 검열을 강조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도의 집체성은 당적 지도의 최고 원칙이다.

집체적 지도는 당내 민주주의의 적극적 표현이며 당내 민주주의는 집체적 지도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다.

당내 민주주의와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당원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하며 당내의 자각적인 규률을 확립하며 당 대렬의 순결성과 통일성을 보장하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필수적 조건이다.

중공업은 국가 공업화의 기초

김 상 학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의 결과는 조선 공업에 식민지적 유물——공업 생산력의 락후성과 기형적인 식민지적 공업 구조——을 남겨놓았다. 또한 우리 공업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 의하여 강요된 三년 간의 전쟁 행정에서 심대한 파괴를 당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나라 공업에서의 식민지적 락후성과 기형성을 완전히 청산하며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급속히 복구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업화의 제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 공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조국 통일의 현실적 담보로 되는 혁명적 민주 기지를 강화할 수 없으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위대한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공업은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이며 시초이며 결말인바 그는 첫째로 공업 자체와 농업도 재조직할 수 있는 현대적 대규모 공업만이 인민 경제에 대하여 풍부한 생산 수단과 특히는 선진적 로동 도구를 공급할 수 있으며 둘째로 이러한 공업만이 선진적 로동 계급을 더욱 굳게 결속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로농 동맹을 부단히 강화하면서 사회주의의 정치적、물질적 기초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업에서 결정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부문 즉 중공업 부문이다. 공업이 사회주의의 기초로 된다는 것도 주로 공업이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중공업의 역할과 관련되여 있는 데 있는 것이다.

중공업은 실로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의 기초로 된다. 왜냐 하면 그는 공업 기타 인민 경제 전체 부문에 대하여 작용하는 역할로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 사회주의 공업 그 자체의 기초로도 되기 때문이다.

중공업이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로 된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객관적 필연성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사회주의적 경제 체계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들——그중에서도 우선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과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의 법칙、그리고 확대 재생산에 있어서의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의 법칙 등은 중공업이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로 되여야 할 것을 규정한다.

중공업은 생산 수단、그 중에서도 로동 도구를 생산하는바 이것이 없이는 선진적 기술에 기초한 대규모적 공업 자체를 건설할 수 없으며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할 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국가 공업화는 공업 자체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의 전반적 앙양을 위한 토대로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이와 같은 공업화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공업 자체 내부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의 급속하고도 부단한 제고를 보장하여야 한다.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는 공업의 선진적、기술적 장비의 강화를 요구하며 선진적 로동 도구의 부단한 개선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는 단위 당 생산물에 대하여 지출되는 산 로동의 몫은 감소시키지만 체화된 로동의 몫은 증대케 한다. 즉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는 전체로서의 로동의 지출을 절약하면서도 생산 행정에서 보다 적은 산 로동으로써 보다 많은 체화된 로동을 처리하게 한다.

때문에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공업에서의 부단한 확대 재생산과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는 첫째로 선진적 로동 도구의 급속한 수요 증대와 둘째로 원료、기본 재료、연료、전력 등 기타 생산 수단 일반에 대한 수요의 부단한 증대를 요구하게 된다. 중공업은 바로 이와 같은 요구를 해결하여 주는 기본 부문이다.

때문에 쓰딸린은 『공업화의 중심、공업화의 기초는 중공업(연료、금속 및 기타 등)의 발전에 있으며 결국은 생산 수단 생산의 발전에 있으며 우리 나라 자신의 기계 제조 공업의 발전에 있는 것이다』(전집 모쓰크바 조선문판 제八권 一六九페지) 라고 교시하였다.

이・브・쓰딸린의 이 명제는 사회주의 건설 도상에 들어선 모든 나라에서 그러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공업화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그의 통치 말기에 이르러 조선에 제약된 규모에서나마 주로 중공업에 편중한 공업을 설치하였다.

일제 기관들의 발표한 불완전한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하여 보더라도 一九四三년도 현재 조선에서의 전체 공업 생산액(가공 공업 및 광업 생산액만) 중 공업 부문에 속하는 생산의 비중은 약 六三%에 달하

였으며 북조선 지역에서는 이 비중이 약 八〇%까지 달하였다。

그런데 八·一五 해방 이후 우리 나라 공업의 부흥 발전 행정에서 특히 전후 시기 국가 공업화의 기초 축성을 위한 과업 수행에 있어서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확장이 중요하게 제기되는 리유는 어데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나라에 남겨놓은 공업 생산력 그 자체의 전반적 락후성에 관련되여 있으며 둘째로는 조선 인민의 재부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 다소간이나마 설치하였던 『중공업』 그 자체가 철저한 식민지적 기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 제도를 강화하면서 조선에서 자립적인 현대적 대공업의 발전、그 중에서도 그의 토대로 되는 자립적 구조의 중공업 발전을 철저하게 억제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공업을 설치함에 있어서 농산 원료와 특히는 지하 자원 및 전략 자원 략탈에 관련되는 원료、반제품 생산 공업에 국한하였다。 그리하여 과거 조선에서는 완제 가공품 생산、특히는 기계 제작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된 자립적 구조의 중공업이 완전히 결여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어는 경공업의 발전조차 억제되였다。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도 조선 공업 총생산액 중 기계 제작 공업의 비중은 六%에 불과하였으며 북조선 지역에서의 이 비중은 실로 二%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중공업의 식민지적 기형성은 조선의 자립적 공업 발전을 위하여 완전히 무력한 것이며 무의미한 것이였다。 따라서 그것은 조선 경제에서 확대 재생산의 기초로서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본토 경제에 대한 조선 경제의 예속성을 강화하는 기초로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공업에 잔존하고 있는 이와같은 식민지 예속적인 『중공업』의 구조상 결합을 개조하며 발전된 기계 제작 공업을 중추 신경으로 하는 자립적 구조의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가 공업화의 기초 축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필수적 내용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 * *

그러면 우리 나라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시기에 있어서 국가 공업화의 기초로 될 수 있는 중공업 부문들은 어떠한 부문들인가? 그것은 우선 금속、기계、전기、화학、광산 및 석탄 공업 부문들이다。

이러한 공업 부문들은 우리 나라의 장래 광범한 공업화의 기초로 될 수 있는 부문들로서 오늘 전후 三개년 계획 실천 행정에서 급속히 복구 건설되고 있다。

국가 공업화를 실시함에 있어서 금속 공업은 전체 공업의 기본 토대이며 그의 기본 고리이다。 금속 공업의 강력한 발전이 없이는 경공업、운수업、연료 공업

을 비롯하여 전기화도、농촌 경리의 발전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전쟁에 의하여 심대한 파괴를 당한 우리 나라 금속 공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三개년 계획 기간 중에 선철、흑색 금속、압연품、코크쓰 및 연의 생상 시설을 급속히 복구 확장함으로써 그의 생산을 전쟁전 수준을 릉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一차 五개년 계획을 예견하면서 장차 이 부문 생산 능력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비를 창조하는 데 힘을 돌리고 있다。

三개년 계획 기간 중에 김책 제철소、성진 제강소、황해 제철소、강선 제강소、남포 제련소들이 복구 확장될 것인바 이미 김책 제철소의 선철 생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황해 제철 및 강선 제강소의 강재 및 압연 강재의 생산 시설이 복구되여 그 생산 능력은 현저히 제고되고 있다。

국내에 강력한 공업의 동력적 토대를 조성하는 것은 전체 공업과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위한 중요 조건으로 된다。

三개년 계획에 의하면 一九五六년말에 이르러 수력 발전소들이 기본적으로 복구되여 그의 총발전 능력이 전전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인바 이 기간에 수풍、장진강、허천강、부전강 등 기본적인 대수력 발전소들의 복구 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며 강계 및 독로강 수력 발전소의 건설을 계속하기 위한 필요한 설계―탐사 사업이 실시될 것이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다。 석탄이 우리 나라 공업용 연료의 거의 유일한 원천으로 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그의 채굴의 증대는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후 복구 건설 三개년 계획에는 一九五六년도의 석탄 채굴량을 四〇〇만톤 이상에 달하게 하며 一九五七년 및 그후 년도에 이르러 석탄 채굴을 더욱 증가하기 위한 예비적 조건들을 조성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리하여 三개년 계획 기간에 三二개의 탄광을 복구하는 외에 년산 총 二五〇만톤의 생산 능력을 가지는 三개의 새 탄광 채굴에 착수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이와 같은 다양하고 풍부한 지하 자원의 개발은 국가 공업화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재 조건의 하나이다。

광업 부문의 급속한 복구 발전은 금속 공업의 확대 발전과 관련하여 장성하는 원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또한 외화 획득 자원의 하나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공화국 정부는 三개년 계획 년간에 二四개의 광업 기업소를 복구하며 一九五六년에 유색 금속 정광을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연 정광은 三·八배、아연 정광은 二·四배、안찌모니광은 三배로 생산을 증대시키며 동 금 정광 및 금 은 정

광을 전쟁전 수준에까지 복구하며 특히 광업의 급속한 장래 발전을 위하여 지질 탐사 사업을 백방으로 추진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기계 제작 공업은 공업의 중추 신경이며 인민 경제 재건의 기본적 공간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데로부터 출발하여 과거 공업 부문에 조성되였던 혹심한 기술적 락후성과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기계 공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일련의 대책을 강구 실시하였다. 결과에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八·一五 해방 이후 전쟁전 시기와 전쟁 기간에 이미 현저히 발전되고 있는바 오늘 기계 제작 공업은 계속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三개년 계획에는 一九五六년에 이르러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의 생산을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二·五배로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는바 당과 정부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三개년 계획 기간에 여러 개소의 기계 제작소들의 복구를 완료하며 남포、원산 및 청진 조선소들의 복구 사업을 진척시키며 엔징 공장、광산 기계 제작 공장、공작 기계 제작소 등을 비롯하여 자동차 수리 부속품 조립 공장、뜨락또르 수리 공장、농기구 공장、공구 공장、도량형기 공장、광산 기계 수리 공장、전기 기계 공장 등 대규모의 현대적 기계 제작 공장들의 광범한 복구 건설에 착수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중 많은 부문의 공장、기업소들이 이미 조업을 개시하고 있다.

화학 공업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화학 비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금속 공업 및 광업 부문 등에 류산、가성 소다、탄산 소다 및 다이나마이트 등을 공급하며 또한 경공업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일련의 중요한 원료、재료를 공급한다.

우리 나라의 화학 공업은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우리 공업의 중요한 부문을 이루었었다. 그러나 그는 전시에 가장 심대한 파괴를 입었다. 더우기 그의 파괴의 범위가 크고 심도가 강하였기 때문에 전후 복구 건설에서 그 부문의 복구 건설 수준이 비교적 뒤떨어진 형편에 처하고 있다. 三개년 계획에는 전후 인민 경제 발전에서 적지 않는 불균형을 조성할 수 있는 화학 비료 생산의 락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흥남 및 본궁 화학 공장을 비롯한 각지 화학 공장에서 우선 화학 비료의 생산 증대를 위한 대공사를 예견하고 있다. 그리하여 一九五六년도 말에 화학 비료의 생산 능력은 一五만톤을 훨씬 초과하게 될 것이며 이 기간에 흥남 비료 공장에서는 우리 나라 화학 비료 공업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으로 되는 년산 一〇만톤의 초안 비료 제호의 건설을 착수되게 될 것이다.

전후 三개년 복구 건설 시기에 있어서 국가 공업화의 기초로 되는 우리 나라 중공업 제 부문의 발전은

대략 이상과 같다.

* * *

우리 나라에서의 공업의 이와 같은 복구 건설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다.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은 확대 재생산에 있어서의 경제 법칙으로 된다.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은 무엇보다도 우선 경공업에 비한 중공업의 보다 빠른 발전을 의미하며 농업 생산에 비한 공업 생산의 보다 빠른 장성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는 『자본론』 제二권 二一장에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의 필연성을 천명하였다. 이 합법칙성은 맑스의 유명한 확대 재생산의 도식에서 표현되였다. 레닌은 기술적 진보 따라서 그에 의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장성을 고려함으로써 맑스주의적 재생산 리론의 도식을 일층 구체화하였으며 생산 수단 생산의 빠른 장성에 대한 리론을 발전시킴으로써 그에 고유한 경제 법칙 즉 대기계 공업에서의 기술적 진보는 제一부류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의 강력한 발전을 요구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였다.

레닌은 여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이리하여 우리는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의 생산이 가장 급속하게 장성하며 그 다음에는 소비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의 생산이 장성하며 소비 수단의 생산이 가장 완만하게 장성하는 것을 본다』(전집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제一권 一분책 一三〇폐지).

레닌의 이 결론은 우리 나라 공업 발전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우리 나라 공업 발전에 있어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은 이미 전쟁전 평화적 부흥 시기로부터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화국 북반부에서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들어서면서 일층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례컨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에는 우리 나라의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의 발전이 우선적으로 급속히 발전될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이 계획 기간에 경공업도 현저한 속도로써 발전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공업화의 기초로 되는 중공업의 이와 같은 강력한 발전은 공업의 기본 투자면에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一九五五년도 국가 예산에 의하면 공업 부문의 기본 투자액 중 중공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거의 八〇%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의 공업을 복구 발전시킴에 있어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의 구체적 발현 형태에 관한 문제——즉 우선적으로 장성하는 생산 수단 생산 부문 내부 제 부문 구조의 변화에 관한 문제、생산 수단 생산 부문과 소비품 생산 부문 발전 속도의 호상 관계에 관한 문제 등은 특별히 중요한 의

의를 가진다。

이 문제는 물론 공업내 제 부문 간의 균형의 구체적 설정에 관한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하에서 인민 경제 발전에서의 균형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에 상응하며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 법칙에 기초하여 규정된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는 소여의 나라의 달성된 생산 수준과 현존하는 물질적 부원의 가능성、그가 처하여 있는 국제적 및 국내적 환경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 공업의 복구 발전 행정에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의 구체적 발현은 원칙적으로 사회주의 공업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바 그것은 일찌기 쏘련의 공업화 과정 또는 사회주의 건설 도상에 있는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의 공업화 과정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현 시기의 우리 나라 공업 발전의 력사적、경제적 및 자연적 제 조건에 의하여 일정한 특이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 시기의 우리 나라 공업 발전에 있어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의 구체적 발현에 대하여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특이성을 조건짓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들인가?

그것은 우선 일제가 남겨 놓은 조선 공업의 부문별 구조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八·一五 해방 이후 국토의 량단으로 인하여 인민 경제에 조성된 추가적 불균형을 청산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것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기간에 미제 무력 침범자들에 의한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당하게 된 것과 관련되는 문제인바 우리 나라 공업의 전후 복구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공업화 과정이 그러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공업 발전도 과거 쏘련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유리한 력사적 환경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 공업의 복구 건설은 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여러 나라들로부터의 막대한 기술—경제적 원조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들은 현 시기에 우리 나라의 공업 발전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일정한 특이성을 발현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 나라 공업 발전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발현되는 특이성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공업、복구 건설 과정에 있어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은 무엇보다도 우선 로동 도구의 생산 부문——기계 제작 공업 부문의 급

속한 장성이 특히 현저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쟁전 인민 경제 부흥 시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쟁 시기를 거쳐 전후 시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현저한 특징으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전쟁 말기로부터 전후 시기에 들어서면서 일제 통치 시기에는 그 존재조차 찾아 볼 수 없었던 기계 제작 공업의 상대적 비중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였다。

둘째로 생산 수단 생산 부문 전체에 걸쳐 이 부문 내 세부문 구조의 변혁、품종별 구조의 변혁이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료、반제품 생산의 편중으로부터 완제품 생산에로의 전환이 특징적이며 따라서 새로운 제품과 생산과의 국내 생산이 현저히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례를 들어 흑색 야금의 생산적 련계에 있어서 철광석—선철—강괴—압연 강재의 균형적 생산은 이미 전쟁전 시기로부터 일정한 개선을 가져오고 있는바 전후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들 생산적 련계의 제 환절에서의 균형은 훨씬 더 개선되고 있다。 물론 이들 환절 간의 생산 능력상의 불균형은 아직 충분히 퇴치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一九五五년도 생산 계획에는 철광석—선철—강괴—압연 강재의 생산량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균형적 비례 관계에서 보장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던 생산 제품들을 새로 생산할 수 있게 된 성과는 이미 전쟁전 시기로부터 전쟁 기간에도 현저히 나타났으나 그러나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성과는 일층 더 커지고 있다。 一九五四년도 중공업 부문에서만도 종전에 생산하지 못하던 직결 선반、타상 볼반、후렉손 프레스、타지에타、각종 특고 애자 등 수다한 제품들이 새로이 생산되였다。

셋째로 우리 나라의 전후 복구 건설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보장된 조건 하에서 중공업의 확장과 함께 경공업의 급속한 동시적 발전이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경제 정책에 의하여 전후 시기에 경공업 부문의 대규모적 복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것은 인민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문화적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공업 부문의 이와 같은 복구 확장은 이 부문이 비록 직접적으로 국가 공업화의 기초로 되는 부문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국가 공업화의 기초 축성을 위한 필수적 전제로 된다。

왜냐하면 생활 필수품 생산의 급속한 발전은 일제가 남기고 간 우리 나라 북반부 공업에서의 경공업의 혹심한 락후성、공업 부문별 구조의 식민지적 편파성의 한 측면을 청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민의 물질—문

화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보장함으로써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과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 있기 때문이다。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 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개선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는 국가 공업화의 기본적 실천 단계에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이며 근로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의 향상을 보장함이 없이는 우리 나라 공업의 앙양을 위한 결정적 모멘트로 되는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인민 소비품 생산의 장성을 촉진하면서 공업 제 부문 발전의 호상 관계、공업 부문별 구조의 개조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것은 사회주의적、국제적 분업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 우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징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공업화 과정에서 실시되였던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의 호상 관계에 대비하여 볼 때 현저한 특이성으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공업은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이미 공업화의 기초로 될 수 있는 중공업 시설들의 광범한 복구、확장 및 개건을 진행하는 한편 또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경공업 생산의 광범한 복구와 확장을 동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서 발현되는 네번째의 특이성은 우에서 언급한바 제 가지의 특이성이 종합적 호상 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인바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은 생산 수단 일반의 총생산액을 표식으로 하여 볼 때 그것은 우리 나라 공업 발전의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소비재 생산 부문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리 큰 속도를 가지지 않고 진행될 것이며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공업이 최신 기술의 토대 우에서 장비되여 가고 있는 조건 하에서 공업 총생산액 중에서 중공업 부문 생산액의 비중 제고는 비교적 완만히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현 시기에 우리 나라의 공업 발전이 중공업의 급속한 복구 건설에도 불구하고 경공업의 빠른 발전이 보장되고 있으며 중공업 부문 그 자체에서도 우선 원료 반제품 생산의 편중으로부터 완제 가공품 생산、특히 기계 제작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공업 부문내 세부문 구조의 변혁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서 수행하고 있다는 데 관련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공업 발전에서의 이와 같은 특징은 전쟁전 인민 경제 부흥 발전 시기에서는 물론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있어서도 계속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 공업 발전 과정에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의 구체적 발현과 관련되는 이상의 제 특이성은 우리 나라 공업의 구체적 조건에 합치되는 것이며 우리 나라 공업의 자주성을 공고화하며 국가 공업화의 기초 축성을 위한 과업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로 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전후 우리 나라 공업을 복구 건설함에 있어서 공업 부문별 구조의 변혁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 우리 나라 공업의 자주성과 다면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쳤다。 이 교시는 공업 전체 부문에 대하여서도 그러하지만 중공업의 구조상 변혁에 있어서 더욱 절실한 것으로 된다。 자주성과 다면성을 가진 우리 나라 중공업 부문의 발전은 우리 나라 사회—경제 체계의 우월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립각한 기술—경제적 협조와 방조가 있는 유리한 조건 하에서 성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더우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연 부원이 우리의 중공업 발전을 위하여 매우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에는 원유 및 코크쓰용 석탄 등 몇가지 중요 자원이 결여되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국토의 면적에 비하여 자연 부원의 포장 정도는 그 례가 드물게 풍부하다。 특히 그 중에도 우리 나라에는 중공업 발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료 및 동력 자원이 풍부하다。 더우기 풍부한 수력 자원은 렴가의 전력을 대량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우리 나라의 유리한 자연 지리적 제 조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쏘련에서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수력 발전소들의 건설비에 비하여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나라에는 야금 및 화학 공업 등의 중공업 발전을 위한 지하 자원의 매장량도 풍부하다。 례컨대 멘델레예브의 화학 주기률표에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원소 九二종중 우리 나라에 충분하게 보장되여 있는 것은 三二종에 달하며 일정한 한도로 보장되여 있는 것도 一三종이나 된다。 멘델레예브의 화학 주기률에 의한 원소중 공업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三一종인바 그중 우리 나라에서 풍부한 것은 一七종이나 되며 일정한 정도로 보장되여 있는 것이 五종이나 되며 부족한 것은 九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류의해야 할 것은 우리 나라 공업의 자주성과 다면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공업이『경제적 자급 자족』에 관한 리론에 립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사회주의 공업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발전된 기계 제작 공업의 창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공업 발전 행정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해당된다。 그

러나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가 중공업이며 또 그의 중추가 발전된 기계 제작 공업이라 하여 오늘 우리가 모든 중공업 부문, 또는 모든 기계 제작 공업 부문을 모두 다 동시에 가져야 할 리유는 없으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우리 나라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과업 해결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국제 분업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 우에서 그를 수행하고 있다.

이 원칙의 옳바른 리용은 우리의 경제적 자주성을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보장하며 국가의 공업화 행정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의 하나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내 제 국가 간에서의 동지적 협조와 원조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국제적 분업, 경제적 호상 련계는 각개 나라들의 경제적 자주성을 확립하는 요구와 아무러한 모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개 나라의 경제적 발전, 국가 공업화에로의 전진을 촉진케 하며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 간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경제적 련계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와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에 상응하여 발전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 낮은 공업 생산력 발전 수준에 있으며 국토와 인구가 그리 크지 않은 나라이나 그러나 자연 지리적 조건과 경제 형편으로 보아 우리 나라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국제적인 경제적 련계의 강화는 특히 필요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실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보장되여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현 시기에 있어서는 물론 앞으로 공업화의 기본적 실천 단계에 들어서게 되더라도 더욱 큰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인바 우리 나라 공업 발전의 력사적, 경제적 및 자연적 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 우에서 공업 특히 중공업 부문에서 어떠한 부문과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들을 보다 선차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규정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맑스주의는, 사회적 생산의 력사적 단계는 어떠한 물질적 부가 생산되는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이러 저러한 물질적 부가 어떠한 로동 도구로써 생산되는가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가르쳤다. 각이한 사회—경제 제도는 그 사회 제도 및 생산 관계의 본질에 의하여 규정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산에서의 로동 도구의 체계—기술의 달성된 수준과 그를 리용하는 특성에 의하여 서로 구별된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에서는 이미 선진적 기술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장애물들이 제거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의 힘은 인민 경제 기타 부문에까지 광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 높은 선진적 기술의 도입과 발전을 위한 객관적 필연성을 조건지어 주고 있다.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 중공업의 대규모적 발전에는 현대적 새 기술의 광범한 도입이 수반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 공업의 기술적 토대에 근본적인 질적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공업에서의 선진적 기술에 의한 새로운 장비, 기술적 토대에서의 새로운 질적 변화는 자립적 구조로써 개조되는 중공업의 강력한 발전과 함께 우리 나라 국가 공업화의 직접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우리 나라 중공업 기업소들에서 선진적 기계 설비의 장비는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들어서면서 짧은 기간 내에 현저히 강화되고 있는바 그의 강화 정도는 이미 간과할 수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一九五五년 一월 현재로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 가동 기계 설비 대수중 최근 수년래 쏘련 및 기타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최신의 선진적 기계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공작 기계에서의 이 비중은 대부분의 기계 제작 공업 기업소들에서 거의 九〇—九八%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요 광산의 착암기에 대한 그 비중은 九〇% 이상에 달하고 있다.

* * *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시기에 우리 나라 공업화의 기초를 이루는 중공업의 대규모적 복구 건설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몇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기술 인재에 관한 문제이며 그의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 인민 경제 전체 부문에서 절약과 축적을 위한 투쟁을 더 한층 강화하는 문제이다.

전후 시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 공업, 특히는 중공업의 대규모적 복구 건설과 공업제 부문에서의 기술적 토대의 새로운 변혁은 숙련 로동자들과 기술 일군들의 량적 및 질적 제고를 보장할 것을 긴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왜냐 하면 생산 행정에서의 선진적 기계 설비의 도입에 의한 기술적 변혁은 그 자체만으로서는 그것이 곧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 생산 규모의 급속한 장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적 기술은 사람에 의하여 습득되고 파악 구사될 때에라야만, 즉 그가 완전히 리용될 때에라야만 로동 생산 능률의 질적 변혁을 일으키는 현실적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오늘 우리 나라 공업에서의 생산 행정의 선진적 기술 장비와 숙련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간

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우리 나라 공업 기업소들에 광범히 도입되는 최신 기계 설비들이 적지 않은 경우에 선진 국가에서 달성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할만큼 자기의 생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난점의 명백한 표현이다。

기술 인재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공업이 확대되며 기술적으로 개선되는 조건 하에서、우리의 국가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행정에서 결정적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이와 같은 사정에 대응하여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 실시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결과에 一九五四년도에만도 二만명의 기능 로동자들이 직장 학교 및 직장 로동자 학교를 졸업하고 생산 기업소들에 배치되였으며 一九五四년도에 기술 및 중등 전문 학교 졸업생 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二천명、대학 졸업생 수는 一、三〇〇명이 각각 증가되였으며 一九五四년도 말에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 파견되여 재학중에 있는 각종 류학생 수는 실로 四、二〇〇명에 달하고 있다。공화국 정부는 과학 기술 간부의 대량적 양성을 위하여 기술 대학의 확장과 신설에 의하여 최근 수년 동안에 대학생 수를 二배로 증가시키며 약 三〇、〇〇〇명의 과학 기술 간부를 양성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공업 부문의 기술자 수는 가까운 장래에 거대한 규모로 증대될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의 질적 구성이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다。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것、특히 중공업의 대규모적 복구 건설은 막대한 자금의 수요를 요구한다。 더우기 우리의 전후 복구 건설은 중공업의 발전과 함께 경공업의 급속한 확장이 동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공업의 대규모적 개선과 함께 농업 생산액의 급속한 발전、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재편성을 위한 력사적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복구 건설인만큼 더욱 막대한 자금을 요구한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전면적 수행은 그를 위하여 실로 거액의 자금 투자를 요구하는바 특히 중공업의 대규모적 발전을 위한 자금의 막대한 수요는 三개년 계획 기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업화의 기본적 실천 단계에 들어서면 설수록 이와 같은 기본 투자액은 일층 증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막대한 자금의 수요는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으로부터의 경제적 원조와 협조에 의하여 그 중요 부문이 보장되여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 우리의 인민 경제 자체 내에서 국내 자금 축적의 강화를 위한 문제는 실로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국가 공업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국내 자금 원천은 국유화된 공업、국가 독점적 대외 무역、국내의

국영 상업 및 은행 체계의 수입 등이다。 이 자금 원천은 우리 나라 공업이 장성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공업 생산물의 원가 저하는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후 인민 경제 三개년 계획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원료、자재、연료 및 전력을 더욱 합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리용하며 비생산적 지출을 축감시킴으로써 공업 생산물의 원가를 三개년 계획 기간에 二〇——二二% 저하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공업 부문의 공업 기업소들에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원가 저하의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특히 중공업 부문에서 그러하다。 석탄 산업 및 금속、야금의 일부 기업소들이 아직 막대한 금액의 국가 보조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공업 기업소들에서 기업소내 독립 채산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업소들에서의 국가 재산의 각종 랑비는 막대한 금액에 달하고 있으며 지어는 탐오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서의 자금 수요에 상응하여 축적된 자금의 정확한 리용에 대하여 신중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三월 전원 회의 및 四월 전원 회의에서는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제도와 질서와 규률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엄격한 절약 제도를 사업상 원칙으로 되게 하며 국가 재정 규률 및 독립 채산제의 강화、국가 재산의 온갖 랑비 및 탐오 행위와의 투쟁을 가일층 강화할 것을 전 인민적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 공업은 전후 三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의 대규모적 복구 건설과 선진적 기계 설비에 의한 기술적 토대는 현저히 장비될 것이며 국가 공업화의 기초가 기본적으로 확립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가 공업화의 기초는 이 三개년 계획 기간에 완전히 확립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 공업은 전후 三개년 계획 기간에 대규모적 복구와 재건이 수행되며 공업 생산 규모의 전체 수준은 일제 시기와 전쟁전 수준을 훨씬 릉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공업과 경공업의 생산력 발전 수준은 아직 인민 경제 제 부문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며 특히 공업 부문 구조의 제 요소 간에 아직 남아있는 적지않은 불균형을 전적으로 퇴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례를 들어 전쟁 기간 중에 심대한 피해를 받은 화학 비료 공업 부문에서의 불완전한 복구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三개년 계획 기간 그 발전이 매우 급속한 속도로서 진행되고 있는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도 이와 같은 불균형은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우리 나

라 인민 경제, 특히 공업 자체의 기술적 토대를 자체로 확대 재생산하기에는 아직 매우 불충분한 수준에 처하여 있다.

국가 공업화의 실천 행정에서 우리 나라 공업은 공업 부문별 구조 특히 중공업 내부의 세부문 구조에서의 균형성과 자립성을 튼튼히 보장함으로써 공업 자체를 포함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기술적 토대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중공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시기에 요구되는 우리의 중공업 발전은 이와 같은 중공업의 토대를 확립하는 것이다.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전후 三개년 계획에서 완수되지 못하는 이 나머지 과업은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제一단계를 완성할 제一차 五개년 계획에서 완전히 해결될 것은 의심할바 없는 일이다.

쏘련에서의 위대한 공산주의 건설

김 영 남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은 쏘련 인민의 종국적 목적이며 이의 수행은 사회의 경제, 정치 및 사상 생활 분야에서의 거대한 혁명적 전환으로 된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결과 가능하게 되였다.

쏘련 공산당의 지도 밑에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에서 승리한 로씨야 로동 계급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수립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였으며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였다.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기본적으로 완수한 쏘련 인민은 그의 력사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인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의 시기에 들어섰다.

쏘련의 이러한 새로운 발전 단계는 이미 쏘련 인민 경제 발전 제三차 五개년 계획(一九三七년)으로부터 시작되였다. 一九三九년 三월에 소집되였던 제一八차 당 대회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쏘베트 인민의 실천적인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의하여 지도되는 쏘련 공산당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의 강령을 실천하는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一九四一년 六월 파시쓰트 독일의 불의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를 위한 쏘베트 인민의 평화적인 창조적 투쟁은 일시 중단되였었다.

위대한 조국 전쟁을 전 세계사적 승리로써 끝마친 쏘베트 인민은 다시금 공산주의 건설의 위업에 헌신적인 로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동일한 사회—경제 구성태의 두 발전 단계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점차적으로 진행되게 되며 혁명적 폭발이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행되게 된다.

그런데 이 이행은 사회 생활의 모든 기본 분야, 즉 생산력과 생산 제 관계 및 문화 등 제 분야에 있어

서 심각한 변천과 발전을 가져 오게 된다。

사회주의적 생산은 부단히 장성하는 전체 사회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에 립각한 쏘련의 인민 경제는 계획적、균형적 발전에 관한 객관적 경제 법칙의 작용에 기초하여 발전되고 있으며 사회의 물질적 부를 창조하기 위한 로동은 쏘련의 전체 사회 성원의 의무로 되고 있으며 영광스러운 사업으로 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 방도에 대하여 론하면서 쓰딸린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필요한 생산력 발전 수준을 규정하였다。 쓰딸린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따라가며 그를 훨씬 앞서 가야만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된다고 교시하였다。

여기에 바로 쏘련의 기본적인 경제적 과업이 있는 것이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사회적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 바 그것은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이것이 없이는 인민 경제의 부단한 장성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은 기술의 발전 즉 기술의 량적 및 질적 장성과 긴밀히 련결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 로동을 점차로 기계 로동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하며 로동을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전환시킨다。

사회주의적 생산은 생산 행정의 자동화와 기계화 및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의 전기화에 기초하여 계속 발전되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로동 생산성을 계속 제고시키며 근로 대중의 생산 경험과 로동에 대한 숙련을 더욱 풍부화하며 완성시키는 기초로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또한 생산 제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변천을 가져 오게 되는바 이 변천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것은 사회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이다。

쏘련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쏘련의 산업과 농업의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그러나 이 생산 관계도 항상 새로운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자기 발전에서 뒤떨어지게 된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기초로 되고 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도 동일한 상태에 머물어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은 쏘련이 공산주의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과 함께 발전하게 된다。

꼴호즈적 소유는 꼴호즈의 범위에 제한된 그루빠의 소유로 되고 있으며 산업 기업소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인민적 소유로는 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쏘련 농촌 경리의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꼴호즈적 소유를 반드시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까지 올려 세워야 하며 상품 경제를 생산물 교환의 제도로써 교체하여야 한다。 이것은 물론 장래의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꼴호즈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키는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본질적 차이를 청산하는 기초로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남아 있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이 본질적 차이는 생산의 수단과 생산품에 대한 두 개의 사회적 소유 형태 즉 산업에서의 전 인민적 소유 형태와 농업에서의 꼴호즈적 소유 형태의 존재로써 설명된다。

이 본질적 차이의 청산은 동시에 로동자와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의 극복을 의미한다。

꼴호즈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제고시키며 상품 경제를 생산물 교환 제도로 교체하는 데는 꼴호즈의 사회적 경제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며 그를 계속 조직—경제적으로 강화하며 이에 기초하여 꼴호즈 생산 및 쏘베트 상업을 고도로 장성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본질적 차이의 청산은 그들의 문화 수준에서의 차이도 소멸시키게 된다。 때문에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쏘베트 사회의 거대한 문화적 장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은 복잡하고도 곤난한 과업들의 해결을 요구하며 이것은 생산력과 생산 제 관계 및 문화 등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게 된다。

* * *

레닌은 공산주의의 건설을 위해서는 강력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시하였다。 대규모적인 현대적 공업、인민 경제의 전 부문을 장비하는 새로운 기술、모든 생산 행정의 전기화——이것이 공산주의의 강력한 물질적 토대이다。

지금 쏘련 공산당은 생산 수단의 우선적 장성을 실현하면서 전체 사회적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이 과업의 해결은 오로지 야금 공업、기계 제작 공업 및 동력 공업、연료 공업과 같은 그러한 부문의 중공업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 우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공산당의 지도 하에 쏘베트 인민은 이 부문에서 현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一九五三년에 쏘련 산업 총생산은 一九二九년에 비하여 一六배로 장성되였다。 이 기간에 미국에서의 산업 생산은 二배 밖에 장성되지 못하였다。

쏘련의 평화적인 경제의 장성과 국방력 강화의 기초는 중공업이다。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는 이미 전쟁전 시기에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사회주의적으로 재건하면서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였다。

전후 시기에 중공업 발전에서 새로이 달성된 성과는

거대하다。 쏘련 인민은 쏘련 인민 경제 복구 발전 제四차 五개년 계획을 四년 三개월에 기한 전으로 완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五차 五개년 계획의 수행에서도 현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사회주의적 산업은 一九五四년에만 하여도 년간 계획을 一〇三%로 완수하였는바 이것은 一九五〇년에 비하여 六五%의 장성을 의미한다。 쏘련에서 중공업의 발전은 특히 현저하였다。 쏘련의 전체 산업은 一九四〇년에 비하여 一九五四년에 二·八배로 장성되였는바 이 기간에 중공업은 三·四배나 장성되였다。 쏘련 인민이 一九五四년에 달성한 대규모적 산업의 총생산량을 一九一三년도의 수준과 비교하면 三五배나 장성되였으며 생산 수단의 생산은 거의 六〇배로 장성되였고 그중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 제작 공업은 一六〇배, 전력의 생산은 七五배로 각각 장성되였다。

산업 생산의 총량에 있어서 제五차 五개년 계획은 一九五五년 五월 一일까지 즉 四년 四개월 간에 완수되였다。 그리하여 一九五〇년에 비하여 一九五五년에 기계 제작 공업의 총생산량은 二배 이상 장성되였으며 一九四〇년에 비해서는 四·六배 이상 장성되였다。 一九五〇년에 비하여 一九五五년말에 가서 생산 수단의 생산은 八四% 이상 장성되게 되며 이것은 쏘련 전체 산업 생산의 七〇%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쏘련에서 사회주의적 산업의 이와 같은 발전은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필수적 조건으로서의, 공산주의 건설의 주요한 조건으로서의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레닌의 교시에 립각하여 쏘련 공산당이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쏘련 인민의 창엄한 투쟁을 정확히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쏘련 공산당은 강력한 물질적 토대만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또한 발전된 기술적 토대도 창설 강화하였다。

지금 쏘련에서는 생산 행정의 종합적인 기계화가 광범히 실행되고 있으며 생산의 자동화, 인민 경제의 화학화 및 현대적 기술로써의 인민 경제의 개편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쏘련에는 원료의 가공으로부터 완성품을 낼 때까지의 모든 작업 과정이 자동화된 기업소들이 수 많이 창설되였다。

기술의 발전은 식료 공업, 경공업 및 농업을 포함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볼 수 있다。 전후 시기에 공업은 一,五〇〇억 루블리, 운수는 五〇〇억 루블리, 농업은 六〇〇억 루블리 이상에 달하는 새로운 설비와 보다 더 완성된 기계를 공급받았다。 공산주의 건설의 조건 하에서 쏘련의 기술 발전 속도는 더욱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전후 시기에만도 매년 六〇〇—七〇〇류형의 우수한 기계들이 생산되였다。

생산의 발전이 주기적으로 중단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는 달리 쏘련에서는 높은 기술과 과학의 제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이 부단히 장성되여 가고 있다。 쏘련에서 힘드는 로동 과정은 기본적으로 기계화되였다。 기본 건설 작업을 기계화하는 것과 건설의 모든 작업의 종합적인 기계화에로의 이행이 성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 경리를 새로운 기술로써 장비하는 사업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꼴호즈들에서의 주요한 전야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기계화되였으며 목축업, 소채 재배, 원예 및 관개 시설 사업들에서 파종한 작업들의 기계화가 광범히 실시되고 있다。 一九五五년에 곡물, 공예 작물 및 사료 재배의 기경과 파종의 기계화 수준은 九〇—九五%에 달하게 되였으며 곡물 추수는 꼼바인으로써 八〇—九〇%, 면화 채취는 六〇—七〇%에 달하게 되였다。 쏩호즈들에서의 전야 작업과 목축업의 종합적인 기계화도 기본적으로 완성되여 가고 있다。

사회주의 생산의 강력한 장성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의 기술의 계속 발전 및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창설을 위해서는 나라의 가일층의 전기화가 필요하다。레닌은 전기화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서 나라의 전기화는 모든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초로 되며 공산주의적 생산의 기초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레닌은 『공산주의는 쏘베트 정권 플라쓰 전체 나라의 전기화이다』라고 가르쳤다。

나라의 전기화에 대한 레닌의 교시는 쏘련 공산당의 투쟁에 의하여 부단히 생활에서 구현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은 레닌의 교시에 립각하여 一九二〇년말에 나라의 전기화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였는바 이것은 당의 중요한 강령으로 되였다。 공산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쏘베트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인하여 一〇—一五년을 예견하였던 나라의 전기화 계획은 一〇년 간에 수행되였다。 지금 쏘련에서는 전기화 계획에 의하여 一〇년 동안에 생산하던 전력보다 二배 이상되는 전력을 매년 생산하고 있다。 그리하여 一九五三년말에 쏘련의 발전소들에서 一개월 간에 생산한 전력은 짜리로씨야 시대에 五년간에 생산하던 전력보다 훨씬 많게 되였다。 一九五四년도 쏘련의 전력 생산은 一九一三년에 비하여 七五배 이상으로 되였으며 一九四〇년에 비하여 三배 이상으로 되였다。

쏘련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는 공산주의 건설의 주요한 토대인 전기화의 계속 수행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전력의 기지를 창설하는 거대한 건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五차 五개년 계획의 四년째 해에 벌써 웨로흐네—쓰위르쓰크、찌믈랸쓰크、우쓰찌—까메노고르쓰크、민게차우쓰크 등에서 새로운 수력 발전소들이 건설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꾸이비쉐브 및 쓰딸린

그라드 수력 발전소의 건설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쏘련에서 건설한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산업과 농업에 거대한 전력을 공급해 주고 있다。 이것은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거대한 진일보로 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지금 쏘련에서는 원자력을 리용하는 새로운 발전소들이 계속 건설되고 있다。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로동 생산성을 부단히 장성시키는 그것이다。

쏘베트 정권의 첫 시기에 이미 레닌은 로동 생산성의 제고는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한 조건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립각하여 쏘련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는 로동 생산성 제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제五차 五개년 계획에 관한 쏘련 공산당 一九차 대회의 지시는 一九五五년까지의 기간에 로동 생산성을 산업에 있어서는 五○%、 건설 부문에 있어서는 五五%、 농촌 경리에 있어서는 四○% 제고시킬 것을 예견하였다。 로동 생산성의 이와 같은 급속한 장성 속도는 어느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쏘베트 인민은 로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최근 二五년 간에 산업에서의 로동 생산성은 六배나 장성되였으며 건설 부문과 철도 운수 부문에서는 三・五배나 장성되였다。 꼴호즈와 쏩호즈들에서의 로동 생산성은 혁명전 농업에 비하여 三배 이상 장성되였다。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一九五四년에 산업에서의 로동 생산성은 七% 이상 장성되였다。

로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선진 로동자들과 생산 혁신자들의 우수한 경험을 연구하며 그를 광범히 보급시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무장된 생산 혁신자들은 생산의 새로운 예비들을 발견하며 기술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자기의 로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면서 로동 생산성 제고에 있어서 많은 로동자들에게 모범을 뵈여 주고 있다。

로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쏘련 공산당은 사회주의 경쟁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쟁은 공산주의 건설의 주요한 방법으로서 근로 대중의 창조적 로력을 앙양시킨다。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로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로 대중의 헌신적인 로력이 있는 데서만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산당의 지도 하에 쏘련 인민은 五차 五개년 계획을 기한 전에 성과적으로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모쓰크바와 전체 쏘련의 선진적 기업소들의 로동자들은 위대한 사회주의 一○월 혁명 三八주년을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써 기념하면서 로동 생산성의 가일층의 제고、 생산품의 질적 개선

및 五개년 계획 과제의 기한전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모쓰크바 로동자들의 이러한 애국주의적 사회주의 경쟁을 환영하고 있는 전체 쏘련의 근로 대중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장엄한 창조적 사업에 더욱 힘차게 궐기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산업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농촌 경리의 전반적인 앙양을 보장하는 것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강령의 주요한 한 부분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는 부단히 장성하는 쏘베트 사회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따라서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함이 없이는 인민 소비품들의 대량적 생산을 보장함에 있어서 지장을 줄 것이다。 인민 소비품의 거대한 대량적 생산은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쏘련의 계속적인 발전에 의하여 불가피적으로 제기되는 경제적 필연성이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인민 경제의 주요 부문인 중공업의 부단한 장성과 농촌 경리、 경공업 및 식료 공업 등의 급격한 발전을 긴밀히 련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는 계속 장성하는 중공업에 기초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적이며 충분히 기계화된 농촌 경리이다。

쏘련 공산당의 지도와 사회주의적 산업의 방조로 인하여 쏘련의 농업은 전후 짧은 시기에 완전히 복구되였고 꼴호즈와 쏩호즈의 축산업 발전에서도 현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전후 시기에 쏘련 공산당은 꼴호즈의 조직、 경제적 강화와 로동 규률의 강화、 로동 및 분배 조직의 개선、 지도 일군들과 전문가들의 양성、 엠・떼・에쓰의 역할의 제고、 꼴호즈들에 대한 지방 당 단체들의 계통적 지도의 강화 및 꼴호즈원들의 물질 문화 수준의 제고 등을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경주하여 거대한 성과들을 쟁취하였다。 쏘련 공산당과 정부는 꼴호즈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一九五○——一九五一년에 소규모적인 꼴호즈를 갱신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결과 지금 쏘련에는 이전에 있던 二五만 四천개의 꼴호즈들 대신에 九만 三천개의 대규모화되고 강화된 꼴호즈들이 있다。

소규모적인 꼴호즈들을 대규모화한 사업은 농업의 계속적인 앙양과 꼴호즈의 조직—경제적 강화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놀았다。 소규모적인 꼴호즈를 대규모화함으로써 선진 기술과 토지의 합리적 리용 및 로동력의 정확한 조직과 꼴호즈에 대한 구체적 지도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조성되였다。 이 모든 것은 꼴호즈 경제의 다방면적인 발전과 꼴호즈원들의 물질—문화 수준의 계속 향상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적 농업 생산이 달성한 성과는 이와 같이 거대하였지만 농촌 경리의 생산 수준은 사회주의적 산업의 급속한 장성 속도와 도시 주민의 증가 및 그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의 장성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一九四〇년부터 一九五二년까지의 시기에 산업 생산의 장성이 二·三배로 되였다면 농업 생산은 一〇% 밖에는 장성하지 못하였었다.

쏘련 공산당과 정부는 중공업 발전에서 달성한 제 성과에 기초하여 농촌 경리의 모든 부문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현 단계에서의 새로운 전 인민적인 과업으로 제기하였는바 이것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강령의 한 부분으로 되였다.

농업의 전면적 발전에 대한 당의 대책은 一九五三년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九월 전원 회의에서 강구되였다. 『쏘련 농업의 가일층 발전 대책들에 관하여』란 전원 회의 결정은 곡물 및 공예 작물의 수확고가 낮으며 특히 축산 발전이 불충분하며 감자, 야채 생산이 도시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을 증대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또한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의 불충분한 수준과 일련의 농업 부문들의 락후한 원인을 분석하고 전체 사회주의적 농업의 앙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주요한 과업들을 규정하였다. 즉 축산업의 급속한 향상, 무엇보다도 공동 축산업의 급속한 향상을 가장 긴급한 과업으로 내세웠으며 이 과업의 해결을 위하여 사료 생산을 증가하며 축사를 보장하며 사료 생산과 농장들에서 로력이 많이 드는 작업을 기계화하며 가축 생산을 향상시킬 데 대한 과업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전원 회의는 감자와 야채류 생산을 二—三년 내에 도시, 공업 중심지 주민들과 가공업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감자에 대한 축산업의 수요까지 충족시킬 과업을 내세웠다.

전원 회의는 화곡 작물, 공예 및 채유 작물의 생산고와 상품적 제품을 증가시키며 특히 전체 농업 생산의 기초로 되는 가장 중요한 곡물 생산을 백방으로 발전시킬 과업을 내세웠다.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향상을 보장함에 있어서 꼴호즈 생산의 물질—기술적 토대인 엠·떼·에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엠·떼·에쓰의 방조 하에서만 꼴호즈는 고도로 발전된 새로운 기술에 립각하여 장성 강화되는 것이다. 때문에 전원 회의는 엠·떼·에쓰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에 있어서 엠·떼·에쓰에 고정적 기술 간부들을 배치하는 데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농업 생산의 기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一九五四년부터 一九五七년 五월 一일까지에 一五마력으로 환산하여 五〇만대의 일반용 뜨락또르와 二五만대의 기경 뜨락또르를 농업에 제공할 과업을 내세웠다.

九월 전원 회의 결정은 사회주의적 농업의 물질—생산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광범한 강령이였는바 그것은 쏘련 인민 특히는 꼴호즈원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였으며 따라서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쏘베트 인민을 가일층 고무하였다.

쏘련 공산당과 정부의 지도 하에 九월 전원 회의 결정은 성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미 一九五三년 가을에 꼴호즈와 쏩호즈들에서 一九五二년에 비하여 추파지는 一、三〇〇만 헥터, 휴한지는 三五〇만 헥터 더 기경되였으며 꼴호즈와 쏩호즈원들의 수입은 一三〇억 루블리 증대되였다. 一二五만명의 각종 기계 기술일꾼들과 一〇만 이상의 농학자, 축산 기술자들이 엠·떼·에쓰에 파견 배치되였고 공업 및 인민 경제의 기타 부문으로부터 二만 三천명의 기사, 기수들이 엠·떼·에쓰에 복무하기 위하여 파견되였다.

뜨락또르, 꼼바인 및 기타 농기계들도 농촌에 다량 공급되였으며 축산 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취하여졌으며 농촌에서의 당 정치 사업도 개선되였다.

一九五四년 二——三월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국내에서의 곡물 생산의 가일층의 증가와 처녀지 및 황무지 개간에 관하여』란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원 회의는 농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 관리 기관들의 개편과 농촌에서의 당 정치 사업의 개편의 속도를 높일 것을 지적하였으며 전체 농업 생산의 기초로 되는 곡물 생산의 가일층 발전의 과업을 내세웠다. 곡물 생산의 증대는 주민들의 증대되는 식료품 수요, 증대되는 가축 사료 수요, 공업 원료 수요, 국가 곡물 예비 및 곡물 수출의 수요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업에서 선차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문제였다.

전원 회의는 곡물 증산의 방도로서 국내 전체 지역들에서 수확고의 제고와 아울러 광대한 처녀지 및 황무지 개간의 과업을 내세웠다. 새 토지의 개간은 다대한 추가적 기본 투자 없이 높은 수확을 얻게 하는 가장 좋은 방도인 것이다. 물론 강력한 중공업의 토대가 없었던 쏘베트 국가의 초기에 있어서는 이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쏘련에는 이것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여 있다.

전원 회의는 一九五四—一九五五년 간에 까자흐쓰딴, 씨비리, 우랄 및 볼가 류역과 일부 북깝까즈 지방들에서 一、三〇〇만 헥터의 토지를 새로 개간하고 이 지역들에서 一一억 내지 一二억 뿌드의 곡물을 생산할 것을 결정하였다.

전원 회의 결정은 쏘련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당의 호소에 의하여 전원 회의 이후 二개월 간에만 하여도 五〇만의 쏘베트 애국자들이 개간 사업에 동원될 것을 자원하였으며 특히 수다한 공청원들이 이에

자원적으로 출동하였다。 一九五四년말까지 一五만 이상의 농학자、기사、축산 기사、숙련 로동자들이 새 개간지에 자원하여 출동하였다。 一九五四년 한 해에만도 一三만 七천대의 일반용 뜨락또르 (一五마력으로 환산하여)、四만 六천대의 기경 뜨락또르、三만 七천대의 곡물 꼼바인 및 기타의 농기계들이 농업에 제공되였다。 이리하여 一九五四년 봄에는 계획된 一三〇만 헥타를 훨씬 초과하는 三六〇만 헥타의 새 개간지에 파종을 실시하였다。

一九五四년 六월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쏘련 농업의 계속 발전을 위한 일련의 방침 즉 옳은 비배 관리、가축 사료의 충분한 준비、국가에 대한 곡물 판매에 대한 꼴호즈원들의 물질적 관심의 제고 등의 방침을 제시하였다。

一九五五년 一월에 있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축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킬 데 대하여』란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축산 발전의 거대한 과업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을 내세웠는바 一九六〇년까지에 국내에서 곡물 총수확고를 년산 一〇〇억 뿌드로 제고하며 그중 四〇억 뿌드를 축산업을 위하여 배당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는 쏘련 인민을 새로운 투쟁에로 고무하였다。

쏘련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앙양을 보장함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공업의 수준을 새롭고 더욱 높은 단계로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적 생산의 계속적인 장성은 부단한 기술적 진보의 조건 하에서 높은 기술에 기초하여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단한 기술적 진보를 위한 투쟁——이는 곧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인 것이다。 이러한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一九五五년 七월에 있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의 결정이였다。

전원 회의는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기술적 발전 및 생산 조직의 개선에 관한 과업들』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는바 이 결정은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소비재 생산에 비하여 생산 수단 생산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것을 주요 과업으로 내세웠으며 낡은 시설들을 새로운 시설들로 교체하며 이미 설치된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현존 공장들의 기술적 개선 대책들을 강구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과학 및 기술의 최신 성과들과 선진 경험 및 합리화 제안을 생산에 급속히 도입할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전원 회의는 공업의 가장 중요한 부문들에서 생산 과정의 자동화 사업을 확장하며 생산 과정의 종합적 자동화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중공업의 위력한 발전에 기초하여 전원 회의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업들을 제기하였

으며 이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보다 큰 헌신적 로력을 발휘할 것을 전체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쏘련 인민은 공산당의 지도 하에 거대한 로력적 앙양 속에 이 과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쏘련에서는 사회주의적 산업의 생산과 농업 생산의 장성에 기초하여 근로 대중의 물질적 생활 수준이 부단히 향상되며 로동자、사무원들의 실질 임금과 꼴호즈원들의 수입이 증가되여 가고 있다。 一九五四년에 국가 소매 가격은 一九四七년에 비하여 二·三배나 인하되였으며 이 시기에 꼴호즈 시장에서의 가격은 四배나 인하되였다。 상품 류통 발전에 대한 五차 五개년 계획의 과업은 四년 간에 기한전 완수되였다。 국내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과 정부는 사회주의의 객관적 경제 법칙들에 립각하여 경제—조직적 사업과 문화—교양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의 계획적 발전과 산업、운수、농업、상업 및 기타의 사업들을 조직 지도하며 쏘베트 사회의 문화—교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공산주의 건설의 장엄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쏘베트 인민은 공산당의 지도 하에 나라의 경제적、문화적 및 국방적 위력의 강화와 평화의 수호 및 공고화를 위한 새 성과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 * *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은 거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근로 대중을 새로운 로력적 위훈에로 고무하여 주며 자본주의 제 국가의 로동 계급에게 자기 력량에 대한 신념과 평화와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의 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하여 주고 있다。 쏘련 인민의 영웅적 모범은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을 고무 추동하고 있다。

인민 민주주의 나라 형제적 공산당과 로동당들은 쏘련 공산당의 경험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배우고 있다。 쏘련 공산당의 경험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로동 계급들에 있어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승리의 무기로 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제 국가 로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근본적 리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로 되고 있으며 식민지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제국주의적·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무기로 되고 있다。

쏘련에서의 경험은 오직 혁명적 맑스주의당이 지도하는 경우에라야만 프로레타리아트는 결정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뵈여 주고 있다。 쏘련 공산당을 비롯한 각국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바로 그

려한 당들인바 이는 위대한 국제주의적 력량으로 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과 전 세계의 형제적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행동의 지침으로 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의 나라인 쏘베트 동맹의 주위에 굳게 결속된 평화와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의 강력한 진영에게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명시하여 주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공산주의 승리의 력사적 불가피성을 증명하였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공산주의에로 향하게 될 것인바 이것은 그 누구도 변경하거나 청산할 수 없는 객관적 력사적 합법칙성이다。

인민 파란에서의 농업 협동 경리

윤 철 호

一九四九년부터 시작된 인민 파란에서의 농업 협동 조합 운동은 파란 통일 로동당과 인민 정부의 정확한 지도 방조 하에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해마다 더욱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수 많은 농업 생산 협동 조합들은 청소하고 경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활력——소규모의 개인농 경리에 비한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남김 없이 뵈여 주고 있다。

농업 생산 협동 조합들의 우월성을 체득하게 된 파란의 수 많은 중 소 농민들은 자기들의 소규모적 개인농 경리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대중적으로 협동 경리에 이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수년 동안에 파란에서의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은 가일층 장성 발전되였다。 오늘 파란에는 약 四백만명의 빈농과 중농을 단합하고 있는 약 一만개의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이 창설되고 있으며 그의 경지 면적은 二백만 헥타에 달하고 있다。 일부 구역들、 례하면 파란의 농업 생산에서 관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뽀즈난—비드고쓰츠 구역에서는 현재 그 구역 농민들의 약 九〇%가 협동 조합에 단합되고 있다。

파란 통일 로동당은 농업 협동 조합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점차적 수립을 위하여 농업 생산 협동 조합들의 보다 더욱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보장하여 주고 있으며 그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인민 파란에서의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객관적 필요성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백만의 근로 농민들이 소상품 생산의 조건 하에서는 궁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며 급속하게 장성하는 도시—공업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없으며 또 농업이 그와 보조를 맞출 수 없다는 사정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파란에서의 토지 개혁의 실시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혁을 일으켰다。 그것은 농촌에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하였으며 자본주의적 요소의 주요한 물

절적 로대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파란 농촌 경리 발전에 있어서 첫 걸음에 불과하였다. 토지 개혁은 아직 농민들을 빈궁과 착취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 것은 아니였다. 개혁 이후에도 농촌에는 계속 많은 빈농 경리가 남아 있었으며 그 반면에 부농 경리는 적지 않은 토지와 농구 기타 농산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 많은 곡물을 상품화하고 있었다. 토지 개혁은 또 단순 재생산조차도 수행하지 못하는 수 많은 소농 경리를 산출하였으나 농촌 경리에서의 확대 재생산의 보장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오직 소농 경리를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경리——집단 경리로 전화시키는 방법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대규모의 사회적 생산에로의 농촌 경리의 이행만이 농민 계급이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조성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파란 농촌에서 자본주의적 착취의 부활의 가능성을 청산하고 근로 농민들을 착취와 빈궁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농업의 집단화 문제를 제기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파란에서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문제는 다만 이러한 정치적 요구에서 뿐만 아니라 파란에서의 인민 경제의 발전이 또한 그것을 요구하였으며 또 요구하고 있다.

산업 국유화와 수차에 걸친 인민 경제 계획화의 실시는 파란의 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으며 급속한 확대 재생산의 길에 들어서게 하였다. 벌써 一九四九년에 파란의 공업 생산량은 전전 수준의 五〇%나 초과하였으며 그후 그것은 더욱 더 급속하게 장성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소상품 경리가 우세를 차지한 농촌 경리는 공업의 발전 템포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었는바 一九四九년에 농업 생산량은 전전 수준의 약 八〇% 밖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농업이 소규모의 개인농 경리에 의거하고 있는 한 증대되는 공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 왜냐 하면 개인농 경리는 원래 락후한 기술과 개별적, 분산적 로동 형태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우며 또 확대 재생산의 원칙에 따라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인민 경제의 기본적 二대 부문들인 공업과 농업 간의 이와 같은 불일치를 극복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의 승리는 생각할 수 없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썼다: 『사회주의는 도시만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 및 생산 도구의 사회화의 기초 우에서 공업과 농업을 련합하는 그러한 경제 조직인 것이다. 이들 량개 경제 부문의 련합이 없이는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저작집 제七권 三九九폐지). 이로부터 새로운 기술과 과학에 의하여 무장된 대규모의 집단 경리에로의 소농 경리의 이행——농업의 협동

화는 파란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제적 요구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길만이 파란의 전체 인민 경제를 계획적 관리 및 체계적 향상의 원칙 우에서 공고화하며 대다수의 농민을 빈궁과 령락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파란 통일 로동당 중앙 위원회는 一九四八년 一二월에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토지 개혁 이후 앙양된 농민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에 의거하여 그를 실천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러나 파란에서의 농업 협동화의 행정은 다른 모든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결코 평탄한 과정은 아니였다. 농업의 협동화는 농촌에서의 계급적 모순을 가장 명백하게 나타냈는바 그것은 부농층의 책동을 분쇄하는 첨예한 계급 투쟁의 행정에서, 또 그들의 계급적 립장을 대변 옹호한 투항주의적 기회주의 분자들의 반동적 『리론』을 폭로 분쇄하는 투쟁 속에서, 당의 정확한 농업 협동화 로선을 외곡하는 온갖 종류의 경향들을 비판 시정하는 완강한 투쟁 속에서 진행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파란 통일 로동당은 레닌—쓰딸린의 사회주의적 농업 집단화의 원칙에 확고히 의거하여 한 때 파란에서 자본주의의 부흥을 시도하면서 소상품 경리를 영구화하며 부농 경리를 옹호하며 『부농과의 평등적 공존』을 주장한 고물까의 기회주의적 리론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농업 집단화의 성과적 보장과 부농과의 결정적 투쟁을 위하여 파란 통일 로동당은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여 중농과 동맹하며 부농을 고립시키는 계급 정책을 고수하면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즉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련계의 강화, 국가에 대한 농산물의 의무적 납부제의 강화, 물가 조절, 로임 인상, 배급 제도의 폐지, 투기적 행동에 대한 엄격한 국가적 통제의 실시, 중소 농민들의 농산물의 상품화률의 제고, 광범한 농민들 속에서의 정치 사업의 강화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부농에 대한 고립화를 가일층 촉진시켰다.

파란 통일 로동당은 파란에서의 레닌의 협동 조합 계획의 제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협동 조합 운동에서 농민들의 자원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협동 조합 운동을 인위적으로 촉진시키려는 온갖 조급성, 행정적 강압 방법의 적용을 반대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자원적 원칙의 위반은 우선 조합을 결실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들에게 악선전의 구실을 주며 용이하게 파괴 공작을 할 수 있는 틈을 주기 때문이다. 집단 농장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항상 지난 날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손바닥만한 땅 조각만 그리워하는 농민들이 우연히 한데 모인 그런 집단 농장은 처음부터 부농들의 파괴 공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파괴될 운명에 처하여 있는 것이다。 부농들은 협동 조합 내부에 잠입하여 일부 농촌 일군들이 범하는 온갖 당 로선의 위반 및 외곡을 악선동에 리용하여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협동 조합 사업을 내외로부터 파괴하려고 한다。 그들은 로동 조직과 수입 분배에서 규약을 위반하며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며 조합 수입을 저하시킨다。 때문에 파란에서는 조합내에 잠입한 부농들을 협동 조합에서 축출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조합 내에서 로동 규률을 강화하며 로동 조직 및 수입 분배에서의 규약 위반과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기존 협동 조합의 조직적、 경제적 강화를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벌써 一九五二년 六월에 개최된 파란 통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七차 전원 회의에서 베루트 동지는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재삼 강조하고 근로 농민들 속에서의 조직 정치 사업 강화의 필요성、 부농과 그의 졸개들의 적대적 책동을 결정적으로 진압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의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완전한 지배를 보장하며 자본주의적 요소의 완전 제거를 지향하면서 이 요소를 제한 구축하며 자본주의에 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원천을 제거하며 자본주의의 촉각이 또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농업에서는 생산 협동 조합의 발전에 의하여 참을성있게、 꾸준하게、 신중하게 부단히 소상품 경리를 사회주의적 경리에로 전환시켜야 한다』(『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 一九五二년 六월 二七일부)。

파란 통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七차 전원 회의는 파란에서의 농업 생산 협동 조합 운동을 가일층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졌다。 이 회의 이후 농촌에서는 광범한 조직 정치 사업이 전개되였으며 일부 당 단체들 속에 있던 농업 생산 협동 조합에 대한 과소 평가를 극복하고 협동 조합을 거대한 규모로 발전시켰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농촌에서 계급적 모순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협동 조합 발전을 위한 투쟁은 농촌에서의 정치 사업의 모든 전선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고 있다。 인민 쏘베트、 당 및 사회 단체들은 광범한 근로 농민들 속에서 협동 조합의 제 성과를 해설 선전하는 조직 정치 사업、 즉 개인농들의 대중적인 생산 협동 조합 견학과 六개년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대산업 기업소들과 건설 공사장의 견학 및 기타 등등을 실시하였다。 이 견학은 수 많은 개인농들에게 협동 조합 생활이 실지로 어떠하며 수확량이 어떻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 결과에 조합원들의 복리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를 뵈여 주었다。 견학은 수 많은 동요하는 농민들에게 생산 협동 조합에 대한 부농들의 비방이 얼마나 허무 맹랑한 것이며 비렬한 것인가를 확신케 하였다。 특히 협동 조합의 수입을 분배하는 조합원들의 회의에로의 개인농들의 초빙은 통례적인 현상으로 되였는바 이것은 개인농들에게 협동 조합의 생활을 보다 깊이 인식할 가능성을 주었으며 일을 많이 한 자만이 많은 것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케 하였다。

당 단체들은 선전 및 대중 정치 사업의 다종 다양한 형태들을 광범히 도입하여 생산 협동 조합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해설 선전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조합원들 속에서는 적극 분자들의 대렬이 확장되였는바 그들은 자기 주변의 농촌들에서 협동 조합의 성과와 그 규약 등 집단적 경리의 우월성을 해설 선전하여 왔다。

농촌에서의 대중적인 조직 정치 사업은 농민들의 각성을 장성시켰으며 당 단체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시켰으며 개인농들에게 생산 협동 조합의 우월성에 대한 심대한 인식을 주었는바 이 기초 우에서 부농들과의 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된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의 발전 과정은 부단히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一九五二년 하반년에만 하여도 농업 협동 조합 수는 三、三〇〇개로부터 四、九〇〇개로 증가되였으며 一九五三년 첫 四개월 동안에는 二、四〇〇개 더 증가되여 동년 五월 초에는 七、三〇〇개로 되였는바 一년이 못 되는 기간에 파란에서의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의 수효는 二배 이상으로 증가되였다。 심지어 과거에 심히 락후하였던 현들에서까지도 생산 협동 조합이 발생하게 되였는바 례하면 류블린현에서는 一九五三년 四개월 동안에만도 一九三개로부터 五五〇개로 증가되였으며 끄라꼬브현에서는 一〇三개로부터 二三〇개로 증가되였다。

창설된 수 많은 생산 협동 조합들은 청소하지만 현저한 경제적 성과들을 내였으며 조합원들의 복리가 향상되게 되였다。 그러나 일부 선진적 협동 조합들에서는 자기들의 첫 성과에 도취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 간혹 자기들끼리만 단합하여 외계와 단절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새 성원들을 받아 들이기를 원치 않는 경향이 있었다。 당은 제때에 이를 극복하고 그들을 새로운 파업에로 인도하였다。

생산 협동 조합의 급속한 장성은 당 단체들과 인민 쏘베트들 앞에 새로운 과업들을 제기하였는바 그것은 농업의 전면적 앙양을 위한 과업과 생산 협동 조합의 가일층의 확대 강화를 위한 과업들을 결부시키면서 사회주의 공업에서 달성한 거대한 기술적 성과들로써 그를 무장시키며 그에 새로운 력량들을 주입시킴과 동시에 이미 조직된 협동 조합들을 조직—경제적으로 가일층 공고화하며 그를 새로운 성원들로써 증가시키며 새로운 협동 조합을 창설하는 것이다。

베루트 동지는 一九五四년 三월에 진행된 파란 통일

로동당 제二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금후 二년 동안에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을 과거보다 더 견실하게 발전시키며 중앙 및 동부 지역의 현들에서 농업 협동 조합을 일층 널리 보급시키며 새로 조직하는 농업 생산 협동 조합들에 농촌 주민의 더욱 많은 부분을 망라시키며 이전부터 있던 협동 조합들의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 一九五四년 三월 一九일부)。

이 거대한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파란 통일 로동당은 협동 조합을 공업화의 토대 우에서 발전시킬 것을 예견하면서 一九五五년에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농기계 및 농구 생산을 二배 이상 증가시킬 과업을 제기하였으며 근로 농민들 속에서 협동 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보다 대규모적으로 실시하며 협동 조합을 반대하는 원쑤들의 허위 선전을 매걸음마다 분쇄하며 협동 조합 사업에 대한 깜빠니야적 태도를 퇴치하며 조합원들과 개인농들과의 공동 활동의 온갖 가능한 형태들을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또 기존 협동 조합들에서 집약적 축산업을 발전시키며 조합원들의 수익을 증대시키며 국가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며 조합 내의 일체 규약들을 준수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오고 있다。

一九五四년 二월 二三일 파란 인민 공화국 내각에서는 생산 협동 조합 발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는바 이는 주로 공동 축산업의 발전과 영농 시설 건설을 위하여 기존 생산 협동 조합과 새로 창설되는 협동 조합들에게 더욱 많은 자금을 대여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인민 정부는 생산 협동 조합들에 대한 건축 자재의 공급을 증가시키며 협동 조합 경작지의 개량 사업을 실시하며 협동 조합 경리와 조합원들의 주택 전기화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부터 대규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토지 리용 합리화 사업은 생산 협동 조합의 생산 기구를 옳게 규정하며 상시적인 륜작법을 강구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민 정부는 각종 형태의 생산 협동 조합에 대하여 과세를 현저하게 경감하여 주며 유리한 조건으로 신용、건자재、농기구、비료、종자 등등의 원조를 주고 있으며 협동 조합의 경제 기술적 발전을 위한 간부 양성 등등의 사업에서 백방의 지지와 원조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원조와 지지에 의거하여 파란에서의 농업 생산 협동 조합 운동은 현저하게 장성하였으며 이미 사회주의적 경리의 조직적、경제적 강화에 있어서 자기 성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있어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매개 생산 협동 조합들은 선진적 농업 기술과 현대적 기계를 사용하면서 자체의 조합원들의 집체적 로동에 기초하여 개인농보다 훨씬 많은 농작물의 수확을 거두고

있다。 례컨대 류블린쓰끼 구역 수베제호브 드취 농촌의 협동 조합들에서는 소맥 및 라맥의 평균 수확은 一九五二년에 一헥타 당 二톤이였으며 보리는 一・六、감자는 二〇톤이였다。 一九五三년도에 있어서 협동 조합의 주요 곡물의 평균 생산량은 개인농에 비하여 一五—二〇%를 초과하였으며 수익성이 높은 공예 작물의 비중은 이보다 현저히 더 높다。

특히 협동 조합은 축산업의 령역에 있어서 개인농을 현저히 릉가하고 있으며 더욱 높은 착유량을 내였다。 一九五二년에 있어서 전지 一〇〇헥타 당 사회화된 대각축의 수는 제二 형태의 협동 조합에서는 전년보다 四〇%、돼지 수는 五三%、제三 형태에서는 七二%와 二・五배의 급격한 장성이였다。

또 파란의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는 로동일에 의하여 조합원 간에 분배되는 수입이 부단히 증가되고 있다。 라미슬라쓰끼구 끄리끄브쓰끼 련합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의 성원 인쓰타 스위스타크를 그 례로 들 수 있다。 一九五三년에 스위스타크는 자기 부인과 아들과 함께 년 총로동 일수가 七五四일인데 수입을 본다면 四、一五〇키로그람의 량식、二、二五〇키로그람의 사료와 야채、九〇〇키로그람의 건초、四五〇키로그람의 보리짚、二四〇키로그람의 사탕 및 근 四、〇〇〇즈라트에 달하는 현금들이였다。

생산 협동 조합은 조합 성원들에게 개인농에 비하여 더욱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거대한 자금으로써 생산을 확대시키고 사회 문화 건설 사업을 진행케 하고 있다。 절대 다수의 협동 조합들에는 그들의 문화 오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관、구락부들이 설치되여 있으며 조합내에서 각종 문화 오락과 스포츠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조합 내에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있으며 많은 지방들에 조합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진료소들도 있다。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이 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사실들——농작물 수확고의 제고、조합원들의 물질적 복리의 개선은 광범한 개인농들을 협동 조합에 가입케 하는 가장 중요한 자극으로 되고 있다。

* * *

오늘 파란에서의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의 발전은 나라의 공업화의 토대 우에서、전쟁전 시기에 파란에서는 생산하지도 못하였던 뜨락또르、자동차、현대적 농기계 및 농기구의 생산의 기초 우에서 진행되고 있다。

농업 생산의 앙양과 또한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속도는 우선 농업의 기계화 령역에서의 성과와 그에 대한 뜨락또르 및 기타 기계의 충족 정도에 의존하며 농업에로의 대규모의 기술적 토대의 도입에 의존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파란에서는 농촌에서 사회주

의의 물질적 시설 토대를 조성하는 사회주의 공업을 발전시키면서 농업에의 선진적 기계, 기술 도입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가의 전기화,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강화하는 공업 부문(농기구, 비료 및 기타의 생산)의 건설, 관개 시설의 건설 등등을 확대하고 있다. 농기계 및 농기구 생산은 一九五一년에 一九三八년에 비하여 三六二%로, 一九五二년에는 四五〇%로 장성하였다. 사회주의적 공업의 급속한 장성은 농촌의 기계화, 최신 농학 기술의 도입, 각종 선진적 영농 방법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뜨락또르와 기타 농기계들을 농촌에 공급하고 있는바 一九五三년도 상반년에만 하여도 파란의 농촌은 四,〇〇〇대의 뜨락또르를 공급 받았다.

농촌에 돌려진 뜨락또르와 기타 농기계들은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와 근로 농민들에 대한 인민 정부의 방조에서 거점으로 되는 국영 농기계—뜨락또르 지정소에 집중되고 있다. 국영 농기계—뜨락또르 지정소는 토지 경작에 있어서, 농작물 수확과 농장의 수익성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생산 협동 조합을, 그리고 개인 농민——빈농과 중농——을 도와 주며 부농의 력량과 영향을 분쇄하면서 집단 경리를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파란에는 벌써 一九五〇년 말에 三二五개소의 국영 농기계—뜨락또르 임경소가 있었으며 一九五四년에는 一만 六천 四백대의 뜨락또르를 소유한 四〇一개의 국영 농기계—뜨락또르 지정소가 생산 협동 조합과 국영 농장을 위하여 작업하였다. 엠·떼·에쓰의 장성으로 농산작업 기간이 현저히 단축되였으며 엠·떼·에쓰의 뜨락또르 작업반과 생산 협동 조합의 전야 작업반파의 련계는 더욱 강화되였다.

농업 생산의 앙양과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서 국영 농장은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그것은 근로 농민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데 있어서 실물 교양의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우량 종자와 우량 종곡을 공급하며 기계의 리용과 선진적 농업 기술의 적용, 농작물의 품질 개선과 종축 개량을 위하여 소농 경리와 생산 협동 조합에 거대한 방조를 주고 있다. 때문에 그것은 엠·떼·에쓰와 함께 농촌에서 완전한 사회주의적 류형의 기업소로서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놀고 있다.

파란에는 다른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 비하여 보다 많은 국영 농장이 창설되여 있다. 여기에서는 토지 개혁 실시 행정에서 이미 세 가지 종류——화곡 및 공예 작물, 채종 및 축산——의 국영 농장이 五,六五〇개소나 창설되였다. 국영 농장의 대부분은 과거 서부 융케르의 지주 토지를 몰수한 기초 우에서 창설되였다. 一九四八년에 국영 농장의 토지 면적은 二三〇만 헥타에 달하였으며 一四,〇〇〇대의 뜨락또르와 二〇만두 이

상의 가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미 一九四九년에 농산물 총생산량의 六·五%와 상품 농산물 량의 七·九%를 생산하였다. 一九五二년에는 二만 二천대의 뜨락또르를 사용하면서 二백 九〇만 헥타를 파종하였다. 一九五一년에 그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상품 곡물의 二〇% 이상을 생산하였다. 一九五三년 국영 농장들은 一九五二년에 비하여 돼지 고기는 약 四〇%, 양모는 약 三六%, 계란은 四四% 각각 더 많이 국가에 납부하였다.

국영 농장은 一九五四년 四월 현재로 파란의 전체 경지 면적의 一二%를 차지하였으며 二만 九천대의 뜨락또르가 있었다. 국영 농장들은 최근 수년간에 파란의 사회주의적 공업에서 생산된 고성능 농기계들을 공급받았으며 쏘련에서 수입해 온 곡물 꼼바인, 사탕무 수확 꼼바인 그리고 무한 궤도 뜨락또르를 공급받았다.

전체 국영 농장이 가장 품질이 좋은 종곡과 가장 훌륭한 종축을 제공함으로써 협동 조합 농민들과 개인 농들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사업에서 자기의 역할을 높게 하며 전체 농촌 경리를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농촌 경리로 전변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되게 하는 것——이것은 현재 커다란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실례는 파란 농민들을 사회주의에로의 길에 인입함에 있어서 쏘련의 끌호즈 건설이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파란에서는 다수의 농민 대표들을 쏘련에 파견하여 선진적인 끌호즈, 엠·떼·에쓰 및 쏩호즈들을 견학시키고 기술 경험을 습득시키는 데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농민들은 쏘련의 끌호즈의경험을 대중화시키는 선전자적 역할을 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선구자로서도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파란에는 토지의 통합 정도와 수입 분배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四개 형태의 협동 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제一 형태는 가장 단순한 협동 조합인 토지 경작 조합(3y3)이다. 이 형태가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다만 경작지만을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결합되였기 때문이다. 이 조합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집체적 로동 관습을 농민들에게 배양하며 협동 조합 경리의 보다 높은 형태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하는 데 있다. 매개 조합원들은 자기 경리에 필요한 종자, 례하면 곡물, 감자 등을 바친다. 토지는 련합되며 순환 파종을 실시한다. 조합원들은 의무적으로 자기가 출자한 토지에 소요되는 정도의 공동 로동에 참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로동량이 출자한 토지의 량에 의하여 규정된다. 즉 만일 출자한 토지가 많으면 그만큼 더 로력을 내야 하며 또 만일 출자한 토지가 적으면 그만큼 로력을 적게 낸다. 로력이 부족한 농민들은 조합 총회가 제정한 원칙에 립각하여 삯을 주고 이웃의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은 一년 동안 공동적으로 농사하고도 추수는 매개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혹은 집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수확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토지의 량에 의하여 분배된다。

제二 형태의 협동 조합은 토지 공동 경작 조합인데 이것은 종전에 파란에 존재하였던 一 형태와 二 형태 간에 있은 비교적 엄청한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종전에 파란에는 三개 형태의 협동 조합이 있었다)。 이 조합에서는 매개 조합원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토지를 조합에 출자한다。 일체 작업은 국영 농기계와 매개 조합원의 개인 소유의 말、 농구로써 집단적으로 진행된다。 이 조합의 규약은 매개 협동 조합원에게 공동 가축 사양과 공동 농기구 관리를 장려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 매개 조합원이 자기에게 필요한 일정한 면적의 채소 밭과 가축、 가금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수입 분배는 다음과 같다。 즉 총 수입의 一〇—一五%는 조합의 공동 자금으로 충당되고 五%는 사회 보험 및 문화비로 충당된다。 그 나머지 八〇—八五%는 조합원들의 개인 소유의 말、 농기계 및 농구의 사용 정형과 그들이 투하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하여、 또 그들이 출자한 토지의 량에 의하여 분배된다。

제三 형태는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이다(오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가장 보급된 농업 생산 협동 조합 형태이다)。 여기서는 토지 뿐만 이니라 말과 일체의 큰 농기계 및 농기구、 가축들이 협동화되여 있다。 그러나 의연히 여기에서도 일정한 면적의 야채 밭은 조합원들이 소유할 수 있으며 매개 조합원이 두 필 이상의 가축과 거기에서 낳는 새끼들을 기를 수 있으며 기타 가금 등도 사양할 수 있다。 나머지 가축들은 말、 농기구와 함께 유상 또는 반환부 출자로서 조합에 바치게 된다。 조합에서의 수입 분배는 다음과 같다: 총 수입의 五분의 一은 공동 자금、 사회 보험 및 문화 기금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二〇—二五%는 출자한 토지에 따라 분배되며 一〇—一五%는 출자한 농기구에 따라 분배된다。 그리고 六〇—七〇%는 로력 일수에 따라 분배된다。

이 협동 조합에서는 우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가 계속 사적 소유로 남아 있으나 토지에 대한 조합원의 소유권에는 개인적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바 토지는 협동되여 토지 소유자에게는 그가 출자한 토지에서 나온 수입의 해당 몫만을 받을 권리와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권리만이 보존된다。 사적 소유의 토지에 대한 일정한 제한과 협동 조합의 일부 수입이 토지 출자의 규모에 따라 분할 지출되는 사실 등은 일정한 난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형의 협동 조합을 제四 형태의 협동 조합보다 저급 단계로서 특징지어 준다。 토지에 대한 지불 비률이 점차 축감되고 있는 이 협동 조합은 오직 로력일에 의해서만 수입을 분배하는 길을 따라 발전되고 있다。 협동 조합에 대한 국가측으로부터의 백방의 지지는 사회주의적 농업 기업소의 고급 형태에로의 길을 따라 이 조합들이 발전하도록 자극을 준다。

제四 형태는 련합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인데 여기에서는 일체의 기본적 생산 수단들이 사회화되고 있다。 토지는 조합원의 사적 소유로 간주하나 조합에서의 이러한 토지 소유는 다만 형식에 지나지 않는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그로부터 수입을 받을 권리가 없다。 토지 소유권은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해당 보상을 받는 때에만 보존된다。 수입의 근 三분의 一은 공동 자금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다 매개 조합원이 투하한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일급제 형태로 분배된다。 제四 형태의 협동 조합은 파란에서의 협동 조합 운동의 현 발전 단계에 있어서 최고 형태이다。

파란에 있는 농업 협동 조합들의 제 형태 간에는 기타 여러가지 구체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례하면 제一 형태에서의 세률은 제二 형태에서 보다 높으며 제三 형태로 올라 갈수록 세률은 더욱 감소된다。 제一 형태와 제二 형태의 협동 조합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 납부(례하면 육류 및 우유와 같은)를 개인농과 동일하게 일부분만 리행하고 있으나 제三、 제四 형태의 협동 조합들은 공동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한 기초 우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 납부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 수행하고 있다。

모든 협동 조합들의 조직 활동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완전히 민주주의적 관리 원칙의 기초 우에서 진행되고 있는바 조합의 지도 기관은 조합원 총회에서 선거되며 또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한다。 례를 들면 생산 계획 작성、 로동 기준량의 설정、 수입 분배 등이다。 매개 조합원은 자기가 협동 조합에 가입할 때에 물건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一六세에 달한 모든 사람들은 성별、 출자한 토지의 량에는 관계 없이 협동 조합의 조합원으로 될 수 있다。

매개 조합원은 협동 조합에 출자한 자기의 토지에 대하여 계속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그 후계자에게도 역시 토지의 상속권을 넘겨 줄 수 있다。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탈퇴할 때에는 원래 출자한 토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며 농기구에 대해서도 회수할 수 있는바 만일 그것이 파손되였을 때에는 상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다。

협동 조합 내에는 빈농과 중농들이 통합되여 있으며 생산 수단을 소유한 착취자와 생산 수단을 상실한 피착취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농은 협동 조합에 들어 올 수 없으며 고용 로동은 협동 조합에서 금지되고 있

다。 협동 조합 성원의 사적 소유로 되여 있는 토지는 기본 생산 수단、로동 및 토지 리용이 사회화된 조건 하에서 조합 성원들을 노예화하는 수단으로 되지 못한다。 토지에 의하여 조합원들이 받는 불로 소득은 순전한 자본주의적 잉여 가치가 아니다。 불로 소득의 비률은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순전한 자본주의적 평균 리윤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규약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합원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며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협동 조합의 발전에 따라 점차 폐기되여 간다。 그러므로 파란의 생산 협동 조합은 착취와 착취자가 없는 근로 농민들의 조직체인 것이다。

※ ※ ※

오늘 인민 파란에서는 최근 수년 간에 조성된 공업의 급격한 장성에 비한 농업의 락후、그들 량자간에 조성된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농촌 경리의 발전을 가일층 촉진시키며 로농 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파란 통일 로동당은 사회주의 공업화에서 달성한 성과들에 의거하여 농촌 경리의 지도에서 나타난 모든 결함들을 극복하면서 농업 생산과 축산업 생산의 장성을 보장하며 수백만의 개인농 경리와 협동 조합 및 국영 농장에 잠재되여 있는 모든 여력들을 발견 활용하며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을 개인농 경리에 대한 일층 강력한 원조와 결부시키고 있으며 농업 발전을 위한 력량과 자금을 재배치하여 그의 급속한 발전에 거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공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우리들이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공업을 금후 부단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농업에 방조를 주기 위하여、일용품 공업을 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그리고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들을 더욱 급속히 재전하기 위하여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공업이 창설한 토대를 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볼레슬라브 베루트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 一九五四년 三월 一九일부)。

파란 통일 로동당은 농업의 협동화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는 한편 광범한 개인농 경리에 대해서도 신중한 주의를 돌리고 있으며 그들에게 농학적 및 기술적 방조와 물질적 방조를 주고 있다。 대다수의 농민들이 아직도 개인농으로 존속하고 있는 현 발전 단계에 있어서는 농업 생산의 앙양을 위한 투쟁은 동시에 이러한 개인농 경리들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투쟁으로도 되여야 한다。 개인농 경리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 즉 농기계、인조 비료、각종 농기구를 적당하게 공급하는 방법으로써 농학과 기술의 성과들을 더 많이 리용하도록 방조를 주는 대책들은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재조직하는 대책들과 밀

접히 결부되여 있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역할을 강화하며 수백만의 개인농 경리와 사회주의적 도시들 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개인농 경리로 하여금 집단적 경리 운영의 길로 점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있다。

현재 파란 통일 로동당에서는 파란이 처하여 있는 구체적인 현 발전 단계에 있어서 레닌의 협동 조합 계획의 제 원칙을 정확하게 실현하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 생산의 가일층의 앙양을 위한 방도와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에서 보다 더 큰 성과를 보장할 데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난 몇 가지 결함들을 퇴지하기 위하여 제기되였다。

나타난 결함들은 파란이 처한 현 발전 단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더펴 놓고 높은 형태의 협동 조합만을 창설하려는 데서 단순한 형태의 협동 조합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다。

협동 조합의 단순한 형태들에 대한 경시는 협동 조합의 조직 사업을 수행하는 당 열성자들의 교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바 일부 일군들은 레닌의 협동 조합 계획을 자기의 연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파란의 구체적 조건에 그것을 알맞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농민들의 집단적 경영 활동의 예비 형태를 무시하고 준비되지 않은 토대 우에서 높은 생산 협동 조합을 창설하려는 기도에서、또 때로는 직접 자원적 원칙을 위반하는 데서 표현되였다。 그것은 또한 생산 협동 조합에 명령하려는 일부 일군들의 경향에서、이 협동 조합을 참답게 지도하는 솜씨가 부족한 것 등등에서 표현되였던 것이다。

단순한 형태의 협동 조합을 경시한 사실은 또 높은 형태인 생산 협동 조합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파란의 대다수의 생산 협동 조합들이 간부들의 부족으로 곤난을 받고 있는 데 이로 인하여 일부 생산 협동 조합에서는 아직도 자치제가 확립되지 못한 까닭에 그의 발전 강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 만일 이 협동 조합이 바로 그 농촌에서 단순한 형태의 협동 조합에서 경험을 쌓은 조직자를 가졌다면 생산 협동 조합의 자치제는 강화되였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형태의 협동 조합을 경시하고 더펴 놓고 높은 형태의 생산 협동 조합만 창설하려는 데서 초래된 부정적 결과이다。

·이외에도 단순한 형태의 협동 조합에 대한 과소 평가의 결과와 아울러 또한 다른 결과에서 일어난 위협성도 있는바 그것은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과 농산물 증산을 위한 투쟁을 동시적으로 전개함이 없이 다만 농산물 증산을 위한 투쟁만을 전개하는 데서、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템포의 지역적 차이와

또 개별적 지역에 적합한 협동 조합 형태를 취할 데 대한 고려가 미약한 데서 초래되는 결함들이다。

파란에 있어서의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템포가 지역적으로 다른 것은 과거에 매개 지역에 따라 농업에의 자본주의적 침투가 상이한 방법으로 진행된 결과 조성되였으며 또 인민 주권의 초기에 실시된 토지 개혁의 상이한 조건들로 말미암아 조성되였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협동 조합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파란에서의 로농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또 협동 조합 운동에서의 좌경적 오유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또 현재 파란에서의 농업 협동화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발전된 경리를 영위하고 있는 다수의 『낡은 중농』들에 대한 문제이다。

다른 모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파란에도 토지 개혁 후 농촌에는 『새 중농』으로 전환된 종전의 농업 프로레타리아트와 ── 이 층은 비교적 쉽게 협동 경리에 이행하고 있다 ── 다수의 『낡은 중농』 층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낡은 중농』층은 인민 정권의 시책에 의하여 자기들의 생산을 영위하고 있다。 이 층은 아직 극히 미약하게 생산 협동 조합에 망라되여 있는데 이러한 농민들을 협동 경리의 길로 이행시키는 문제는 오늘날 파란의 농촌 발전의 주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은 이 『낡은 중농』 경리를 자본주의 방향으로도, 사회주의의 방향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로에 선 경리』라고 한 쓰딸린의 말을 일면적으로 옳지 못하게 해석하면서 마치 이 『낡은 중농』 경리들의 극히 발전된 경리의 측면을 과대시 하여 그들을 협동화의 길로 인도하기가 곤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부 일군들이 『낡은 중농』경리를 협동화할 데 대한 문제에 신중한 주의와 대책을 미약하게 취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독재 하에서 중농 경리를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도시와 농촌간의 련휴의 강화, 사회주의적 공업의 계획 경제와 중농 경리의 련계, 대중적 협동화를 거쳐서 농민 경리를 사회주의적 발전의 일반적 로선에 망라하는 것 등등이다。 그러므로 『낡은 중농』 경리들이 파란에 있어서의 전체 중농 경리 중에서 가장 상품화률이 높은 경리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상품 교역에 있어서 인민 국가와 밀접히 련계되여 있고 또 그들이 실제로 협동 조합 경리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있는만큼 『낡은 중농』 경리들을 협동 조합에 이행시키는 문제는 가장 곤난한 문제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이 『낡은 중농』 경리를 위하여 단순한 형태의 협동 조합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파란 통일 로동당은 현재 생산 협동 조합 운동에서 나타난 이상과 같은 결함들을 폭로 비판하고 있으며 파란에서의 레닌적 협동 조합 계획의 제 원칙의 실현을 위한 강령을 작성하였는바 그것은 레닌적 협동 조합 계획의 가장 낮은 단계와 그 가장 높은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개별적 지역들의 농업 발전 정도에 따라 이런 또는 저런 형태가 그 지구들에서는 전면에 나서게 된다。 즉 이 강령은 지역들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그에 적합한 협동 조합을 창설하자는 것이다。

오늘 파란에서는 파란 통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四차 전원 회의가 당면한 주요 구호로서 내세운 다음과 같은 두 구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첫째로 생산 협동 조합이 있는 농촌의 빈농 및 중농들을 될수록 많이 집단 경리에로 이행시키기 위한 투쟁과 그와 분리시킬 수 없는 현존 생산 협동 조합의 전면적 강화를 위한 투쟁。

둘째로 자원적 원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생기발랄하고 발전 능력 있는 새로운 생산 협동 조합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

첫째 구호는 생산 협동 조합들이 자기 부락에 근로 농민의 三분의 一밖에 망라하지 못하고 있는 현 사태를 하루 속히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의미하며 또 협동 조합의 기술 및 농학의 현대적 제반 성과를 완전히 리용할 수 있고 국가의 생산적 원조를 완전히 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생산성 높은 사회주의적 모범 경리로 전변되여 자기 성원들에게 보다 높은 소득을 줌으로써 수백만 근로 농민 대중의 다룰 수 없는 모범으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투쟁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업들의 실현은 당 일군과 조합원들의 전투적 적극성을 높일 것이다。

둘째 구호는 지금까지 생산 협동 조합에의 농민들의 망라 정도가 아직 크지 않은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투쟁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그 농촌에 적합한 낮은 형의 생산 협동 조합들을 광범히 창설하여야 한다。

현 력사적 계단에 있어서 전개되고 있는 파란에서의 농업 협동 경리 ── 이것은 장기간을 거쳐서 수행될 위대한 력사적 과정이다。 파란 통일 로동당은 농촌 경리를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의 궤도에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소농 경리를 점차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회주의에로의 파란의 전진 운동에서 확고 부동한 기초로 되여 있는 로동 계급과 농민 대중과의 동맹은 파란 통일 로동당의 령도 하에 부단히 공

고화되고 있다.

파란 통일 로동당은 위대한 쏘련의 형제적 방조에 의거하며 그의 풍부한 경험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력사적 조건에 적용하여 농업 생산을 향상시키며 농업에서의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에서 근로 농민 대중을 확신성있게 지도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 사상의 침식

신 남 철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도 자기들의 정치, 군사, 경제적 침략을 정당화하며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 의식을 마비 약화시키기 위하여, 온갖 기만과 허위로써 식인종적, 침략적 정책을 엄폐하면서 문화—사상적으로 침식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을 『불상한 인민』에 대한 『구원자』 또는 『친우』로 가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선 사회 발전의 『락후성』을 과장하며 인민 생활 풍습의 독자성을 멸시하고 미국식 『문명』과 인종적 『우월성』을 설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치도 조선 인민의 행복과 번영이 오직 『친우』인 미국인을 통하여서만 성취된다는 환상을 넣어 주기 위하여 반동적, 반과학적 사상을 주입시키는 데 광분하고 있다.

미제는 오늘날 조선에서의 자기들의 오랜 동안의 침략적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발광하고 있으며 우리 조국 남반부에 자기들의 부패 타락한 반과학적, 반인민적 사상을 주입시킴으로써 남반부 인민을 무지와 몽매 속에 이끌어 넣고 있다.

이러한 흉모의 선두에는 미 제국주의 억만 장자들에게 복무하는 온갖 종류의 반동적, 반과학적, 관념론적 철학설이 나서고 있다.

* * *

미국에서는 침략적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는

잡색 관념론 철학설이 란무하고 있다 (주)。

(주——현대 미 제국주의 부르죠아 철학설과 사회 학설들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본지 一九五三년 제九、一〇、一一호와 금년 제四호 참조)。

미 제국주의의 가장 반동적인 침략 계층의 이데올로그인 듀이의 실용주의(實用主義) 철학이 우리 나라에 전해진 것은 벌써 一九二〇년대부터였다。 그것이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더불어 남조선에서 광범히 전파되였다。 미국인 고문들과 일부 대학 교육학 담당 교원들이 듀이의 소위 『교육 철학』을 들고 대학 교단에 섰으며 그의 교육 리론에 기초한 교육 방법 연구회가 진행되였으며 미 군정청의 편수사(編修士)들이 그와 같은 교과서를 편찬하였다。그리하여 듀이의 교육 방법을 광범히 도입한 책이라야 교과서 내지 참고서로서 『문교부』의 검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있다。

주관 관념론자인 죤 듀이는 사회적、물질적 기초를 가진 계급들의 투쟁을 관념과 경험 즉 심리적 활동의 투쟁으로 바꿔 놓는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환경에 순응하며 조화하는 관념과 경험의 도야(陶冶)가 곧 교육이라고 단언하며 그 도야에 있어서 종교는 큰 리익을 준다고 설교한다。 종교는 경험과 관념을 도야시킨다고 그는 말한다。

듀이는 미 제국주의 침략 정책의 옹호자이며 미제의 황당 무계한 『세계 정부론』의 설교자이다。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듀이의 철학을 극구 찬양한다。 一九四九년 그의 탄생 九〇주년을 축하하는 부르죠아 출판물들은 그를 『유물론과 무신론으로부터 서방 문명을 옹호한 정신적 구세주』로서 선전하였다。

이러한 듀이의 교육학설이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당한 리론으로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남조선 교육은 전적으로 듀이의 관념론적、반동적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다。 남조선 『정부』의 교육 정책의 기본법인 『교육법』의 제二조 五항에는 『조화 있는 사회 생활…』등을 운운하고 있다。 또 『국민 학교 교칙(教則)』 제一조에는 국민 교육의 목적이 『협조하는 사회인의 양성』에 있다고 서술되여 있다。 이것들은 두 말할 것 없이 남조선 교육의 근본 리념이 전적으로 듀이의 학설에 의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듀이가 자기의 반동적 교육 리론을 체계화한 저작인 『민주주의와 교육』(一九一六년)이 一九四八년 一一월에 남조선에서 번역 간행되였다。

듀이는 이 저작에서 교육이라는 과정은 『사회가 미성숙자를 그 사회 자신의 형태로 길러 내는 일반적 용모를 살펴 보려는 것』이며 『현존한 사회 풍습을 정화하고 리상화하는 일、자연에 맡기여 둘 때에 영향을 받을 환경보다 일층 더 광범하고 더 조화된 환경을 창설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듀이의 이와 같은 환경· 조화설(자본주의 사회에

의!)이 남조선의 교육 리론의 대본으로 되여 있다。

이와 같은 반동적 리론에 근거하여 교과서와 참고서가 출판되고 있다。『신 교수론』(권 혁풍 저 一九四九년)이라는 저작은 『환경을 훌륭한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곧 교육이라고 하면서 듀이의 반동적 사상을 선전하고 있다。

남조선의 반동 교육 관계자들은 듀이의 교육 리론에 의거하여 과학적、혁명적 리론과 세계관을 요구하고 있는 청년 학도들의 의식을 중독시키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에 어떻게 대응하며 제기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사는 문제——인생 문제로 되는 것이며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위 환경**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반응하며 보다 **큰 환경을 개척**(방점——인용자)하면서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한다고 결론짓는다 (장 리욱 『교육의 본질과 기능』——『새벽』 一九五五년 五월호)。 교육은 환경에(반동 테로 통치가 지배하는 환경!) 합리적 조화를 지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며 박애와 동정하는 『고상한 감정』으로써 대표되는 정신적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을 길러 내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곧 미제 강점 하의 참담한 남조선의 환경에 적응되여야 하며 또 미제의 강요에 의한 침략 정책에 맹종하라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곧 노예 교육임은 우리가 이미 일제 시기에 체험해 온 바다。 반과학적인 것、반인민적인 것을 증오하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반대하고 미제의 강압에 대한 노예적 굴종과 미제의 『동정과 박애』때문에 파멸되여 가는 환경에 적응할 것을 강요하는 『협화적 정신』(오 천식 『교육 정책의 혁신을 위한 시론』 동상서)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내는 교육과 그 제도를 창설하는 강한 정책이 그들의 소위 교육의 본질론이다。

미제와 매국 도당의 대변자들은 이와 같이 교육의 본질론을 들고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 남조선 고등 학교들의 도덕과(道德科) 교과서는 전적으로 그따위 반동적、반인민적 사상으로써 미제의 략탈과 전쟁 선동을 정당화시켜 주고 있다。

듀이의 반맑스주의적 저작인 『자유와 문화』(一九三九년)가 작년말에 서울에서 번역 출판되였다。 듀이는 이 저서에서 과학과 유물론을 반대함으로써 맑스주의를 배격하려고 참망하였으며 『도덕 제一주의』를 내 걸었다。

듀이에 의하면 사회 개조의 문제는 곧 도덕 문제인데 맑스주의는 이 문제를 배제하였다고 기만한다。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인간 품성이 결정적 의

의를 가진다고 강조한다。 사회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이 아니라 인간 품성에 관한 과학——륜리、도덕에 관한 과학이 반드시 설정되여야 한다고 한다。 모든 문화적 요소들은 도덕적 요소들에 종속되며 민주주의 특히 『미국식 민주주의 전통』의 문제는 미국인의 인간 품성에서 도출되는 도덕적 문제이며 그것에 의하여 자유가 달성된다고 하였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전통은 도덕적 공리주의(功利主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인간 품성의 문제와 불가분이며 품성의 련마가 사회 생활에 있어서 제一차적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듀이는、사회를 개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 품성을 개변하여야 하며 사회 생활은 개인을 개변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망설한다。 그는、모든 것은 인간의 욕망에 달려 있으며 인간의 관념、의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발전 법칙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개인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 사회의 모든 현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개인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맹목적 전진을 해야 하며 그 전진은 장구하고 완만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자본주의의 영원한 『지배』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반과학적인 이 몽매주의는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영원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온갖 날조를 자행하고 있다。 듀이의 이 데마고기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국에서도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본지 금년 제四호 참조)。

미국 각파 교회의 신학적、리론적 토대로 되고 있는 객관 관념론인 인격주의(人格主義)도 지난 三〇년대부터 조선에 전파되였다。 이 철학의 지지자들은 연희、숭실、리화 등의 남녀 전문 학교와 『신생(新生)』、『기독신보』 기타의 출판물을 통하여 그 신앙주의와 신비주의를 선전하여 조선 인민의 과학적 사유와 자주적 정신을 마비시키며 노예적 배미(拜米)주의를 고취하였다。

미국 인격주의의 철학은 一九세기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이상의 력사를 가지고 각파 교회의 공인 철학 신학으로서 각종 형태로 존재해 왔다。 조선 각파 기독교회가 파견하였던 적지 않은 미국 류학생들은 이 인격주의적 신학、철학을 가지고 오늘 민주주의적 자주 독립을 위한 남조선 인민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미제와 숭미주의자들은、오늘도 연희、리화 및 숭실 대학(근자에 다시 서울에다가 그 간판을 걸었다) 등의 신학과를 통하여 인격주의적 기독교 신학을 설교하고 있다。 그 신봉자들은 정치、교육、출판의 각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격주의의 대표자의 한 사람인 풀류웰링은 객관적인 신적 인격은 우주의 창조자이며 이 창조자에 대한 신앙은 『인간 정신의 법칙적 요구』이기 때문에 기독교

와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거대한 손해』라고 말한다。 미국의 각파 교회가 하나도 례외 없이 자본과 련결되여 있고 교회와 종교의 리익을 설교하는 대학 교수、관념론 철학자들이 독점 자본가들의 충복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딸라—대학—교회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교회가 미국식 기업의 한 형태이고 식민지 예속 국가들의 기독 교회가 대부분 미국 자본의 침략의 전초 부대라는 사실도 또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에서도 교회는 미국 자본의 침략의 전초 부대이며 그가 경영하는 고급 학교 관계자들은 자기들의 상전인 미제를 위하여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의 부패 타락한 미국식 생활 문화는 절대 다수의 근로 인민의 착취와 그들의 령락 우에 이루어지고 있다。 『딴쓰 파티』와 『공짜』는 매국 도당들이 빚어낸 반인민적 생활상이다。 수 많은 뢰물 사건과 점치기、사주(四柱)보기가 일상화되여 있는 남조선 사회의 형편은 『손금 보기』와 『강신술(降神術)』이 『철학적으로 정당화』되여 있는 미국의 생활 문화의 복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류행하고 있는 부르죠아 철학 사조는 거의 다 남조선에서 그 아류들에 의하여 한몫을 보고 있다。

세계를 론리 계산(論理 計算)으로 바꾸어 놓는 주관 관념론인 론리적 실증주의(論理的 實證主義)의 대표자들인 카르나프、럿쎌의 철학도 남조선의 궤변을 즐기는 『철학형』의 인테리들과 대학들의 일부 반동적 교원들에 의하여 선전되고 있으며 강의되고 있다。 그들은 과학을 옹호한다고 하나 사실은 그 성과를 외곡한다。 그들은、인간 본능은 사회 진화의 원천이며 인류의 모든 성과의 기본이라고 하면서 생활의 무도덕주의와 비렬한 관능주의를 옹호한다。 럿쎌의 우애 결혼(友愛結婚)론이 의연히 남조선 소부르죠아 인테리들에게 매혹적이다。 『녀성계(女性界)』같은 남조선 월간 잡지는 매호 구역질 나는 이러한 선정 기사(煽情 記事)와 극히 저급한 취미 기사로 충당되고 있다。

이 론리적 실증주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이 남조선에서도 궤변과 수학적 론증을 즐기는 소위 『철학형』 인테리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다。

八·一五 후에 실용주의가 미 독점 자본주의의 대표적 철학으로서 미 군정과 괴뢰 정부에 의하여 선전되였고 인격주의의 철학이 교회의 철학으로서 신앙의 리익을 설교함에 대하여 이 론리적 실증주의는 그 두 류파에 속하지 않는 반동적 인테리 특히 대학들의 일부 반동적 교원들 사이에 선전되고 있다。

一九四六년 봄에 개설된 미 군정의 소위 『공보원(公報院)』과 그의 지방 분원들은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선전하는 각종 출판물을 광범히 무료 제공하여 남조선 인민의 민족적 자주성과 궁지를 말살하려고 광분하였다。

실용주의와 인격주의 및 론리적 실증주의도 그 통에 광범히 전파되였다。

이 론리적 실증주의는 오늘날 남반부에서 소위 『철학형』의 청년 학생들을 조국 통일과 민주를 위한 의로운 투쟁으로부터 무장 해제시키고 있다。

남조선에는 민족적 전통、문화 및 민족적 독립을 반대하는 꼬쓰모뽈리찌즘의 리론적 기초로 되고 있는 어의론(語義論) 철학이 류행하고 있다。그것은 민족어들을 페기하고 간소화된 영어로써 통일적 국제어로 삼자고 한다。국제어로서의 『기초 영어(베이직 잉글리쉬)』로써 세계를 통일하고 그 『초 민족어』로써 각개 민족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어의론 철학과 소위 『기초 영어』는 벌써 八・一五 전에 우리 나라에 선전되여 왔다。八・一五 후에 미제는 남조선에서 영어를 공식 용어로 할 것을 강요하였다。

재작년 一一월 이래 미제와 매국 도당들은 소위 『한글 간소화』를 강요하여 발악하였다。조선 인민의 유구한 추상적、과학적 사유의 산물인 조선어의 문법을 기형화하고 말을 『간소화』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적 긍지를 포기시키려고 하였으나 원쑤들의 음모는 우리 인민의 강한 반대 투쟁에 의하여 파탄되고 말았다。

그러나 미제는 어의론 철학으로써 조선 인민을 우매화하려고 자기의 앞잡이들을 부단히 동원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 잡지 『녀성계』 금년 四월호에 게재되여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어린 중학생들이 국어 공부는 잘 하지 않아도 영어만은 잘 공부하여야 된다는 소위 『반쏘 반공 십자군』의 조직을 선동하는 신토마스주의도 남조선 인민과 청년 학도들에게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다。

남조선에는 기독교 신교의 각파 교회의 세력에 못지 않게 구교인 카톨릭의 세력도 상당히 강하다。그것이 월가 전쟁 상인들과 련결되여 있는 것은 물론이다。

조선에 천주교(카톨릭)가 전래해 온 것은 벌써 두 세기 전의 일이다。一八세기 후반에 그것이 전래해 온 이래 락후한 농민층과 중소 지주층(몰락 량반、중인층)에 침투하여 완강한 반동적 잠세력을 형성하고 八・一五까지 이르렀다。그것은 모든 현존하는 지상 질서(地上秩序)를 변혁하는 것을 초자연(超自然)의 신의(神意)에 위반하는 것이라 하여 반대하였다。그리하여 중세기적 완고성을 가지고 일제와 협력하였으며 신학교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있었다。조선의 카톨릭 교회는 불란서、독일 및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였었다。

八・一五 후에 조선 카톨릭 교회는 미제의 지시 하에 움직이고 있으며 신학 리론가의 양성에 서울 신성 대학(神聖 大學)을 비롯하여 더욱 더 발광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조선인 신부들과 반동적 인테리들이

신토마스주의의 사회학설로써 『반쏘、반공』 전선에 동원되여 남조선 청년 학생들을 사상적 타락에로 이끌고 있다。또 정치와 문화、출판계에서 소위 『반공 선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신토마스주의자들은 월가 전쟁 상인들과 련결되여 있는 바치칸의 『정신적 세계 제패』를 추진하기 위하여 벌써 八・一五 해방 전부터 잡지 『카톨릭 청년』을 발행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반쏘 반공』 선전을 진행하였다。

❉ ❉ ❉

미제는 남조선 인민으로부터 최대한의 리윤을 략탈하기 위하여 그 반인민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과 문화를 강제로 부식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근자에 미제의 주구들은 소위 『강력한 문화 정책』을 부르짖는 론설들을 게재하고 있다(『서울 신문』 금년 一월 一八일부)。그들은 정치와 문화에 있어서의 『탁류』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동족 상쟁의 내란을 도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방군』에 복무하는 것을 싫어하는 수 많은 학생들을 군수 산업과 군사 기술 및 팟쇼 교육에 복무할 말 잘 듣는 충복으로、대포밥으로 만들기 위한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제의 주구들은 표면상으로는 『목전의 리익에 급급하는 찰라적 현실주의』를 반대하며 『자립적 산업 진흥』을 떠들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기만적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실상은 그러한 가장 하에서 인민과 청년 학생들의 『좌익화』를 방지해 보려는 것이요、민족 자본가들의 불만 불평을 완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다。

또 그들은 『교회당 내에서 십자가를 둘러 싸고 리권 쟁탈전에 급급하고 있는』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진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팟쇼 테로 통치의 가일층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훈 교육』의 전반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군대 내의 야만적인 『정훈 교육』과 『정훈 훈련』을 교육과 사회 생활의 전반에 결쳐 보편화하려는 것이 그 소위 『강력한 문화 정책』의 본질인 것이다。그것은 유구한 민족 문화도、슬기로운 민족적 예지와 량심도 그리고 인민의 모든 지상 지하의 재부들도 송두리채 미제의 전쟁 도발 정책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위하여 바치자는 흉악한 매국 배족적 망설인 것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멸망해 가는 자기들의 유일한 활로로서 전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시키며 맑스—레닌주의 과학의 『위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죄악적인 사상—문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 소위 『강력한 문화 정책』이라는 것은 곧 『정훈 교육』에 의하여 지지되는 것이요、그것은 팟쇼 사상과

『사찰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반공산주의적 몽매 교육인 것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소위 『정훈 교본(政訓敎本)』으로써 군대 내에서 범죄적인 몽매주의적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것은 미제가 참망하는 세계 제패의 이데올로기적 기초인 인종론과 끄쯔모뽈리찌즘의 선전으로 일관되여 있으며 평화와 민주와 민족적 독립을 저주하고 있으며 기적과 십자가를 신앙시키려는 숭미주의로써 일관되여 있다.

남반부의 반동 출판물 자체가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서울 신문』 금년 一월 一八일부) 『총독부 말뚝처럼 방방곡곡에 세워 놓은 교회당』과 학교와 신문、잡지가 류포시키는 현실에 대한 외곡——『공산주의 침략』을 맹신시키려는 기만적 설교와 허무주의와 미국식 민주주의를 비롯한 일체의 반동적、반과학적 사상 조류가 남반부의 인민과 청년들을 중독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제 강점 하의 남반부에 있어서 소위『사상 전선』의 졸도로서 출현하고 있는 자들은 거의 례외 없이 파시쓰트화한 탈락 분자、변절자、민족 반역자들과 매판자본가의 앞잡이들이며 타락한 자연주의 작가들이다. 그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주문대로 과학과 리성을 반대하며 인간 증오、전쟁 례찬 및 사회 생활의 군사화를 위한 음모로써 조국과 인민의 흉악한 원쑤로 되고 있다.

그 곳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영、불、서독의 반동적 관념론 철학과 사회 학설에서 따다가 덧칠해 놓은 이론바『한국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것이 주장되고 있다(『사상계』 八월호).

이와 같은 남조선의 사상적 암흑상은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이 강요하고 있는 더욱 더 심각해 가는 기아와 실업、전쟁 히스테리와 사회적 무질서에 발맞추어 격화되여 가고 있다. 인민의 완전한 정치적 무권리와 경제적 령락 우에 강요되며 주입되고 있는 그와 같은 제국주의 반동 사상은 패륜、염세、관능(官能)、살인 등 말세기적、도덕적 부패상과 찰라주의 관념들을 나타내게 하였다.

미 제국주의와 매국 역도들에 의하여 우리 조국 남반부에 조성된 이와 같은 사태는 미제의 사상적 침략으로 인한 결과이다.

브·이·레닌은 일찌기 一九一九년에 유·피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본주의는 제 살 수명을 다 살았다. 그것은 인류 발전의 가장 반동적인 방패물로 되였다. 그것은 인민들을 전쟁에로 내 모는 극소수의 억만 장자들과 백만 장자들의 전제(專制)를 가져 왔다』(전집 제二九권 四七八페지).

미제 억만 장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전제를 강화하기 위하여『강력한 문화 정책』을 실시할 것을 그 주구들에게 명령하고 있으며 그들이 야수적인 테로 폭압으로써 그것을 강행하면 할수록 남반부 인민의 미제와 리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투쟁 의식은 더욱 더 고조되여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도당들은 그 팟쇼적 문화 정책을 리론적、도덕적으로 뒤받들기 위하여 소위『륜리 운동』이라는 것을 제창한다.

그들은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 있어서의 고난과 령락의 원인을 조선 인민의『도덕적 무력과 부패』에서 찾는다. 조선 인민이 통일된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새 기풍、새 성격、심정、관습을 기르는 것이 一차적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위 새로운『륜리 운동』을 제창한다(『서울 신문』一九五五년 一월 一일부). 조선 인민이 물질적인 리해 관계에 얽매여 민족 경제와 산업의 파탄을 공격하며 략탈과 가렴 잡세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일이며『유물 사상』에 물들은 까닭이니『량심 륜리 실덕(實德)』을 선전해야 하고『신앙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우리 민족의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똑똑치 못하고 세차지 못한 데서』찾으며『암우(暗愚)와 무준비』에 돌린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허위이며 민족적 허무주의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인민이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을 외래 침략자들로부터 보위하기 위하여 력사적으로 얼마나 영용하게 투쟁하여 원쑤들을 물리쳤으며 얼마나 슬기롭게 민족 문화를 창조하였는가를 그들은 완전히 부인한다. 이 반역자들이 우리 인민의 위력을 부인하며 력사를 외곡하여 가면서 지껴대는 그 소위『새 륜리 운동』이라는 것은 미제의 잉여 상품 판매 시장、전쟁 도발의 군사 기지로 완전히 전변되여 버린 자기 조국의 남반부를 해방시키려는 조선 인민의 투쟁을 반대하는 팟쇼 사상의 선전 운동인 것이다. 그것은 또『공산 침략자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지성주의(知性主義)가 아니라 열정주의(熱情主義)로 나아가는 운동』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남조선의 부르죠아 철학도들은 벌써 반세기 전에 레닌에 의하여 론파된 실용주의와 온갖 종류의 주관 관념론을 선전하며 멸망해 가는 소부르죠아적 실용주의와 八·一五후 천황 중심론을 재판해 가지고 나선 일본의『니시다、다나베 철학』등 온갖 반동 리론에 매달리여 팟쇼 사상을 선동하고 있다. 그 팟쇼 사상의 리론적 기초로서 비합리적 주체성(主体性)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잡지『사상계』와『철학 연구』는 그 무대로 되여 있다.

그들이 주창하는 소위『새 륜리 운동』은 곧 과학과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팟쇼적인 사상 운동이다. 생활의 불행이 마치 과학과 지성에 대한 편중에 원인이 있는 듯이 기만하며 미 제국주의와 예속 자본가에게는 그

책임이 없는듯이 사태를 날조하면서 공산주의에 그 책임을 전가한다. 그리하여 맑스주의적、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대하여 악의에 찬 중상을 퍼부으며 비합리주의와 신앙주의를 선전한다. 그들이 말하는 『열정』이라는 것은 곧 론리와 리성을 반대하는 신비적 바포스인 것이며 그것이 정치적 테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리론으로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세계관인 변증법적 유물론은 론리적、리성적 사유를 중요시한다. 그것은 객관 세계를 법칙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가능성을 준다. 그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대중의 물질적 생활의 제 조건이 악화되는 근원이 어데 있는가를 똑똑히 인식하게 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반동의 대변자들은 략탈과 침략의 원인을 엄폐하며 대중의 혁명적 사상 무장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종교와 미신、비합리주의와 무론리적『열정』을 설교하는 것이다.

과학과 론리적、리성적 사유와 변증법적 유물론과는 불가분이다. 그러므로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이 리성과 론리를 반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과학과 리성이 배제된 곳에 신앙과 신비주의와 미신이 지배할 수 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민족 경제 산업의 발전、통일 독립을 위한 민주주의적 정치적 투쟁、과학과 지성 등을 반대하는 그 소위『륜리 운동』은 반역 도당들의 소위 『북진 전쟁』의 사상적 기초로 되고 있으며 인민에 대한 대량 학살을 지지하는 구실로 되고 있다. 얼토 당토않은 『공산주의 침략』의 환상으로써 인민의 불행의 원인을 엄폐하며 『북진 통일』을 선동하기 위하여 『륜리 운동』을 전개한다.

그것은 곧 『실력을 기르는 것』——군비를 확장하는 것과 불가분이며 그것만이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주의적 개화 발전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떠버린다. 그러므로 소위 『강력한 문화 정책』과 『륜리 운동』과는 밀접히 결부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반인민적 정책의 안받침으로 되여 있다.

✽ ✽ ✽

오늘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투에 의한 남조선 문화의 부패성에 대해서는 남조선 반동 출판물도 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유물론의 진리성을 확증하는 론리적 사유와 과학과 그의 모든 유산들에 대한 멸시、인간 증오의 인종론 및 지정학(地政學)으로써 조작해 낸 사상 체계에 기초하여 우리의 민족적 독립과 민족 문화를 유린하고 있다.

이러한 침략 사상 체계로써 하는 미제의 사상적 침식、

경제적、군사적 침략은 남반부 인민의 생활을 토탄속에 내몰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남반부에는 인민의 경제적 령락、테로 폭압에 의한 완전한 정치적 무권리、도덕적 부패、지적 불건전성에 휩싸인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사태 아래서 진행되는 생활 양식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멸망해 가는 계급의 전망 없는 육감적 관능주의와 야비한 호색본(好色本)이 청년 학생들과 성실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 생활을 타락시키고 있다.

남조선의 악명 높은 월간 잡지 『녀성계』、『신태양』、『희망』을 비롯한 수다한 대중 잡지들은 미국식 생활 양식의 선전자로서 미제의 사상 침략의 구미에 맞는 내용으로써 편집되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은 우선 깽스터리즘(조직적 테로범죄)에서 표현된다. 그것은 미국에서나 남조선에서나 경찰의 지지와 묵인 하에서 공공연히 진행된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르죠아적 합법성은 옛 이야기로 되였다. 부르죠아지는 자기가 제정한 합법성이 자기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되였기 때문에 법적 조문들과 명제들을 위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로 되였다. 미제는 자기가 만든 헌법을 위반하고 공산당을 비법화하였으며 그 지도자들을 체포하며 테로를 가하고 있다. 리 승만 매국 도당은 그 상전의 지시대로 로동 계급에 대한 야수적 테로는 물론 자기들 동류끼리도 조직적 테로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것은 진실의 외곡과 력사의 위조에서 표현된다. 모든 사물 현상의 과학적 진실과 계급적 본질을 사실대로 제시하는 것은 미제와 리 승만 매국 도당의 정체를 자체 폭로하는 것이므로 그 진실을 외곡하는 것은 불가피적이다. 제국주의의 대변자들은 력사 발전 법칙을 거부하며 아세아 인민들과 그 문화、쏘베트 이데올로기를 중상하며 그리하여 침략을 정당화하려고 애를 쓴다. 미제는 벌써 一九四六——四七년경부터 『신천지』같은 기관지들을 통하여 쏘련과 쏘베트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론문들과 기행문들을 번역 게재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온갖 허위와 날조로써 진실과 력사 법칙 앞에 전전 긍긍하는 자기들의 멸망상을 뇌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쎈세이슈날리즘(흥분 도발)에서 표현된다. 저급한 감각적 쾌감을 자극함으로써 사건들의 발생과 진행의 본질을 엄폐하며 야비한 취미를 격발시켜 인민의 관심을 생활의 절실한 문제로부터 말초적인 흥미 본위에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그러한 례로서 에이•킨시의 『녀자의 성적 행위』(『一九五三년 뉴욕)라는 야비하기 짝이 없는 저서를 들 수 있다(『철학 제 문제』一九五四년 제二호 소재 『두발 걸음하는 동물의 사회학』참조). 녀성의 일

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극히 평범하고 무의미하며 우연적인 측면들을 통계와 과학의 이름 밑에 과장하여 그것이 마치 녀자의 생활의 전부인듯이 선전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인간의 동물적 본성을 옹호하며 인간의 본질을 포유류(哺乳類)에서만 보려한다。 사회적、력사적 발전의 총체로서의 인간、정의와 문화의 창조를 위한 투쟁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을 동물적 성 행위의 권화(權化)로서만 취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류를 평화와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리탈시키려 한다。

미제는 이 책을 자기들의 출판물망을 통하여 광범히 선전하는 음모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책이 인민의 사상 의식을 허무주의로 타락시켜 평화와 민주를 위한 투쟁 의욕을 마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제의 쎈쎄이슈날리즘은 허무주의와 불가분이다。 왜냐 하면 찰라적 흥분과 만족감은 건전한 과학적 사유를 반대하며 광활한 미래에 대한 신념을 와해시키기 때문이다。

미제의 센세이슈날리즘은 남조선에서 또한 광범히 선전되고 있으며 인민의 민족적 량심과 긍지감을 마비시키고 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문화적 전통과 유산은 략탈 파괴되고 있으며 인민과 청년들의 고상한 사상적 교과서가 되여야할 문학 예술은 반동 작가들의 퇴패와 타락、허무와 불안、비관과 고민을 내용으로한 『작품』들에 의하여 더럽혀지고 있다。 『애배배의 설음』같은 소설、『상급생의 침실』같은 영화、『추억에 운다』같은 노래가 미제와 반역 도당의 략탈과 『북진 전쟁』을 반대하는 인민의 투쟁 의식을 약화시키려는 것들이다。

끝으로 그것은 미국식 민주주의에서 표현된다。 이것은 어의론 철학에서 도출되는 궤변이며 인종 차별과 식민지 침략의 대명자이다。 어의론적 관념론은 『자본주의』나 『제국주의』같은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새 용어로써 바꾸어 그 의미 내용을 변화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즉 미국은 자본주의—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경제주의』、『경제적 민주주의』또는 『호상 원조』의 나라로 불려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영 불 우익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인도주의적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날조하여 자기들의 반동적、반역적 정체를 엄폐하듯이 미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불평등、착취、호상 반목과 전쟁 도발을 정당화하려 한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미제의 남조선 강점 이래 방송、출판물을 통하여 악랄하게 선전되고 있다。그들은 남조선 보통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대립물로 간주케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의 소위 『한국 자유 민주주의』와 한때 선전된 『일민주의』

(一民主義)라는 것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몇칠한 언어도단의 팟쇼적 망설이다。

이상의 징표들은 서로 련결되여서 미제의 야수적 정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특징짓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이란 미국 독점 자본의 지배를 옹호하며 그 지배하에 예속될 것을 요구하는 생활 양식이다。그것은 몽매주의와 인종론과 지정학을 가지고 조작해낸 꼬쓰모뽈리찌즘을 그 이데올로기적 본질로 하는 미제의 『힘의 정책』이 국내의 사회 생활에서 나타난 사상적—도덕적 부패 타락상을 정식화한 표현인 것이다。 그것은 미국 자본주의 발전이 가져온 력사적 산물이며 미제의 최대한 리윤의 략탈을 위한 전쟁 도발과 더불어 국외에 수출되여 강요되고 있는 미제의 사상적 상품이다。

영미 제국주의의 노복인 런던 대학 정치학 교수 라스키가 『세계 련방론』을 들고 민족적 주권과 민주와 평화를 반대하여 나선 것은 이미 제二차 대전 전부터였다。 그는 민족적 독립을 보전하는 민족 국가로서가 아니라 지역적 또는 세계적 련방 조직에 해소되는 『부분 사회』로서의 민족 국가를 주장하였다。 그러한 국가가 곧 현대 국가이며 현대 국가의 자유는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리론을 가지고 그는 맑스주의와 쏘련을 반대하여 나섰던 것이다。 이것이 미 제국주의의 『세계 정부』론을 뒤 받들어 주는 사상적 음모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부르죠아지는 그 상승기에 있어서 부르죠아 민주주의적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인민들 속에서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의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에게는 자유주의의 흔적도 없으며 개성의 자유와 민족의 평등권 원칙은 완전히 유린되고 말았다는 것을 쓰딸린은 교시하였다。

사실 미 제국주의의 강점하에 있는 남반부에 개성의 자유는 그 흔적도 없다。 미제는 그 강점의 첫날부터 기만과 궤변과 술책으로써 인민의 자유를 억압 박탈하였다。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유린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멸공 신념』이라는 팟쇼 테로 구호 밑에 남조선 인민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념원과 애국주의를 말살하려고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선전하기에 발광하고 있다。

미제에 의하여 그 부르죠아적 자유나마도 완전히 박탈되였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는 부르죠아 인테리들의 모색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리하여 『사상계』라는 반동 잡지까지도 『자유의 본질과 자유의 과제』를 찾아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사상계』 금년 八호)。 그들은 『고민하는 자유』의 륜리와 방향을 찾아 보려고 헛된 관념론적 유희를 하여 보았다。

그러나 미제의 사상적 침해의 본질을 폭로하지 못하는 그들은 『한국 자유 민주주의』라는 황당한 리론을

들고 나서면서 『고민하는 자유』가 완전히 죽지 않도록 『한국적』 한계를 부치자는 것이였다。 그들은 미제가 一세기 전부터 들고 나온 실용주의적 사상 침략의 계급적 본질을 파악할 수도 없었으며 또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미국에 있어서는 실용주의자 듀이가 대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유(思惟)나 사상은 객관적 현실의 반영으로서 그것을 변혁하는 물질적 력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순응하며 그것과 조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상의 자유는 어데까지나 란폭한 물질적 폭력—자본의 폭력에 복무하는 것이 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비판할 수 없으며 또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미제는 사상을 독점 자본의 략탈을 위한 수단의 확신으로써、인종론과 끄쓰모뽈리찌즘의 정당화를 위한 정치적 확신으로써만 그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자본의 침략적 의지——그것은 실용주의의 주관적 의지이다——가 일체의 실재와 진리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미제 독점 자본의 권위와 그 가장 충실하고 강력한 대변고 한다。사상인 실용주의의 주의설(主意說)의 해독적 영향을 청소함이 없이 『고민하는 자유와 그 방향』을 찾아 『자유 대한』을 세우려는 헛된 노력은 남조선 사상계의 비참상의 하나이다。

자유는 사회 발전의 력사적 산물이다。 자연의 예속으로부터 그리고 사회적、계급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였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맑스—레닌주의는 가르친다。『고민하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는 미제와 리승만 매국 도당의 지배를 전복하는 의식적、조직적 투쟁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 * *

一九五〇년 一二월 미제의 전쟁 정책과 반동 철학의 해독을 반대하여 개최된 미국 공산당 제一五차 대회는 사상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부르죠아 철학과 수정주의적 리론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할 것을 호소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당 기관 잡지 『폴리티칼 어페어스』의 리론 수준을 제고하며 당 내에 침입한 부르죠아 사상의 한 변종인 『유물론의 새 형태』라는 존 루이스의 『자연주의』를 분쇄해 버렸다(『반동 철학을 반대하는 미국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철학 제 문제』 一九五一년 제一호)。

미국 내에서 광범한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평화의 념원과 쏘베트 이데올로기와 맑스주의적 유물론의 정당성과 진리성에 대한 확신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음모를 폭로하고 있으며 파탄시키고 있다。

조선 정전 직후 一九五三년 八월 브룻셀에서 개최된 부르죠아 철학자들의 제一一회 국제 철학 회의

는 그들의 사상적 로쇠、무력、기만을 완전히 폭로하였다。七〇〇명의 참가자들의 四八〇종의 보고는 죽어가는 계급의 불안과 동요를 여지 없이 반영하였다。서부 독일의 대표 엔・할트만(비합리주의자、『계시 철학』의 주장자)은 그 회의를 총화하여 말하기를 『이 회의가 일반적으로 무슨 의의를 가졌었는지 의심스럽다』(『철학 제 문제』 一九五四년 제一호)고 하였다。작년 八월에 츄릿히에서 열린 그 철학 회의 제一二차 회의에서의 쏘련 철학자들의 활약은 맑스주의 철학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 리론의 위력성과 진리성을 다시 한번 과시하였고 부르죠아 철학의 기만성—무당성과 부르죠아 철학사가들의 철학사의 위조를 여지 없이 폭로 분쇄하였다(『철학 제 문제』 一九五四년 제六호)。

오늘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자기의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온갖 종류의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반동성과 파산성을 폭로 비판하면서 광범한 근로자들의 필승 불패의 기치로 되고 있다。

미 독점가들의 『원자 제국주의』는 세계적으로 패배되여 가고 있는바 그것은 우리 조선에 있어서도 그 정체가 나날이 폭로되여 가고 있다。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의 문화적、사상적 암흑상과는 정반대로 공화국 북반부의 발전하는 민족 문화의 고상한 사상성과 인민성은 전체 인민을 광활하고 광명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써 고무 추동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은 오늘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식에 의하여 초래된 남조선의 현 사회적 참상에서 미제의 침략 정책의 악랄한 본질을 더욱 깊이 깨닫고 있다。그리하여 남조선의 수많은 근로자들을 비롯한 청년 학생들、민족적 량심을 가진 선량한 인사들은 미제의 새로운 전쟁 도발 정책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인민의 투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미제의 반동적 사상의 침식을 규탄하며 더욱 완강하게 그를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 새 생활에로 나아가겠다는 남조선 인민의 념원은 미제와 반역 도당들에 의하여 폭력으로써 조성된 그 야비한 사상적 암흑상을 반드시 청소하고야 말 것이다。

레닌의 철학적 유산의 심오한 연구를 위하여

브·께드로브
그·구르게닙제

쏘베르 철학자들 앞에는 맑스주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한, 특히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관한 가치 있는 교재를 작성하는 과업이 오래 전부터 서 있다. 오래 동안 기다렸던 그러한 교재를 주려는 시도로 되는 것은 그·프·알렉싼드로브 편집 하에 一一명의 저자들에 의하여 씌여진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 철학 연구소 국립 정치 서적 출판사 一九五三—一九五四년, 四三九페지 一一〇만부)이다.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 철학 연구소로부터의 서문에는 『이 책의 제마 구성은 고급 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변증법적 유물론 교수 요강에 의거하였다』(三페지)라고 지적되여 있다. 이와 같은 책들은 그것이 교재로서 승인을 받았거나 안받았거나 할 것 없이 교재로서 간주되여야 한다는 것은 극히 명백한 일이다. 『변증법적 유물론』도 독자들에 의하여 교재로서 취급되고 리용되고 있으며 쏘련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외국어로 번역되여 있는 일련의 나라들에 있어서도 교재로서 취급되고 리용되고 있는 것은 자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서에 대하여서는 몇개의 저자들에 의하여 씌여지고 그들의 개인적 견해들이 서술되여 있는, 단순히 그러한 책으로서 요구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테리겐챠의 광범한 계층들이 그에 의하여 학습하고 있는 그러한 교재로서 요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벌써 一년 전에 이 저서가 세상에 나오자 곧 일련의 전 련맹적 회의들에서와 많은 고등 교육 기관들 (모쓰크바 및 레닌그라드 종합 대학 철학부, 사회 과학 아까데미야, 고급 당 학교 및 일련의 대학들)에 있어서 저자들의 참가 하에 토의가 진행되였으며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 철학 연구소에 있어서는 퍽 그 후에 토의가 진행되였다. 토의 과정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서술에 대한 저자들의 일반적 방법 및 저서의 일반적 구성에 있어서와 또한 저서의 내용과 일련의 정식화와 인용된 실례들과 문체에 있어서의 엄중한 부족점들이 분석되였다. 그 때에 『철학 제 문제』는 저서에 대한 토의의 행정을 소개하고 토의의 총화를 결속지으며 저서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종결적 론문을 게재하였다. 비판에 동의하고 저자 그루빠는 작년 一一월 一일까지에 교재를 개작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자기 약속을 리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쏘련에서나 외국에서나 이 저서는 계속 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에 돌아와 이에 포함되여 있는 심각한 부족점들에 대하여 독자들과 교원들의 광범한 층에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제 문제의 연구는 과학적 인식의 발전 및 공산주의 건설의 제 요구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즉 우리에게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제 문제에 대한 연구적 성격을 띤 단행본과 론문들이 극히 적다. 소책자와 론문의 대부분은 주해의 성격을 띠며, 변증법적 유물론의 연구는 왕왕 구체적 과학들 (물리, 화학, 생물학, 생리학, 언어학 등등)의 자료를 옮겨 놓는 것으로써 대치하고 있다. 우리 철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는 문제들의 범위는 협소하다. 전후에 철학에 관한 적지 않은 학위 론문들이 통과되였으나 변증법적 유물론의 문제들에 관한 것은 극히 적다.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에는 해당 분야 사업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일반적 결합이 반영되여 있다.

이 저서를 분석하면서 八년 전에 쏘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그·프·알렉싼드로브의 저서 『서구라파 철학사』에 관한 특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평가함에 있어서 一九四七년도의 철학 토론회에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가 준 지적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철학 토론회 당시에 제기된 교과서에 대한 높은 요구 즉 철학사 교과서에 대한 제 요구에 대하여 쥬다노브 동지가 말한 것은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해서도 해당되여야 할 것이니, 이 저서에는 우리 나라와 외국의 가장 광범한 독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의 세계관이 서술되여 있기 때문이다.

저서에 일정한 긍정적 면들이 있다는 것은 물론이다. 사실 변증법적 유물론의 제 문제를 분석하면서 저자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변증법의 일반적 법칙들이 어떻게 표현되며 작용하는가를 뵈여 주며 철학적 제 문제를 공산당의 정책과 련결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매개 장에는 간단한 결론들이 첨부되여 내용의 습득을

쉽게 하고 있다。 자연 과학 령역、 특히 물리학의 령역에서 많은 실례들이 효과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그 서술의 간결성에 있어서 이전에 출판된 이와 류사한 교재들과 구별되고 있다。 개별적 장들、 특히 제八장 『세계의 물질성과 물질 발전의 합법칙성의 객관성』은 흥미있고 내용 있게 서술되여 있다。 이 장에서는 물질의 개념과 물질의 구조에 관한 지식 발전의 력사를 물질과 운동의 불과분리성에 관한 문제와 련결시키면서 괜찮게 서술하였다。 오스트왈드의 력학론 뿐만 아니라 『원자 에네르기』의 배출이 마치도 물질의 소멸과 물질의 에네르기에로의 전환을 증명하는 것처럼 선언하면서 핵 물리학의 제 발견을 악용하고 있는 현대 력학론이 비판되고 있다。 물리학의 령역에서 효과있게 선택된 구체적 자료가 요구되는 수준에서 철학적으로 일반화되지는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의심할 바 없이 흥미를 끌고 있다。 즉 독자에게 자연 과학 령역에서의 귀중한 자료가 제공되여 있으며 물질의 존재 형태로서의 공간과 시간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현대 물리학의 일련의 문제들이 소개되고 있다。 흥미 있고 효과적인 실례들은 또한 제三장 『자연 및 사회에 있어서의 사물、 현상의 전반적 련관과 호상 제약』에도 포함되여 있다。 첨부하여 말한다면 이 장은 쉬운 말로 씌여져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저서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오유와 부족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저서의 가장 중요한 부족점은 레닌의 철학적 유산에 대한 과소 평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一九四七년도 철학 토론회에서는 그・프・알렉싼드로브의 저서 『서구라파 철학사』의 가장 본질적인 결함의 하나는 일반적으로는 맑스주의 철학、 특수적으로는 맑스주의적 철학사에 관한 브・이・레닌의 교시에 대한 무시와 위반이였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만약 七년이 지나서 그・프・알렉싼드로브의 편집하에 출판된 다른 저서에서 동일한 부족점들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오유들에 대하여 상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평가함에 있어서 철학 토론회의 자료에 또 다시 돌아 가게 되는 것이다。

의면상으로 보면 론평되는 본 저서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결함은 그리 명백하지 않다。 그것은 이 저서에 브・이・레닌의 저작들에서 인용한 것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깊게 읽을 때에는 인용문들이 저서의 본문과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있지 않으며 맑스주의 변증법을 어떻게 전개하며 그를 어떻게 연구하고 서술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브・이・레닌의 가장 중요한 명제들이 저서에 구현되여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브・이・레닌은 맑스주의 변증법이 『인식의 발생과 발전、 무지로부터 지에로의 이행

을 연구하고 일반화하면서 자기의 대상을 동일하게 력사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는』(『레닌 전집』 제二一권 三八폐지) 인식론을 자체에 포함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였다。 레닌은 인식론、 반영론이 맑스주의 변증법과 리탈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게 서술되여야 하며 변증법의 인식론에의 적용으로서、 변증법과의 유기적 련계에서 서술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였다。 맑스주의 변증법적 방법은 또한 유물론의 인식론과 리탈시켜 서술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다。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이와 같은 레닌적 사상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에 대한 전체 서술의 기초로 놓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분석되여 있지 않으며 해명되여 있지 않다。 저자들이 일련의 개소들에서 레닌의 저작으로부터 해당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례하면 六一폐지에는 동시에 두 개의 그러한 인용문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제二장 三절은 다음과 같은 제목까지도 달고 있다: 『유물 변증법은 맑스—레닌주의의 인식론이며 론리학이다』。 그와 같은 것은 제七장 二절의 소제목의 하나로써도 알고 있다: 『변증법적 방법과 유물론적 리론과의 통일』。 그러나 브・이・레닌의 저서 중에서 발췌는 하면서도 저자들은 단지 형식적인 복사에 국한하였다。 저서에는 맑스주의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또한 유물론적으로 변증법적 방법을 기초지었으며 어떻게 유물론적 변증법을 인식론、 사유 및 그의 법칙에 대한 학설에 적용하였는가 하는 것이 명시되여 있지 않다。 저서의 이 부족점은 모든 철학의 (따라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 문제 즉 사유의 존재에 대한 관계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저자들이 모든 철학적 문제 고찰의 기초로 삼지 않고 있는 데서 더욱 엄중하게 된다。 유물론과 관념론의 근본적 대립에 대해서는 一八—二六폐지에서 언급되여 있으며 이러 저려하게 저자들은 모든 장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철학의 기본 문제에 대한 분석은 마지막 장인 제一〇장에서 처음으로 주고 있다。 결과에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의 문제들은 애매하게 되였으며 변증법적 방법은 적당하게 유물론적으로 기초지어지지 못하였다。

『변증법과 유물론은 맑스—레닌주의 철학에 있어서 유일한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二六八폐지)는 저자들의 주장은 다만 선포되였을 따름이다。 실지에 있어서 변증법과 유물론은 저서에서 분리되여 서술되여 있다。 즉 제二장으로부터 제六장에 이르기까지 (三九—二四一폐지)에 있어서는 변증법의 기본 특징들에 대하여 서술되여 있는바 자연 및 사회의 령역에서의 많은 실례들이 인용되여 있으나 변증법의 유물론적 인식론과의 련계는 분석되지 않고 있다。 그 이후의 장들 즉 제七장으로부터 제一〇장에 이르기까지 (二四二

——四二八폐지)에는 유물론의 기본 특징들이 서술되여 있으나 인식 발전의 변증법 즉 유물론의 인식론、반영론에 적용된 변증법이 분석되여 있지 않다。

물론 모든 대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것을 구성 요소들로 분해하는 수법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일면적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소들을 그의 변증법적 통일에서 뵈여 주는 데 있는데 이것이 저서에 결핍되여 있다。 저서를 일관하여 변증법과 유물론이 분리되여 서술되여 있는만큼 저자들은 통일적이고 총체적인 학설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맑스주의 이전의 변증법 및 유물론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을 충분한 깊이로써 분석할 수 없었다。

저서의 또 다른 본질적인 부족점으로 되는 것은 맑스주의적 변증법、나아가서는 전체 변증법적 유물론을 실례들의 단순한 집합체——때로는 다소 적합한 실례들(례하면 물리학에 관한)과 때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지어는 그릇된 실례들의 집합체에 귀결시키고 있다는 그 점이다。 실례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교과서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맑스주의의 이런 또는 저런 명제들을 설명하며 구체화하는 실례를 반대하여 나선다면 그것은 괴이한 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실례들의 렬거는 아직 과학적 리론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본 저서에 있어서는 과학으로서의 맑스주의 변증법、변증법적 유물론 전체의 서술을 우연히 발췌한 막대한 량의 실례로써 대치하고 있다。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써 서술되여 있다。 즉 처음에는 당사 간략 독본 제四장 二절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에 대하여』에서 변증법 또는 유물론의 해당한 특징들에 대한 정식화를 인용하고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저자들의 보는 바에 따라 사회 생활、자연 과학 또는 철학에 있어서의 몇개의 실례들을 결합시키고 있다。 실례들은 가장 혼돈되고 질서없이 련속되고 있다。 즉 멘델레예브의 주기률에 련이어 언어학의 제 문제가 있으며、천문학 다음에는 정치 경제학、뜨·드·리쎈꼬의 농업 생물학 저작에 의거한 다음에는 공산당의 실천적 활동 분야에서의 사실이 련속되며、빠블로브 생리학설 다음에 계급 투쟁의 력사가 련속되며 물리학 문제 다음에 국가와 법의 문제가 련속되고 있다。 이들을 련결시키는 유일한 고리로 되는 것은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례들이 변증법 또는 유물론의 이러 저러한 특징들에 대한 설명으로 되고 있다는 그것이다。 이·브·쓰딸린의 로작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에 대하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설한다면 이 로작은 부차적 자료에 의하여 희박(稀薄)하여질 뿐만 아니라 가끔 실례의 중하(重荷) 밑에 빠지게 된다。

전체 맑스주의 철학자들 앞에는 레닌이 제기한 과업

즉 맑스주의 변증법을 창조적으로 연구하며 서술하되 그를 실례의 총화에 귀결시키지 않으며 그의 연구와 서술을 개별적 실례로써 대치하지 말아야 할 과업이 서고 있다(『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는 실례도 역시 필요하지만)。 레닌은 인식의 전 력사를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는 방법으로써 변증법적 유물론의 모든 명제들을 기초지을 것을 요구하였다。 실례들은 철학적 과학으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초를 서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러나 실례가 서술 자체로 되여서는 안된다。 변증법을 실례의 총화에 귀착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레닌은 곧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브·쁠레하노브를 비판하였다。 레닌은 사물을 그의 발전에서、또 다른 사물들과의 련계에서 연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관찰의 객관성 (실례도 아니며 퇴각도 아니며 물체를 그 자체에 있어서)』(『철학 노트』 一九四七년 一九二폐지)이라고 썼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과정(課程)을 실례의 발췌로써 서술한다는 것은 객관성의 원칙으로부터의 퇴각을 의미한다。

브·이·레닌은 칼 맑스의『자본론』을 변증법의 적용의 고전적 모범으로 간주하였다。『자본론』에는 한 개의 과학인 정치 경제학에 변증법과 유물론적 인식론과 론리학이 적용되여 있으며 한 마디로 말해서 개별적 특징、명제、범주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맑스주의의 과학적 방법이 그의 총체로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레닌은 강조하였다。 『자본론』에서 적용된 맑스주의적 변증법적 방법을 분석하면서 레닌은 변증법의 서술의 일반적 방법도 이와 같이 되여야 한다는 것을 곧바로 지적하였다。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이와 같은 레닌의 사상이 참작되여 있지 않으며 해명되여 있지 않다。 여기에 『자본론』의 변증법에 관한 브·이·레닌의 교시가 인용되여 있으나 그러나 그 인용은 변증법의 서술과 연구의 방법이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 레닌이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개소에서 중단되고 있다。

레닌의 철학적 유언이라고 정당하게 간주되여 있는 론문 『전투적 유물론의 의의에 대하여』(一九二二년)에는 맑스가 『자본론』과 력사적 및 정치적 저작들에서 그와 같이 성과있게 실지로 적용한 그 변증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과업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 『자본론』 제一권 제一판에 대한 서문에서와 제二판에 대한 발문에서 맑스가 지적한 변증법적 유물론에 직접 관계되는 제 명제는 잘 알려져 있다。 저서 『정치 경제학 비판』(『서문』에서)의 『정치 경제학의 방법』이라는 특별한 편에서의 변증법적 방법에 대한 맑스의 서술과 칼 맑스의 이 저작에 대한 프·엥겔스의 유명한 서평에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서술은 잘 알려져 있다。

맑스주의 고전가들의 이와 같은 명제들은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취급조차 되여 있지 않다。 『자본

론』에 적용된 변증법적 방법을 평가하는 데는 단지 한 페지가 씌여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지극히 원칙적인 중요성을 가진 문제들 즉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의 상승의 방법에 대한 특경화(단 一〇행이 이를 위하여 돌려져 있다)와 같은 문제들과 함께 동력학에서 『다만 운동의 기하학적상(幾何學的像)』을 얻기 위하여(그런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동력학은 운동의 공간적—시간적상을 주는 것이지 기하학적 혹은 순 공간적상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체의 구조와 질량으로부터의 추상과 같은 문제가 서술되여 있다。 여기에서 또한 루끄레찌의 장편시 『물체의 본질에 대하여』、 더드로의 저작 『달란베르와 더드로의 담화』、 므·로모노쏘브의 장편시、 아·라지쉐브의 『뻬쩨르부르그로부터 모쓰크바에로의 려행』、 체르늬쉡쓰끼의 소설『무엇을 할 것인가』 등등에 관한 인용이 발췌되여 있다。

지어 『자본론』으로부터는 맑스의 로작의 많은 다른 명제들에서와 같이 명료하게 변증법을 뵈여 주지 못하는 그러한 실례(기계 체계를 괴물로서 묘사한 것같은)가 인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자들은 정말 『자본론』에 포함되여 있는 변증법을 뵈여 주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도 이외에는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었던가?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에 있어서는 또한 맑스주의적 변증법적 론리학에 대한 무시가 표현되여 있다。 『변증법은 맑스—레닌주의 과학의 인식론이며 론리학이다』(六二페지)。 『과학적 변증법적 사유의 론리성은 그의 내용과 불가분리하게 련결되여 있다』(六三페지)라는 것을 초조하게 지적하고 또 레닌의 『철학 노트』에서 한 개의 인용을 하고서 저자들은 이에 그치고 말았다。 그들은 레닌의 인용문이 가지는 의미를 해명하려는 의도조차 가지지 않았다。 저서에는 인식의 방법、 과학적 연구의 방법、 도달된 결과에 대한 서술의 방법、 사물 혹은 과정의 변증법에 대한 분석과 같은 이 모든 맑스주의 변증법적 방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론술되여 있지 않다。 변증법적 호상 련관에 있어서의 귀납과 연역、 또 분석과 종합、 인식의 모멘트 또는 단계로서의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특수적인 것과 전반적인 것과의 상호 관계와 같은 문제들과 기타 많은 다른 문제들이 전혀 취급되여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의 해명이 없이는 과학적 인식의 방법으로서의 유물론적 변증법、 맑스주의 변증법적 론리학을 본질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이다。

력사적인 것과 론리적인 것과의 상호 관계와 같은 변증법의 중요한 문제가 저서에서는 왜 묵과되여 있는지 리해하기 곤난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철학적 과학으로서의 유물론적 변증법을 레닌은 인류의 사상의 전 력사의 총화、 결론、 본질로서 관찰하였다。 인간 인식과 과학의 일반적 행정을 특징지으면서 레닌은 인

식의 이 일반적 행정을 반영하고 자체에 구현하고 있는 변증법은 사상사의 개괄로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레닌은 이 과정을 개별적 과학의 력사에서 나오는 자료에 근거하여 더 구체적으로 또 더 상세하게 추구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그는 『론리학에 있어서 사유의 력사는 일반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 사유의 법칙과 상응하여야 한다』(『철학 노트』 二一四페지)고 강조하였다。

레닌의 근본적인 철학적 교시중의 하나인 이 교시는 아직까지도 철학자들과 자연 과학 및 기타 과학의 력사가들에 의하여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교과서에 관한 사업을 곤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력사적인 것과 론리적인 것과의 상호 관계를 묵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칼 맑스의 『자본론』、 『정치 경제학 비판』에 대한 프·엥겔스의 론평에서와 그리고 레닌의 『철학 노트』에서는 이 문제를 교과서에 요구되는 정도로 명백하고 원만하게 서술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헌들에 이 문제가 연구되여 있지 않다는 구실은 과학으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이 문제를 무시하는 리유로 될 수 없다。

맑스주의 철학에 있어서 변증법적 론리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레닌의 명제들은 본 저서에서 간과되고 있다。 즉 변증법적 론리학의 문제 자체들이 취급되여 있지 않다。 맑스주의의 변증법적 제 범주에 대한 그릇된 론술들은 이와 련결되여 있다。 개별적 명제들이 단편적으로 서술되여 있다。 그런데 본질과 현상、 형식과 내용、 가능성과 현실성、 필연성과 자유、 우연성과 필연성 등등의 범주들은 그들을 맑스주의의 변증법의 어떠한 하나의 특징과 련결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 유물론의 총체적 립장에서 즉 변증법과 유물론의 모든 특징들을 그 내면적 련계와 통일에서 보는 립장에서 관찰할 때에 비로소 리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모든 철학적 범주들에 대한 변증법적—유물론적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실례로 『운동』과 『발전』을 보자。 이 범주들은 다만 변증법적 방법의 『제二』 특징의 범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특징들과도 불가분리하게 련결되여 있다。 꼭 마찬가지로 이 범주들은 유물론의 모든 특징들과도 련결되여 있다。 왜냐 하면 첫째로 운동은 물질의 존재 형식이며 둘째로 의식과 감각은 다만 『무생』물질로부터 력사적으로 발생 발전한 것으로써만 정확히 리해할 수 있으며 세째로 운동과 발전은 례하면 상대적 진리를 통하여 절대적 진리에로 접근하는 운동과 같이 인식 자체에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모든 다른 범주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례를 든다면 『우연성』과 『필연성』의 범주는 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바와 같

이(八九——一〇二페지) 다만 유물 변증법의 『제一』특징과만 련결시켜서는 안된다: 즉 현상들의 전반적 련관에 대한 인정과만 련결시켜서는 안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엥겔스는 우연성과 필연성을 생물학에 있어서의 발전의 리론과 련결시켜 고찰하였다. 발전과 변화, 특히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에 관계되는 변증법의 제 특징을 참작하지 않고 상기한 범주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겠는가?

매개의 범주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모든 특징들, 측면들과 련결되여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二三〇페지에서 저자 자신들도 쓰고 있다: 『자연, 사회, 사유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변증법은 맑스주의 변증법적 방법의 모든 기본 특징들(유물론의 특징들도 이에 포함시킬 것을 보충한다——필자)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서만 리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말한 바와는 달리 저자들은 형식과 내용의 변증법을 변증법적 방법의 『제四』특징과만 련결시켜 서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기 범주들의 상호 관계를 정확하게 리해할 가능성을 독자들에게 주지 않았다.

저서에서의 이와 같은 모순은 극히 단순하게 설명된다. 변증법을 실례의 총화로 귀결시키고 유물론과 변증법을 분리시키면서 저자들은 변증법 자체를 四개의 고립된 측면 또는 특징으로 분할하였으며 (그들은 유물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였다) 결과에 변증법적 유물론의 범주들을 변증법과 유물론의 서로 분리된 특징들에 해당하는 실례들로 전변시켰다. 저자들 자신이 말로써는 철학의 제 범주를 맑스주의적 방법의 총체에 대한 지식과 그의 적용에 기초하여서만 정확하게 리해할 수 있다고 승인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그들은 달리 행동하고 있다. 총결적으로 변증법의 범주들은 저서에서 정확하게 해명되지 못하였다. 범주들은 일면적으로 해명되였는바 이때 저자들에게는 특징을 임의대로 선정하여 이 특징에 이러한 범주들을 『밀어넣는』 주관주의적 태도가 존재한다.

브·이·레닌은 사상사를 론리학의 일반적 개념과 범주들이 발전되며 적용되는 그러한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고 직접으로 교시하였다. 바로 브·이·레닌이 이 과업을 어떻게 리해하였으며 해명하였는가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 앞에는 자연 현상의 그물(網)이 존재한다. 본능적인 인간, 미개인은 자기를 자연에서 분리시키지 않는다. 의식적인 인간은 분리시킨다. 범주란 분리의 단계 즉 세계 인식의 단계들이며 자연을 인식하며 포착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물에서의 결절인 것이다』(『철학 노트』 六七페지). 그러나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이 모든 것이 참작되여 있지 않으며 범주들은 변증법의 제 특징의 단순한 설명에 귀착되고 있다.

그런데 저서의 편집자 그·프·알렉싼드로브는 그의

저작물이 레닌의 명제들을 참작하려는 희망이 없었다는(혹은 능력이 없었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미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철학 토론회에서 쥬다노브 동지는 『알렉싼드로브의 저서에는 론리학과 변증법의 력사를 주지 않았으며 인간 실천의 반영으로서의 론리적 범주들의 발전 과정을 뵈여 주지 않았다. 때문에 저서의 서문에 인용되여 있는 레닌의 교시 즉 변증법적 론리학의 매개 범주는 인간 사상의 력사에 있어서의 결절처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교시는 공중에 뜬 것으로 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제 철학 체계의 총화로서 그·프·알렉싼드로브가 서술한 철학사가 문제였는바 거기서는 범주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철학적 범주가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체계적 서술이 문제로 되여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에 있어서도 역시 불만족하게 서술되여 있다.

본 저서에 있어서의 변증법의 기본 법칙들에 대한 론술은 심각한 반대 의견을 야기시키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도 역시 레닌적 교시에 대한 과소 평가가 존재한다. 변증법의 법칙들은 객관 세계의 법칙으로서 서술되여 있으며 인식의 법칙으로서는 거의 뵈여 주지 않았다. 어떻게 이 법칙들이 인식에서 반영되며 표현되며 작용하는가 하는 것은 해명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변증법의 법칙들에서 나오는 리론적—인식론적 결론이 결여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증법적 방법은 인식론과의, 론리학과의 불가분의 련계에서 체계적으로 기초지어지지 못하고 있다.

브·이·레닌이 변증법의 알맹이를 어떻게 리해하였는가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변증법을 간단히 대립물의 통일에 관한 학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변증법의 알맹이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설명과 발전을 요구한다』(『철학 노트』 一九四페지).

『변증법의 알맹이』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레닌의 의견은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일면적으로 또는 부정확하게 설명되여 있다. 변증법의 기본 법칙은 거기에서 모순의 통일이라는 계기가 배제되게끔 그렇게 서술되여 있으며 저서에는 이 술어조차도 나와 있지 않다. 저자들은 대립물의 투쟁에 대하여서만 말하고 있으며 레닌의 명제 중에서 자기들의 견해에 맞는 것만 인용하고 맞지 않는 것은 인용하지 않고 있다. 아무러한 근거 제시도 없이 또한 아무러한 설명조차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

레닌은 대립물의 통일(합치, 동일, 동등한 작용)은 제한된 것이며 일시적, 잠시적인 것이며 상대적인 것이고 서로 배제하는 대립물의 투쟁은 발전 및 운동과 같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철학 노트』 三二八페지 참조). 그러나 이로부터 저서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일의 계기를 무시하며 이를 변증법

에서 축출할 수 있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또한 이로부터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을 전적으로 낡은 것과 새 것과의 투쟁에 귀착시켜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비록 이 투쟁이 변증법의 기본 법칙의 본질적인 면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마는。

대립물의 통일은 대립물의 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한다。 이것은 우연적으로 충돌하는、서로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있지 않는 물체들의 투쟁인 것이 아니라 유일한 총체의 내적으로 련계되고 모순되는 제 측면의 투쟁이며 유일한 총체의 발전의 제 경향의 투쟁인 것이다。

극히 명백하지 못하게 『부정의 부정』 법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법칙을 승인하는지 또는 론박하는지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하게 저자들은 일련의 장소에서 이 법칙을 서술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결속짓고 있다: 『헤겔의 변증법에 있는 상승 발전의 합리적 사상은 이와 같이 확실히 미신적 형태로써 제시되고 있다』(一八〇페지)。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저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부정의 부정』 법칙을 마치 헤겔의 관념론의 잔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칙에 대한 엥겔스와 레닌의 교시들은 저서에서 일면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즉 이 교시들 중에서 변증법을 비속화하는 각종 사람들이 밑천으로 삼고 있는 헤겔의 삼지 삼분법 (三枝 三分法)과 『부정의 부정』을 혼동하여서는 안된다는 것만이 지적되여 있다。 이 법칙의 본질에 대한 맑스와 엥겔스와 레닌의 직접적 교시들은 상기시키지 않고 있다。 다만 『맑스와 엥겔스의 저작 중 일련의 경우에 있어서 헤겔이 철학에 포함시킨 「부정의 부정」의 표현이 남아 있다』는 것과 『맑스는 이 공식에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상승 발전이 진행되며 새 것에 의한 낡은 것의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시켰다』(一八一페지)는 것만이 언급되여 있다。 여기에서 보면 『부정의 부정』의 법칙의 존재가 마치 론박된 것같이 보인다。 왜냐 하면 이것이 변증법의 독자적인 법칙으로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단순한 결과로서 대치되여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브·이·레닌이 변증법의 요소들 중에 『높은 단계 또는 낮은 단계에 있어서 일정한 특징、성질들의 반복』과 『마치 낡은 것에로의 복귀상 (부정의 부정)』(『철학 노트』一九三페지를 참조)을 포함시켰다는 것을 묵과하였다。 그런데 인식은 직선이 아니고 라상선(螺狀線)에 무한히 접근하는 곡선(曲線)이라는 문제는 레닌에 의하여 그가 지적한 변증법의 요소로서 서술되여 있다。

저서에서는 맑스가 어떤 때에도 사회주의에 의한 자본주의의 교체의 필연성을 『부정의 부정』에 의거하여 증명하지 않았으며 또 맑스의 결론들은 항상 막대한

실지 자료、현실적 력사적 과정에 근거하였다는 엥겔스의 유명한 말이 인용되여 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정의 부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변증법의 모든 다른 법칙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맑스가 마치 『부정의 부정』을 변증법의 법칙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맑스와 엥겔스와 레닌은 수차에 걸쳐 이 명제를 법칙으로서 말하였으며 그의 내용과 작용을 분석하였으며 그와 대립물의 통일 및 투쟁의 법칙과의 련계를 지적하였다。

엥겔스의 뒤를 따라 유물론의 형태의 교체를 가장 거대한 자연 과학의 발견들과 련결시켜 관찰하여야 한다는 브·이·레닌의 지적 (전집 제一四권 二三八페지 참조)도 역시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은 철학적 제 명제를 자연 과학의 실례로서 다만 론증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다) 자연 과학의 발견의 성격과 그에 상응하는 유물론의 형태의 출현과의 합법칙적 련계를 분석할 데 대한 요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저서에서는 자연 과학 분야、주로 물리학 (저자들 중 二명은 물리학의 철학적 문제들을 전공하였다) 분야에서 극히 많은 실례들이 인용되여 있다。 이것은 또 반복하지만 저서의 긍정적 측면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모든 자연 과학의 자료 (그 중 물리학적 자료도)는 다만 서로 련결되지 않은 실례로서만 인용되고 있다。 본 저자들은 이것으로써 본질상 유물론과 자연 과학과의 련계를 뵈여 주는 것도 국한하였다。

실례로서 저자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발생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인 문구로써 표현하고 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그의 발생 당시에 이미 一九세기 중엽의 모든 중요한 자연 과학 발견들 (그 중 가장 위대한 것들인 에네르기의 보존과 전환의 법칙의 발견、세포의 발견、다윈의 학설을 포함하여)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였다』。 그후 브·이·레닌은 자기의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에서 『一九세기 말과 二〇세기 초기의 물리학의 위대한 발견들을 천재적으로 총화지었다』(一三페지)。 이것이 전부이다。 유물론의 새로운 높은 형태가 상기한 발견들의 내용과 어떻게 합치되였는가에 대하여서는 한 마디도 없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유물론의 형태의 교체에 대한 엥겔스의 명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저서의 부분들에 있어서도(제七장 제一、二절을 참조)볼 수 있다。 여기에는 선언식 론의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

맛하주의와 『물리적』 관념론 전반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브·이·레닌은 경고하였다: 『이런 련계를 도외시하면서 맛하주의를 검토하는 것——쁠레하노브가 하고 있는 것처럼——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즉 엥겔스의 이런 또는 저런 문자 때문에 엥겔스의 방법을 희생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집 제一四권 二三八페지)。 제八장을 제외한 모든 장들의 필자들은 맛하주의와 기타의 반동적 관념론적 조류에 대하여 뿔레하노브의 오유를 반복하는 바로 그러한 비판을 하고 있다。 실례로서 제九장 제一절에서 맛하주의와 신맛하주의에 대한 비판(三二七—三二八페지와 기타)은 물리학과 완전히 리탈되여 있다。 제一○장에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런데 모든 철학의 기본 문제의 두 개의 측면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는 이 장들에 현대 주관적 관념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저서의 이 부족점은 一九四七년 철학 토론회에서 비판 당한 저서 『서구라파 철학사』의 근본적 결함들 중의 하나를 반복한 것이다。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가장 큰 결함의 하나는 맑스 이전 철학 사상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이다。 오렌 세기에 걸치는 철학사가 저서에서는 오유와 혼란의 련쇄와 같이 뵈여지고 있다。 어떤 때에는 저자들도 맑스 이전 철학자들의 일정한 우점들을 승인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승인 가운데는 일반적 어구 이외의 아무 것도 없다。 모든 철학 문제들의 서술은 단일한 어구—표본으로 끝마치고 있다。 즉 맑스 이전 철학은 이 문제를 파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맑스주의만이 파학적 해결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 말한 것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가? 력사는 철학을 한 걸음 한 걸음 풍부하게 하였으며 전진시킨 위대한 사상가들을 적지 않게 알고 있다。

력사는 더 좋게 할 수도 없으며 더 나쁘게 할 수도 없다고 맑스주의는 가르치고 있다。 브·이·레닌은 썼다: 『철학사와 사회 파학의 력사는 완전히 명백하게 맑스주의에는 세계 문명의 발전의 대로의 옆에서 발생한 어떠한 폐쇄되고 굳어진 학설이라는 의미에서의 교파(敎派)와 류사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반대로 맑스의 천재는 그가 인류의 모든 진보적 사상이 이미 설정한 문제들에 대하여 대답을 주었다는 데 바로 있는 것이다。 그의 학설은 철학、 정치 경제학、 사회주의의 가장 위대한 대표자들의 학설에 대한 직접적 연장으로서 발생하였다』(전집 제一九권 三페지)。 저서의 필자들은 브·이·레닌의 이 명제를 본질상 묵파하였다。

一九四七년 철학 토론회에 있어서 그·프·알렉싼드로브가 맑스주의를 철학에서의 혁명으로 보지 않고 낡은 철학 체계들의 단순한 연장으로서 본 데 대하여 그를 비판하였다。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이 근본적 오유가 변증법적 유물론과 그에 선행한 철학파의 상속적 련계가 무시되는 방향에서 『시정』되였다。 맑스주의는 철학에 있어서 혁명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혁명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돌연히 공허한 장소에서 수행된 것은 아니다。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보면 변증법적 유물론에 선행하는 철학 체계들의 역할

을 과소 평가함으로써 변증법적 유물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같이 되고 있다。 이것은 아주 그릇된 비맑스주의적 견해이다。 맑스주의 이전 철학에 있은 부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여 도달된 모든 긍정적인 것을 배경으로 하고 변증법적 유물론을 뵈여 주어야 하였었다。 쏘베트 철학자들의 의무는 철학사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양하는 데 있다。 철학사를 모르고 더우기 이를 외곡하고서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의의를 리해할 수 없다。

특별한 절 『변증법적 유물론의 발생은 철학에 있어서의 혁명』과 저서의 기타 부분에 있어서 력사적 고찰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주의에 선행하는 철학적 체계들은 빈빈히 분리해서 평가되여 있지 않으며 어떤 때에는 진보적 계급과 반동적 계급의 사상가들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실례로서 『존재하는 착취적 제도의 혁명적 변혁을 기초지은 것이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 대중을 기존 질서와 타협시키는 데로 지향한 착취 계급들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사람은 실천적이며 일시적인 리해 관계를 『초월』하여야 하며 그는 다만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철학자들은 사람의 현실 생활에서 추구하고 있는 실천적 목적들은 아무 것도 아니며 저급하고 사소하고 『유한한 것이며 철학은 이로부터 빠져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九페지)。

맑스주의 이전 철학에 대한 이와 같은 개괄적 평가는 소박화와 불명확성과 또는 직접적 오유에 끌어 가고 있다。 一八세기 불란서 유물론자들인 라메트리、 디드로、 돌바크、 겔베지를 상기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들은 부르죠아지 즉 착취 계급의 사상가들이였다。 그러나 그들이 봉건적 질서와의 타협을 호소하였는가? 정반대였었다。 엥겔스의 표현에 의하면 一八세기 불란서에 있어서 철학적 혁명은 정치적 전복의 서막으로 되였다。 불란서 철학자들은 모든 봉건적 사상과 교회를 반대하여 전쟁을 진행하였으며 왕왕 봉건적 국가와도 전쟁을 진행하였다。 맑스주의 이전 철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자기들의 출발점에 상반되게 본 저서의 필자들은 二五三페지에서 『선진 부르죠아 사상가들의 유물론은 반봉건적 투쟁의 사상적 기치로서 출연하였다』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맑스주의의 원천의 하나로 되고 있는 헤겔 철학의 의의가 과소 평가되고 있다。 四六페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읽을 수 있다: 『헤겔은 발전의 전반성에 관한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변증법적 사상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되였으며 헤겔 철학의 합리적 알맹이로 되였다』。 이러한 선언적 성명은 四八페지에 있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헤겔 철학에 있어서의 『합리적 알맹이』에 관하여 언급한

전부이다。 그러나 『헤겔은 발전의 전반성에 관한 문제를 설정하였다』는 어구는 그의 본질이 해명되지 않고서는 독자들에게 아무 것도 말하여 주는 것이 없다。 고대 희랍 철학자 헤라크레토스가 『모든 것은 흐르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다』고 이미 지적하였다。 이 대신에 저서의 몇 페지는 헤겔 철학의 부정적 면에 대한 평가와 헤겔은 군주 제도를 영구화하였으며(一二〇페지) 『관념론적으로 현실을 외곡하였다』(一二一페지)는 등등의 증명에 돌려져 있다。 헤겔에는 다만 부정적이고 반동적인 것만이 속하여 있다면 변증법적 유물론에 관한 저서에 있어서 헤겔에 대하여 그와 같이 많이 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저자들이 관념론을 은폐하여서는 안되며 헤겔 철학의 반동적 측면들을 『완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그의 변증법의 합리적 알맹이를 분석하며 어떻게 또한 왜 헤겔 철학이 맑스주의의 리론적 원천의 하나로 되였는가를 뵈여 주었어야 하였다。 헤겔의 철학에 대하여서는 더욱 신중하고 심각한 태도로써 대하여야 하는바 이것을 바로 철학에서의 레닌적 당성 원칙이 요구하고 있으며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에 대한 레닌적 태도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을 레닌은 우리에게 가르쳤다。

변증법과 유물론의 개별적 특징들에 대한 각 장의 결론 부분은 의혹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 부분들에는 모두 다 상투적으로 『공산당의 실천적 활동을 위한 (…에 관한) 맑스주의적 명제의 의의』라는 표제를 붙이고 있다。 첫째로 우리 당의 실천적 활동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이러한 서술 양식에 있어서는 각장 본문의 특별한 『종결적』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맑스주의적 명제 자체가 항상 당의 실천적 활동과 련결되여 서술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둘째로 이것은 독자에게 마치 변증법적 방법은 총체적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측면과 고립된 어떠한 한 개의 측면으로서만 적용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브·쓰딸린의 공헌은 변증법적 방법과 철학적 유물론이 당의 실천적 활동을 위하여 총체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매개의 특징의 법칙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뵈여 준 데 있었다。 여기에서 이·브·쓰딸린은 맑스주의적 방법과 맑스주의 철학적 유물론과의 내재적 통일과 총체성을 항상 참작하였으며 강조하였다。 이 각별히 중요한 문제를 저자들은 또 역시 실례의 발췌에 귀결시켰다。 아주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유물론적 변증법의 법칙을 서술함에 있어서 공산당의 활동을 특징짓는 사실과 실례를 인입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변증법적 방법은 당에 의하여 언제나 어느 곳에 있어서나 통일적 방법의 총체로서 적용되는 것이며 개별적인 서로 독립된 특징들의 기계적 집합으로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종결적 부분들에는 그의 목적이 당의 실천적 활동을 위한 맑스주의 철학의 의의를 뵈여 주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자료가 극히 대량적으로 인입되여 있다。 실례로서 『공산당의 실천적 활동을 위하여 현상의 전반적 련계와 호상 제약성에 관한 맑스주의적 명제가 가지는 의의』의 부분에는 『형광적 발광(螢光的 發光)』과 『태양등(太陽燈)』 리론의 창설、 조건 반사(條件 反射)에 관한 이·쁘·빠블로브의 학설이 포함되여 있다(一〇九——一一一페지)。

『공산당의 실천적 활동을 위하여 세계의 물질성에 관한 맑스주의의 명제가 가지는 의의』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여 있다：『쏘련 천문학자 브·아·암바르쭘만은 류성간의 물질(流星間의 物質)로부터의 별(星)의 형성은 현재에 있어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물질 보존의 법칙은 『쏘베트 학자들인 오·유·슈밋트와 브·그·훼쎈꼬브 등에 의하여 창설된 현대 우주 발생론 가설(宇宙發生論 假說)』(三二四페지)의 기초의 하나로 되고 있다는 것이 상기되고 있다。 『쓰·이·와빌로브는 전자기마당(電磁氣場)、부분적으로는 광선(光線)이 물질의 특수한 형태이라는 명제를 기초지었다』(三二四페지)。 이 모든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자연 과학과의 련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흥미를 끈다。 이런 방향에서 이 자료를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특별히 우리 당의 실천적 활동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이 가지는 의의에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개별적 장들의 본문에는 一九차 당 대회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들에서의 제 결정의 자료가 포함되고 있다。 유감하게도 이것은 다수 경우에 있어서 심오하고 철저한 철학적 분석이 없이 또는 저서의 본문과의 련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총결적으로 장들의 모든 종결적 부분들은 성과적으로 서술되지 못하였다。 이 부분들은 공산당이 자기의 실천적 활동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정확한 견해를 주지 못하고 있다。 생생한 현실을 뵈여 줄 대신에 독자에게 생활에 대한 독단적 견해와 사실에 대한 교조주의적 태도로 얽매여 놓는 지혜 유희와 도식주의로써 이를 대체하고 있다。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심각한 과오를 발로시킨 기본 원인의 하나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창조적 태도의 결핍이다。

저서에서는 유물 변증법이 사회 력사적 실천과 또 과학의 발전과 련결되면서 어떻게 발전하였는가에 대하여 뵈여 주지 않았다。 유물 변증법의 제 문제를 서술하면서 저자들은 상투적인 표현 『변증법적

방법은…요구한다』를 리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변증법적 방법이 객관 세계의 인식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태도를 요구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언급되여 있지 않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문제들은 과학에서 아무러한 미해결 문제도 없는 것같이 서술되여 있다. 서술 과정에 있어서 명백하지 못하거나 토론 중에 있는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에는 이 문제들의 어떠한 해결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기피적이고 량면성을 띠게 정식화하고 있다.

실례로 우리 철학자들이 맑스주의 철학에 있어서의 변증법과 론리학과 인식론의 합치, 통일에 관한 레닌의 명제를 각각 달리 리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저서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의 명백한 립장이 없으며 이 합치와 통일은 완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유일한 맑스주의 철학, 과학의 각이한 측면과 각이한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해명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리해할 수 있고 저렇게도 리해할 수 있다. 철학자들 간에는 필연성이 항상 우연성의 형태에서 존재하는지 또는 『순수한』 형태에서 즉 우연성 아닌 형태에서는 발현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상 통일이 없다. 어떠한 일정한 견해를 표명할 대신에 저서의 필자들은 서로 대립되는 대답들을 이 문제에 주고 있다. 그리하여 九五페지에서는 『현실에 있어서 제 현상에 내재하는 필연성은 자기의 직접적 순수한 형태에서 항상 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씌여 있다.

다시 말하여 여기에서는 필연성이 어떤 때에 있어서는 직접적 형태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二四四페지와 三八六페지에 있어서는 법칙, 본질, 필연성은 직접적 형태로 발현되지 않는다고 씌여져 있다. 이와 같이 어느 것이든지 선택하라는 식으로 대립되는 견해들이 서술되여 있다.

저서에 대한 창조적 태도의 결핍은 가끔 은폐는 되여 있으나 인용 방법에 의하여 저서가 구성되였다는 데 있어서도 표현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고전가들의 로작 중에서 많은 명제들이 문자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만 괄호 없이, 원전에 대한 근거 표시 없이 인용되여 있다.

이와 같이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만족한 교재로는 될 수 없다. 이 저서를 리용함에 있어서는 저서에 존재하는 본질적 오유와 결함들을 참작하면서 저서에 비판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서의 심각한 오유들은 저서에 대한 사업의 암실적 성격(暗室的性格)과 저서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비판과 자기 비판의 결핍으로써 많이 설명된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관한 가치 있는 교재를 창작하며 그 편집에 있어서 오유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저서를 출판하기 전에 광범한 쏘베트 철학자들을 저서에 대한 토의에 인입시

켜야 할 것이다.

레닌의 철학적 유산을 심오하게 연구하는 사업에 있어서 쏘련 철학자들의 전체 집단과 마찬가지로 본 교재의 편집자들 앞에는 커다란 책임이 놓여 있다.

(『꼼무니쓰트』 一九五五년 제一四호에서)

리론과 실천의 련계와 당 선전

지금 세계에서는 심각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 사회 생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들은 리론 앞에 새로운 복잡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들은 다각적인 실천의 모든 총체를 고려하며 현상들을 변증법적으로 즉 그의 부단한 운동에서、대립의 투쟁에서 고찰하며 사회적 실재의 발전의 성숙된 과업들을 정당히 반영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발전의 유일한 과학적 리론인 맑스—레닌주의는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하에 위대한 一〇월에 의하여 시작된 사회주의적 기초 우에서의 세계의 개조는 보다 광범히 또 보다 심각하게 성과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맑스주의의 특별히 강력한 측면이며 다른 사회 발전 리론에 대한 그의 가장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인 실천과 리론의 불가분적 련계는 우리 시대에 특히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맑스주의 리론은 실천으로서 위대한 목적에로의 길을 밝혀 준다。 맑스주의는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연구에 기초하여 공산당과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을 사회의 혁명적 개조에 대한 과학적으로 론증된 강령으로 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선진적 리론은 생활의 요구에 항상 민감히 응하는 때에라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대 신화의 영웅 안테우스가 어머니인 대지와 밀접히 련계되여 있는 데서 커다란 힘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맑스주의 리론은 실천을 자기의 부단한 발전과 자기의 영원한 청춘의 생생하고 무진장한 원천으로 보고 있다。 리론은 실천에 의하여 활기를 띠게 되며 실천에 의하여 시정되며 실천에 의하여 검열된다 — 브·이·레닌의 이 말에는 맑스주의의 리론 발전에 미치는 혁명적 실천의 위력하고도 각 방면적인 영향이 표현되여 있다。

쏘련 공산당과 그의 중앙 위원회는 리론과 실천의 통일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으며 행동의 지침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에 대하여 창조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리론을 생활과 더욱 긴밀히 련결시키고 있으며 실천적

과업들을 정당히 규정하고 성과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리론을 생활에 접근시키고 있다。 맑스주의의 리론과 방법은 당에 의하여 쏘베트 사회와 국제 생활 발전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실천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 대중의 절실한 리익을 표현하는 그런 문제들의 해결에 능숙하게 적용되고 있다。 당은 맑스주의적 혁명적 변증법을 지침으로 하여 도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피하며 전술에서 신축성을 가지며 항상 구체적 조건들을 고려하며 산 현실의 특징을 연구할 필요성에 관한 레닌의 지시를 지침으로 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리론은 실천에 대하여 전망의 명백성을 주는바 이는 위대한 목적—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산당、쏘련 인민、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다。 우리의 전진 운동의 전망을 규정함에 있어서 당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완성과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의 시기로서의 현 발전 시기에 대한 유일하게 정당한 맑스주의적 평가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평가는 쏘련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그에 적응한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가진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건설되였으며 이리하여 보다 높은 단계—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건들이 조성되였다는 전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쏘베트 사회주의 사회는 자기의 력량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기초 우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더욱 더 공고화되고 있다。 쏘베트 사회주의 사회는 위대한 조국 전쟁의 준엄한 시련에서、또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행정에서 자기의 생활력을 증시하였다。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당과 인민은 우리의 로선이 정당하며 우리가 제기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데 대한 확신을 얻는다。

공산당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현 단계에 대한 정당하고 맑스주의적 평가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이미 오래 전에 경과한 단계에 관계되는 공식、평가를 현 시기에 옮겨 놓으며 그리함으로써 마치 우리에게서 아직 사회주의의 기초만이、즉 사회주의의 기반만이 건설된 것처럼 묘사하려는 시도의 리론적 무근거성과 정치적 해독성을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현실 생활을 무시하고 있으며 쏘베트 사회、우리 제도의 위대한 경제적、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 성과를 과소 평가하고 있다。 그와 같은 주장은 발전의 전망을 외곡하며 사회주의 제도의 힘과 가능성에 대한 과소 평가에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해독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제도의 힘과 가능성은 실로 무진장한 것이다。 공산주의 건설을 지도하기 위한 당의 활동은 사회주의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을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 목적을 위하여 가장 완전히 리용하

도록 하는 데 돌려지고 있다。

당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그 기초를 둔 우리 나라의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거대한 가능성과 예비들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최근 년간에 진행되였던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들은 우리의 경제 형편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에 기초하여 공업 및 농업 분야에서 거대한 대책들을 수립하였다。 공산당과 그의 중앙 위원회의 집체적 경험、 집체적 현명성은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정당한 지도와 예견된 대책들의 성과적 실행을 보장하고 있다。 그 대책들의 실현은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며 공산주의에로 점차적으로 이행하는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새로운 거족적 전진을 의미할 것이다。 이 대책들의 실시는 쏘베트 국가의 위력을 강화하며 광범한 대중의 생활 수준을 제고시킨다。 인민의 복리에 대한 배려에서 당은 자기의 주요 과업을 보고 있다。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 법칙의 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당은 근로자들의 물질적 복리와 문화 수준의 확고한 향상을 보장하고 있다。

혁명적 리론에 의거하여 당은 사회주의 사회 성원들의 창조적 열성을 강화시키며 그의 정신적 력량을 가일층 제고시키는 방도와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력사에서의 인민 대중의 결정적 역할에 관한 맑스주의의 근본적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당은 그 표현이 우리 선전 사업 및 실천적 사업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 온 개인 숭배론의 반맑스주의적 본질과 정치적 해독성을 폭로하였다。

로농 동맹과 사회주의적 민족들의 친선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은 인민들의 정치적 열성의 제고와 인민들의 통일의 공고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당의 활동은 자기 생활의 창조자 및 자기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쏘베트 인민의 자각성을 더욱 더 제고시키려는 데로 돌려지고 있다。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인간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잔재를 숙청하기 위한 거대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사회 활동의 모든 분야들에서 쏘베트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이 보다 완전히 발휘되며 개화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다。 국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근로자들의 심의에 제출된다。 사회주의적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가일층의 발전과 완성이 진행된다。

혁명적인 변증법을 지침으로 하여 당은 새로운 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의 견지에서 생활 현상들을 분석하며 긍정적인 것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며 부정적인 것을 근절하며 쏘베트 사람들의 창조적 력량의 개화를 방해하는 장애들을 우리의 길에서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들을 취하고 있다。 당은 일부 지도자들의 자기 도취와 오만한 태도를、 또 그들이 대중과 리탈하는

사실을 용허하지 않는다。부정적인 현상과의 투쟁에 있어서、 관료주의의 표현、 사람들에 대한 랭담하고 무관심한 태도의 표현을 근절하는 데 있어서、 국가 기관을 간소화하고 개선하는 사업에 있어서 당은 대중의 지지와 경험에 의거하고 있으며 결함과 오유에 대한 밑으로부터 나오는 비판에 의거하고 있으며 자기 지도자들에 대한 대중의 거대한 요구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당 자체에 있어서는 당내 민주주의의 앙양과 당 생활의 레닌적 원칙과 규범을 철저히 적용하는 데 기초하여 공산당원들의 열성이 장성한다。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횃불로써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인민에게 밝혀 주면서 우리의 가능성과 력량이 무진장하며 문제는 그것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공산주의 건설에 완전히 복무케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성공의 담보는 사회주의 조국의 복리를 위한 정력적이며 헌신적이며 고도로 자각적인 우리의 로력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현재의 사업들——五차 五개년 계획의 기한전 완수、 당 대회를 앞둔 경쟁의 성과、 대중의 장성하는 정치적、창조적 열성——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에 대한 증좌이다。

공산당은 창조적 맑스주의의 립장에서 국제 생활의 제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의 대외 정책은 평화를 위한 투쟁、 사회주의 체계와 자본주의 체계의 평화적 공존과 경쟁에 관한 레닌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의 대외 정책은 제二차 세계 대전의 결과와 전후 발전의 결과에 진행된 심각한 변화들 즉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가일층의 심각화、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대한 협조의 조성、 이미 시작된 제국주의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 평화의 공고화를 위한 인민들의 강력한 운동들에서 표현되고 있는 심각한 변화들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있다。 국제 생활 분야에서——그의 사회적 및 민족적 모순、 진보적 력량과 반동 세력 간의 투쟁、 이 투쟁의 형식과 방법의 부단한 교체와 함께——현상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하여 진정한 맑스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며 생활과의 리론의 리탈、 도그마에 매달리려는 시도는 특히 허용될 수 없다。 당은 이것을 완전히 리해하였고 또 리해하고 있으며 대외 정책에서 원칙성과 융통성을 능숙하게 결합시키고 있다。 바로 이것이 평화를 위한、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를 위한 투쟁에서 최근 시기에 달성한 쏘련의 대외 정책의 거대한 성과를 조건지어 주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여 리론에 대한 창조적 태도가 공산당의 활동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 이로부터 공산당원들과 특히 지도적 간부들의 사상 리론 수준을 제고하며 그들의 맑스-레닌주의적 단련을 강화하며 그들을 공산당의 정

책에 대한 리해와 리론을 실천에 적용할 줄 알며 당 결정을 실천할 줄 아는 수완으로 무장시킬 사명을 가진 당 선전에 대한 높은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교조주의를 없애기 위하여 적지 않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이 엄중한 결함을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당 선전을 가일층 개선하며 당 선전을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실천에 최대한도로 접근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은 아직 생활과 미약하게 련결되여 있으며 때때로 아까데미크한, 계몽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결과에 선전은 가끔 자기의 전투적, 공격적 성격을 상실하며 정치적 예리성을 잃으며 우리에게 적대되는 견해들의 온갖 표현들에 대한 비타협성을 잃고 있다.

선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의 리론적 유산과 당 및 정부의 결정을 심오하게 연구한 토대 우에서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공산당원들을 무장시키며 공산당원들로 하여금 당 로선을 위한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투사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영예롭게 실행하도록 촉진시키면서 혁명적 리론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산당의 대내 및 대외 정책을 체계적으로 해설하여 주는 데 있다. 당 선전은 반드시 쏘베트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및 정치적 위력의 가일층의 공고화,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와 문화 수준의 향상, 쏘베트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증대를 적극적으로 촉진시켜야 한다. 선전은 평화의 공고화와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를 위한 쏘련 인민과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의 투쟁의 위대한 의의를 해명하여 주며 반동적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섬멸적 타격을 주며 『랭전』의 졸도들을 폭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 건설 완성과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쏘련 공산당의 풍부한 력사적 경험과 그의 지도적 역할을 전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적 공업과 그의 기초——중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농촌 경리를 급격히 앙양시키며 우리 조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복리를 제고시키기 위한 당과 정부의 시책들에 대한 선전은 커다란 사상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 시책들의 력사적 의의를 해설하며 그것들의 맑스—레닌주의적 론거를 뵈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을 리론적으로 기초짓고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의 모든 부문의 발전에서의 실천적 과업들을 규정하고 있는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七월 전원 회의의 결정들을 당의 전체 교양 체계에서 연구하도록 조직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다.

현재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건설 문제들을 공고화하는 평화·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 및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과 고립시켜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강력한 협조의 형성은 이 나라 인민들과 또한 전 세계 해방 운동의 위대한 전 세계사적 승리였다. 이로써 사회적, 력사적 실천은 맑스—레닌주의 리론 앞에, 당 선전 앞에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디였다. 즉 새로운 력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기본적 특징과 그의 국제적 의의에 관한 문제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협조의 형태들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 정치적 발전에서의 기본적이며 주되는 것에 있어서의 일반적 특징이 존재한다는 것과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력사적 및 민족적 특수성에 따라 형식과 방법의 일정한 특색이 있다는 문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공존에 관한 문제 등을 리론적으로 해석하며 연구하며 반영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당 선전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대한 의의를 심오하게 해명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가일층의 강화와 그에 들어 있는 나라들과 인민들의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의 발전이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의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뵈여 주어야 한다.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협조는 평화와 민주주의와 보다 훌륭한 미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전체 근로 인류의 강력한 성새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확고 부동한 사상적 기초로 되고 있는 것은 쏘련 및 구라파와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건설되고 있는 새 사회 건설자들의 열렬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조화적으로 결합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대한 충직성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근로자들의 형제적 련계의 일상적 강화를 의미하며 사회주의 및 민주주의의 전체 진영의 리익의 불가분적 통일에 대한 리해를 의미한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또한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기초 우에서의 세계의 심오한 개조가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의 친근한 사업이라는 데 대한 리해를 의미한다. 왜냐 하면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은 인류의 진보적 발전의 리익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협조의 형성과 함께 국제 관계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형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정치 경제 및 문화 분야들에서의 완전한 평등, 진정한 친선, 형제적 협조의 관계이며 새 생활 건설에서의 호상 원조의 관계이다. 그 관계는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사회 경제 제도의 성격, 공산주의를 건설할 데 대한 그들의 종국적 위대한 목적과 근본적 리익의 통일, 공산당과 로

동당들의 유일한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우리 선전 앞에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국가들 간의 관계의 경험을 심오하게 반영하며 이 관계에서의 사회주의적 원칙들의 철저한 준수가 쏘련의 가장 중요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되고 있다는 것을 해설하는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이 원칙들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사회주의 진영은 더욱 더 강력하여지며 쏘련에 대한 모든 인민들의 사랑과 쏘련 공산당에 대한 형제적 당들의 사랑은 더욱 더 열렬하여질 것이다。 공산당원들과 전체 쏘베트 사람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들, 사회주의 진영에 들어 있는 나라들의 완전한 평등, 민족적 자주권의 존중, 민족적 특수성의 고려의 원칙들을 신성하게 준수하고 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들에서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의 근로자들의 기본적 리익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서의 비타협성을 인민들의 민족적 감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존경과 도량과 결합시키고 있다。

우리 선전에서 형제적 나라들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을 호상 교환하는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야 한다。 매개 형제적 나라들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위한 공동 투쟁에 자기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근본적이며 주되는 것에 있어서의 공통성은 이 매개 나라들이 사회주의적 개조의 구체적 형식、 방법、 수단 그리고 또한 템포에서의 자기의 특색을 가진다는 것을 제거하지 않는다。 자본의 통치에서 벗어져 나온 나라들과 인민들의 생활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내용을 아주 훌륭히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출판되는 일부 책 및 소책자 그리고 또한 일부 강연、 보고、 신문과 잡지들에서의 론문들에서 범하고 있는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생활 반영에서의 도식주의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쏘베트 국가가 존재한 三八년 동안에 그가 쟁취한 전 세계사적 승리、 사회주의 국가들의 협조의 형성과 강화는 자기의 권리와 사회적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의 투쟁에 강력한 작용을 주고 있다。 근로자들의 조직성과 강의성은 장성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의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제 로동 운동에서의 이 합법칙적 현상은 우리 선전에 응당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많은 선전원들은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의 형편을 반영하면서 현 정세의 특성도、 매개 나라의 특수성도、 이러저러한 나라들 내의 로동 계급의 형편에서의 차이도 반영하지 않는 표준화된 공식을 리용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생활로부터 출발하며 맑스주의적 견지에서 현실적 사실들을 분석함으로써만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

들의 형편과 투쟁을 정당히 반영할 수 있으며 이 투쟁의 전망을 명백히 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나라들의 모범이 가지는 고무적 및 동원적 의의를 정당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리론 사업 및 선전 사업이 생활과 불충분하게 련계되고 있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일부 문제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학자 아·까츠의 저술은 현실을 외곡하여 리해하며 맑스주의를 비속화하는 명백한 실례로 된다。 그는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 경제학 연구소에 제출하였고 학계에서 정당히 비판된 자기의 저작『자본주의의 부패』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조건 하에서는 확대 재생산이 축소 재생산에 의하여 교체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적 재생산 리론의 법칙들은 그에 정반대되는 자본주의의 『자멸』의 법칙으로 전변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적 리론과 아무런 공통성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본질적으로 우리 당에 의하여 이미 오래 전에 폭로된 자본주의의 자동적 파멸론의 재창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계의 전반적 위기의 심각화가 자본주의 쇠퇴의 가일층의 격화를 증명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나 그러나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패하여가는 이 경향이 자본주의의 급속한 장성을 불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유일 것이다。『그렇지 않다、 개개의 산업 부문、 개개의 부르죠아층、 개개의 나라는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많든 적든 이런 경향의 그 어느 것을 표시한다』。

우리 선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의 쇠퇴에 관한 단순한 개념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생산、 과학、 기술에서의 성과에 대한 부정 또는 묵과에로 이끈다。 부르죠아 문학의 허식 앞에서의 노예적 굴종에 타협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세계 과학 및 기술의 최신 발견들과 자본주의 공업의 개별적 부문들에서의 기술적 진보를 덮어 놓고 배척하여서도 안된다。 우리 선전에서 얼마 전까지 나타나고 있었던 외국 과학에 대한 허무주의적、 무시적 태도는 쏘베트 경제 및 기술 간부들 속에서 자기 도취의 기분을 조성하였으며 우리 나라 과학 및 기술의 일련의 부문의 락후를 가져 왔다。

자본주의의 력량과 가능성을 정당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에 있어서 그것을 과소 평가도 하지 말며 과대 평가도 하지 말아야 하며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 시기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의 모순과 그의 극도의 첨예화를 심오하게 뵈여 주어야 한다。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사회주의 체계의 론쟁할 여지 없는 우월성을 뵈여 주면서 자본주의가 어데로 가며 세계 사회주의의 앞에는 어떠한 웅대한 전망이 열려지고 있는가를 력사적 사실에 부합되게 객관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의 선전은 두 제도의 경쟁에서의 새로운 성과 달

성에로 근로자들을 고무하여야 된다。

우리의 모든 선전 사업을 생활과 진실로 련결시키기 위하여서는 교조주의、도식주의의 표현과의 투쟁을 약화시키지 말고 전면적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리론에 대하여 창조적 태도를 취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리론과 실천의 불가분적 통일 속에 실천 뿐만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과학의 성과적 발전을 위한 강력한 자극이 있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특히 강조하여야 할 것은 맑스—레닌주의의 확고 부동한 원칙들의 토대 우에서만、또 혁명적 리론의 순결성에 대한 모든 그리고 온갖 침해와의 비타협적 투쟁 속에서만 리론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것이다。 이 리론의 원칙들과 본질을 더 훌륭히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생활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은 더욱 더 옳게 평가되며 사회 력사적 실천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창조적 해명이 더욱 더 성과적으로 되는 것이다。

레닌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를 분석한 기초 우에서 처음에는 수개의 자본주의 나라、또는 지어 개별적인 한 개의 자본주의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명제를 정식화하였으며 이 명제로써 당시에 있어서 정당하였으나 그러나 이미 낡아진 맑스 및 엥겔스의 명제、즉 모든 자본주의 나라 또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동시적 승리에 관한 명제를 교체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레닌은 해방 운동의 운명에서 위대한 역할을 수행한 이 과학적 발견을 사회주의에 의한 자본주의의 혁명적 교체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에 관한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초적 명제에 반대하여서가 아니라 완전히 부합되게 행동하면서 실현하였으며 이와 꼭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적 분석도 또한 맑스의 정치 경제학의 결론들에 의거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자기 원칙들의 확고성을 신성하게 보존하면서 생활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그에 의거하면서 발전되고 있다。

맑스주의의 원칙들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사회 생활의 현상들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원칙적인 맑스주의적 명제의 외곡은 객관적 현실과 반대되며 공산당의 정책과 반대되는 결론을 가져 온다。 이것은 당에 의하여 폭로된 보잘 것 없는 경제학자들의 실례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적 재생산론을 외곡하고 당의 총로선을 수정하며 현 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아주 그릇되고 정치적으로 유해로운 결론에 도달하였다。

당 선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이색 이데올로기적 견해들의 재생을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순결성을 위하여 비타협적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반동적 이데올로기를 견결히 폭로하며 로동 계급의 사업에 유해하고 위협한 견해들과 국제 개량주의 사상을 견결히 폭로하여야 한다。

레닌은 자기의 로작『무엇을 할가?』에서 베른슈타인형의 수정주의자들이 맑스주의를 수정함에 있어 의거한 조항들을 렬거하면서 그들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사상을 부정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베른슈타인파들이 계급 투쟁 리론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원칙적인 대립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레닌은 경제주의자들의 『추미주의』를 폭로하면서 로동 운동의 지도적 력량으로서의 혁명적 맑스주의당의 의의를 높이 올려 세웠다。 력사의 경험은 이 모든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들에 관한 혁명적 리론의 정당성을 확신성있게 증시하였으며 그리고 투쟁 행정은 수정주의자들을 맑스주의와의 완전한 결렬에로 이끌었다。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과 함께 개량주의와의 맑스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이 투쟁의 의의는 크다。 왜냐 하면 국제 로동 운동에서 개량주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며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 계급을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주의의 사업에 주관적으로 충실하나 맑스주의적 단련이 불충분한 데로부터 사상에서 동요하며 개량주의를 맑스주의와 타협시키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로동 운동 대표자들에게도 사상적 영향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혁명과 로동 계급의 독재에 관한、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에 관한、혁명적 맑스주의와 개량주의와의 적대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적 명제들을 해설하며 쏘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든 협조의 경험에서 혁명적 리론의 원칙들의 위대한 생활력을 뵈여 주며 이 원칙들로부터의 리탈과 비타협적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 모든 것은 당의 선전의 긴급한 과업을 이루고 있다。

우리 간부들을 리론에 대한 창조적 태도의 정신으로、맑스—레닌주의 원칙들로부터의 리탈에 대한 비타협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은 우선 쏘련 공산당의 력사에 대한 연구를 응당한 수준에 제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쏘련 공산당의 력사는 혁명적 리론과 실천의 불가분적 련계를 구현하고 있으며 쏘련 공산당의 력사는 행동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이며 그의 구성 부분인 경제 리론、철학、과학적 사회주의의 통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이다。 공산당원들은 당의 력사를 연구하면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정당성과 생활성을 리해하며 실천과의 그의 통일、혁명적 투쟁과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의 경험에 기초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가일층의 발전 및 풍부화를 리해하게 된다。 쏘련 공산당 력사의 연구는 우리 당의 력사적 발전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우리 당 정책의 과학적 기초를 뵈

여 주며 현 단계에서의 당 정책에 대한 리해로 무장시키며 그리고 이 정책을 보다 자각적으로 또 능숙하게 실천하는 것을 방조하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증명하여 주는 바와 같이 여러 당 단체들에서는 쏘련 공산당 력사에 대한 연구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고 있다。 일부 주와 구역들에서는 당사 연구 크루쇼크와 쎄미나르들의 수가 현저히 감소되였으며 쏘련 공산당 력사 연구에 대한 자습이 미약하게 조직되고 있다。 지방에서 당사 선전간부들이 불충분하게 준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중요한 문제들이 때때로 비속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 결함들은 결정적으로 제거되여야 된다。 쏘련 공산당 력사의 연구는 공산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적 준비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 당 력사의 근본적이며 착잡한 문제들、 맑스—레닌주의 고전들、 당 대회、 대표회 및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의 결정들을 체계적으로 심오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선전은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의 창건자이며 령도자인 울라지미르 일리이츠 레닌의 활동을 명백하게 전면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 얼마 전에 출판된 브·이·레닌의 략전의 신판은 당 력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공산당원들에게 커다란 방조를 줄 것이다。

여러 당 단체들에서 쏘련 공산당 력사에 관한 강연、 크루쇼크 학습 및 쎄미나르의 제목들이 주로 먼 과거에 돌려지고 있으며 현실적 제마、 특히 전후 시기와 관련된 제마를 적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당의 경험을 심오하게 해명하여야 된다。 당의 력사가들은 쏘련 공산당 력사에서의 현실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야 하며 당 력사 간략 독본이 나온 이후에 지나간 기간에 있어서의 쏘련 공산당의 경험을 일반화한 유일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독자들도 또한 당사에 관한 확고한 로작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쏘련 공산당의 력사와 리론이 반드시 당이 해결하는 현 시기의 과업과 밀접히 련결되여 연구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적지 않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이와 같은 련계가 없으며 당 력사는 선전원들에 의하여 오늘날의 사업과는 아무런 련계도 없는 이미 지나간 날의 일로서 반영되고 있다。 때때로 모든 것을 공식、 년월일、 이름、 사건들의 암송에 귀착시키는 번쇄 철학적 취급 방법으로 말미암아 당 력사와 리론의 본질이 해명되지 않는 때가 있다。 일정한 구체적、 력사적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에다가 현대 생활의 개별적인 사실들、 실례들을 응당한 분석과 종합이 없이 기계적으로 가져다 붙이는 그러한 『련계』로써는 아무 것도 줄 수 없다。

당의력사와 현 시기의 문제들을 련결시키는 데 있어

서 해당한 구체적、 력사적 시기의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진실로、 과학적으로 반영하며 해석하는 방법으로 대하여야 된다。 이 시기의 기본적인 중심적 문제들의 의의가 심오하게 해명되고 구체적、 력사적 자료들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의 당의 창조적 태도가 명시된다면、 다시 말하면 공산당원이 리론의 본질을 소유한다면 그는 현 시기의 과업에 대한 태도에서 과거와 현재와의 우연적이 아닌 본질적인 유기적 련계를 해명할 수 있으며 지난날의 경험 속에서 현 시기의 과업을 해명함에 있어서 귀중하고 유익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례를 들면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 시기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활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대한 당 정책의 본질、 그의 총로선의 본질을 심오하게 해명한다면 다리를 현재에로 옮겨 놓는 것은 곤난하지 않으며 당의 이 로선이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 명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뵈여 주는 것은 곤난하지 않다。

당의 력사와 리론을 소유함에 있어서 고전적 유산들의 의의는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리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켰으며 또한 더욱 더 무장시키고 있는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의 로작들은 력사적 문제들을 진정으로、 창조적으로 반영한 모범이다。 공산당원은 이 고전적 로작들을 연구하면서 비단 일정한 결론만이 아니라 그 결론을 얻는 데 방조를 준 맑스주의적 방법론 (사건과 사실들을 분석함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력사적인 취급 방법、 그 사건과 사실들을 발전의 리론、 변증법에 비추어 고찰하는 것、 해당한 시기의 당의 정책과 전술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 경제적 기초지음 등)을 습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취급 방법은 비단 과거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현 시기의 실천을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결론들이 가지는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하며 그와 동시에 이 결론들이 도그마로 전변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한다。

공산당의 활동의 과학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맑스—레닌주의의 철학은 반드시 실천의 요구 및 당면 과업과의 유기적 련계에서 연구되여야 한다。 우리 철학 문제들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과학의 풍부한 내용을 빈약하게 하려는 시도、 이 과학을 개별적인 특징、 법칙、 범주들의 기계적 통합으로 전변시키려는 시도를 결정적으로 종식시킴으로써만 당의 실천적 활동에 있어서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의 의의를 완전히 해명할 수 있는 것이다。 맑스주의적 철학을 그의 모든 부분의 불가분적 통일에서 고찰하여야 되며 공산당의 경험에서 우리 간부들에게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시키는 도구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을 정당하고 능숙하게 적용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리 선전 사업의 과학적, 무신론적 방향의 요구를 특히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이·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종교와 투쟁하여야 된다。 이것은 모든 유물론과 따라서 맑스주의의 초보다。 그러나 맑스주의는 초보에 머물어 있는 유물론은 아니다。 맑스주의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 맑스주의는 말하기를 종교와 투쟁할 줄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대중에게 있는 신앙과 종교의 원천을 유물론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맑스주의적 철학은 종교적 편견의 극복과 대중의 자각성의 제고를 촉진시키면서 자연, 사회 및 사유의 과학적이며 철저히 유물론적인 해석을 종교적 관점에 대치시키고 있다。

정치 경제학의 선전에서 리론과 실천의 보다 긴밀한 련계를 위하여서는 많은 것을 하여야 된다。 공산당의 창조적 사업은 사회주의의 객관적 경제 법칙들에 대한 지식에 의거하고 있으며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그 법칙들의 작용을 보다 능숙하게 리용하는 데 의거하고 있다。 정치 경제학의 지식은 경제 건설을 성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있어 의무적 조건의 하나로 된다。

정치 경제학의 연구는 현재 맑스주의적 정치 경제학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되고 있는바, 이 연구가 간부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을 완전히 해명하며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쏘련의 점차적 이행 방도를 리해할 수 있도록 방조를 주게끔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현 조건하에서 쏘련의 경제적 발전의 전망과 특성에 관한 완전한 개념은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과 관련된 경제적 현상들을 고려함으로써만, 공고화되는 세계 사회주의 경제 체계와 새로운 민주주의 세계 시장을 고려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학과 병행하여 이와 긴밀히 련결시켜 구체적 경제를 연구하려는 지향은 경제 건설의 요구에 의하여 야기되였다。 당은 경제 간부들로 하여금 그들이 해당한 경제 부문에 정통하도록 하며 로동 생산 능률, 독립 채산제, 로동 임금, 로동 시간 등에 관한 문제들에서 본질을 해명하도록 하며 또는 금속의 톤 당, 곡물의 쩬뜨네르 당, 주택 건평의 一평방메터 당의 원가를 어떻게 하면 저하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소비로써 가장 많은 결과를 달성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내도록 하고 있다。

생활과의, 경제 및 문화 건설 분야에서의 당의 과업과의 선전의 보다 긴밀한 련계에 대하여 배려하는 것은 당 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당 단체들은 당 선전에 대한 지도 수준을 제고하여야 하며 학습의 사상적 내용에 더 많은 주의를 돌리며 당 력사에 대한 공산당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여야 된다。

특히 출판물 선전에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출판물은 리론과 실천의 련계의 모범을 뵈여 주어야 하며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창조적 태도의 모범을 뵈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출판물 선전이 이 요구에 보답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신문과 잡지들에는 현실적인 리론적 문제들에 관한 론설, 꼰쑬따찌야 및 독자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국립 정치 서적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책과 소책자들의 내용이 생활의 요구를 미약하게 반영하고 있다。 신문과 잡지들에 발표되는 많은 론문들의 결함, 많은 소책자와 책들의 결함은 거기에서 리론에 대한 생생하고 확신성 있는 해설이 고정된 공식과 일반적 선언에 의하여 교체되고 있는 데 있다。

전투적인 당 선전——이는 창조적 맑스주의의 사상으로 공산당원들을 교양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과업을 해결하는 방법의 전부는 아니다。 공산당원들에 대한 사상적, 정치적 단련은 또한 실천적 사업에서도, 당 앞에 제기된 과업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도, 당 단체들의 자각적 활동 과정에서도 진행된다。 이 여러가지 사업 행정에서 리론은 생활에 구현되며 그리고 또한 실천에 의하여 검열되며 당과 그의 중앙 위원회를 위하여 새로운 정치적, 실천적 결론들과 리론적 종합의 기초로 되는 새로운 경험이 축적된다。 공산당원들이 크루쇼크와 쎄미나르에서 리론과 정책을 연구하여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험은 공산당원들에 의하여 심오하고 전면적으로 토의되고 일반화되도록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당 회의의 의정에 당과 국가 생활의 긴급한 문제들이 제기되도록 하며 당 단체의 모든 사업이 창조적, 집체적 행동과 사고의 집체적 사업의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 단체들이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축적된 선진적 경험들을 일반화하며 제거하여야 할 결함들을 비판하는 과업은 특별히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초급 당 단체들에서의 결산—선거 회의, 구역, 시, 주, 변강, 자치 공화국들에서의 당 대표회, 가맹 공화국 공산당 대회들은 이러한 목적에 복종하여야 한다。 사상 생활이 크나 작으나 매개 당 단체에서의 관건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대한 레닌은 이것을 호소하였다。

공산당과 그의 중앙 위원회는 레닌적 지시를 철저히 실천하며 공산주의 건설의 장엄한 과업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의 당 대렬의 적극성, 단결성,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공산당의 모든 사상적, 리론적 사업은 가일층 강력히 제고시키며 당 선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담보가 있는 것이다。

(『꼼무니쓰트』 一九五五년 제一四호에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

김 동 훈

제二차 대전 후 시기의 특징으로 되고 있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의 강력한 장성과 자본주의 진영의 현저한 약화는 자본주의 제국、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서의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의 가일층의 장성에 거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강력한 장성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전체 근로자들에게 자기들의 정당한 투쟁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 주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의 강력한 장성과 계급 투쟁의 첨예화는 제국주의의 지반을 더욱 더 뒤흔들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계의 일반적 위기를 더욱 심각화시키고 있다。

로동 운동의 강력한 장성과 함께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의 자각성과 조직성도 더욱 제고되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평화와 인민들 간의 친선을 위한、그들의 투쟁에서와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의 부단한 앙양에서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 * *

자본의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이 자기의 경제적 리익의 옹호와 더불어 자기 나라의 정치 생활과 대내외 정책의 기본 문제들에 대하여 자기들의 요구를 들고 더욱 더 결정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은 현 시기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되고 있다。

로동 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강화——이것은 현대 로동 운동의 합법칙적 현상이다。 그런데 더우기 현 정세는 로동 계급에게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투쟁에로 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모험적 침략 정책에 의하여

더욱 더 증가되는 부담을 걸머지며 또 자기의 온갖 민주주의적 권리를 란포하게 유린 당하고 있는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은 지배층의 모험적 정치 로선을 반대하여 진출하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 나라 로동 운동에서의 주요 측면의 하나는 그것이 국제 긴장 상태를 가일층 완화시키며 전반적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련결되여 전개되고 있는 그것이다。 자기들의 생활 조건의 가일층의 악화가 『랭전』과 군비 경쟁 정책의 결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은 국제적 분쟁 문제들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국제적 협조를 위한、민족적 독립과 전반적 평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 공산당들은 광범한 근로 대중에게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서의 가일층의 성과가 대중의 정치적 열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며 그들을 적극적인 정치 투쟁에로 궐기시키고 있다。 로동 계급은 중요한 모든 국제적 문제들에 있어서 자기 나라의 공산당이 작성한 강령을 들고 진출하고 있으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년간에 있어서 구라파、아세아、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로동 계급은 제국주의자들의 각종 침략적 계획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조선 전쟁과 인도지나 전쟁을 반대하여、경제의 군사화와 군비 경쟁과 대량 살륙 무기를 반대하여、침략적 군사 쁠럭과 군사 『원조』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특히 오늘 대량 살륙 무기를 반대하는 투쟁은 전 세계 각국에서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량 살륙 무기를 반대하는 스톡홀름 호소문에 六억 인민이 서명한 것은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조선과 인도지나에서 원자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데 커다란 힘으로 되였다。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계 평화 리사회 윈나 호소문에 대한 서명 수집 운동에는 스톡홀름 호소문 서명 수집에서보다 더욱 많은 대중이 참가하고 있는바 이는 원자 전쟁을 반대하는 대중의 의지가 더욱 더 확고히 표명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원자 무기를 반대하는 운동이 특히 광범한 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 로조 단체들은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일본의 가장 큰 로조 단체들인 일본 로동 조합 총평의회、전 일본 산업별 로동 조합 회의는 『일본 로동 계급은 평화를 요구한다。 일본 로동 계급은 재무장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원자 및 수소 무기를 극히 증오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근로 대중의 압력 밑에 일본 국회 중의원은 핵 무기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로동 계급은 평화와 국제 안전을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에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일본 근로자들 속에서는、일본을 민족적 파국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력량은 자기 자신들이라는 인식이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최근 二—三년 동안에 일본에서는 미국의 군사『원조』와 군사 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외국 군대의 철거를 요구하는 운동이 현저히 강화되였다。一九五三년에 일본의 一〇만 五천명의 로동자들이 군수 물자의 운반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일본의 로조 단체들은 재무장 정책의 거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과 쏘련、일본과 중국간의 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일본 로동 조합 총평의회는 평화적 공존의 五개 원칙을 지지하고 있으며 유・엔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지난해에 교원들의 정치 활동에의 참가를 금지하는 두 개의 반동적 법령의 페기를 요구하여 단행되였던 교직원 로조원들의 대규모적 파업은 반동적 로동 법령을 반대하며 정치적 문제들의 해결에 로조 단체들이 참가할 데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일본 로동 계급의 적극적 진출의 명백한 증거로 된다。

독일 군국주의 재생을 반대하는 서구라파 로동 계급과 인민 대중의 투쟁은 로동 계급의 정치적 전투력이 얼마나 장성하였는가에 대한 명백한 실례의 하나로 된다。악명 높은『구라파 방위 공동체』계획을 좌절시킨 서구라파의 로동 계급은 계속하여 파리 협정을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금년 봄 라이프치히에서 진행된 구라파 제국 직맹 및 근로자 대표들의 대회는 파리 협정을 반대하는 구라파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을 시위하였다。이 회의에 참가하였던 구라파 각국 근로자들의 대표들은 파리 협정의 실시가 로동자들의 생활 조건과 로동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며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더욱 유린 당하게 한다는 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서부 렬강의 침략 계층들은 서구라파 로동 계급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여 서부 독일 재무장에 관한 협정을 서구라파 국가들의 국회에 강요하는 데 五년이나 걸렸다。서부 독일 재무장의 지지자들은 광범한 근로 대중의 압력 밑에 파리 협정의 비준을 여러번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국회들에서 실제적 다수표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례를 들면 불란서 국민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四六%만이 파리 협정을 지지하여 투표하였으며 영국 국회 하원에서는 국회 의원의 약 四二%만이 파리 협정에 찬성 투표하였던 것이다。

서부 독일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독일 프로레타리아트 자신의 역할도 또한 거대하다。서부 독일의 공산당、로조 단체、사회 민주당 등은 파리 협정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나섰다。六백만 근로자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서부 독일에서 가장 큰 로동 계급의 단체인 서부 독일 로총은 작년 一〇월에 진행되였던 제三차 대회에서 서부 독일 재무장 계획의 실시가 국제 긴장 상태를 가일층 격화시키며 독일 재통일의 도상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한다는 것을 성명하였다。

서부 독일의 로동 계급이 정치적 무대에 진출한 것은 현 국제 정세하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독일 로동 계급은 오늘날 독일 인민 자체의 리익과 구라파 안전의 리익에 부합되게 독일 민족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 력량이다。

이태리에서도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생산 금지와 시협 금지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이태리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대량 살륙 무기의 금지를 위한 집회들이 진행되였다。三三〇만의 주민을 대표하는 바리、레르니、베르가모 및 파비야 등의 주 참사회들은 대량 살륙 무기의 금지와 국제적 통제의 설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결의문을 지지하였다。또한 六개 도시의 시 참사회들에서도 이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네아폴、헤누、안콘 및 리보르노에서는 이태리 항구들에 원자탄 창고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군중 시위가 진행되였다。수 많은 근로자 대표들이 시 참사회들을 방문하고 평화에 대한 인민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결의문들을 전달하였다。

이태리의 로동자들과 인민 대중은 이태리의 재무장을 반대하여 과감하게 투쟁하고 있다。특히 一九五三년 상반기에 반동적 선거법을 반대하여 나선 이태리 근로자들의 투쟁은 근년에 드문 대규모적 진출이였다。이 투쟁의 결과에 국회 선거에서 반동 세력은 패배를 당하였으며 데 가스뻬리는 사직되였던 것이다。

영국의 진보적 력량의 활동도 적극화되였다。정치에 무간섭하는 것이 영국 로조의 주요한 전통의 하나로 되고 있었는데 지금 영국 로조들이『힘의 립장에선』정책을 견결히 규탄하고 있으며 전쟁과 군비 경쟁을 반대하는 결정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지난해에 二七〇만명 이상의 성원들을 망라하고 있는 一八개의 영국 로조들이 독일의 재무장을 허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들고 진출하였다。

영국에서는 광부 로조、스콧트랜드 로조 회의와 기타 수 많은 로조 지방 단체들이 원자 무기를 반대하여 나섰다。지난해에 영국에서는 약 四백만명의 로조 맹원들이 원자 무기의 금지를 요구하였다。인민 대중의 압력하에 레이버당 국회 그루빠는 대량 살륙 무기의 금지와 군비 축소에 관한 교섭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불란서 로동 계급은 인도지나에서의 전쟁 중지를 위한 적극적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인도지나에서의 전쟁을 중지시킨 제네바 협정의 체결에 기여하였다。노예적『마샬안』과 인도지나 전쟁과 독일의 재무장을 반대한 불란서 근로자들의 투쟁은 지배층의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하는 불란서의 전체 인민들의 전반적 투쟁과

합류하고 있다。

최근 년간에 있어서 아세아、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제국、자본주의 제국의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이 국제 무대에 더욱 광범히 진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아세아 제국의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은 아세아에서의 위대한 력사적 변천들의 주요 력량으로 되고 있다。

경제적 발전이 뒤떨어진 나라들에 있어서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로동 계급의 수가 늘어가고 있으며 또 더욱 조직적으로 되고 있다。로동 계급의 조직성의 장성은 식민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의 성과적 발전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전후 시기에 아세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인도네시아 직맹 중앙 단체、전 비르마 직맹 회의、애급 직맹 회의、튜니샤 로동 련맹、모로코 로동 총련맹、니제리아 직맹 회의 등이 조직 강화되고 있는 것은 이 나라들에서의 로동 계급의 조직성이 장성되고 있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다。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최근 년간에 산업 프로레타리아트가 장성하고 있으며 자기 해방과 보다 훌륭한 생활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자들의 계급적 의식이 장성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우게 나타나고 있다。철도 로동자、건설 공업 로동자、부두 로동자、광부들이 아프리카 근로자들의 선진 대렬에 나서고 있다。그들은 인종 차별을 반대하며 직맹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용감하게 전개하고 있다。一九五二년 一一월에 진행되였던 불평 서부 아프리카 근로자들의 총파업의 결과에 의하여 불란서 국회는 해외 령토의 로동 법전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이 파업은 아프리카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의식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이 파업에 뒤이어 로동 법전과 직맹의 권리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이 강화되였다。一九五四년 九월에는 세네갈 직맹의 발기에 의하여 코나크리에서 직맹 련합 대회가 개최되였는데 이 대회에서는 직맹 활동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심의하였으며 一九五二년 一一월 파업의 二주년을 기념할 것을 결정하였다。이 결정에 의하여 지난해 一一월 三일에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새로운 파업이 단행되였다。이 파업에는 식민 당국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불평 아프리카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참가하였다。

아프리카의 직맹 단체들은 평화 옹호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원자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 평화 리사회 호소문 서명 수집을 조직하고 있다。

아프리카 근로자들의 투쟁은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조직성、계급 의식의 장성을 여실히 증명하여 주고 있다。

광범한 근로 대중이 새 전쟁의 위협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의 리해 관계의 공통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성과를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은 국제 긴장 상태의 가일층의 완화를 위하여 『제네바의 정신』의 승리를 위한 투쟁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 * *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 계급은 정치적 투쟁과 함께 자기들의 경제적 요구의 충족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그리하여 경제적 파업은 정치적 투쟁과 호상 긴밀히 련결되여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의 독점 자본가들은 최대한의 리윤을 추구하여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근로자들에 대한 독점 자본가들의 착취는 임금을 직접 인하하며 로동 시간을 연장시키며 물가를 등귀시키며 세금、집세 등을 인상시키는 등의 각종 방법에 의하여 수행된다。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 경쟁은 근로 대중에게 더욱 무거운 부담을 질머지우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독점 자본가들의 리윤은 부단히 증가되는 반면에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례를 들면 불란서에서의 금속공들의 생활비는 一九三八년부터 금년까지 三二·五배나 등귀하였다。이 결과 금속공들의 구매 능력은 로동 시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三八%나 감소되였다。파리 지방의 금속 공업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전전 수준의 五〇%에 불과하며 전기 공업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전전 수준의 五七%에 불과하다。

미국 재무 장관 헨프리의 언명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一九三九년에 一〇딸라로 구매할 수 있었던 량의 식료품에 대하여 一九五五년 一월에는 二三딸라 이상 지불하게 되였다。

다른 서구라파 국가들에 비하여 물가 등귀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영국에 있어서도 잡지 『그로세르』지의 자료에 의하면 一九五五년 四월 현재 주요 식료품의 물가 지수는 一九四五년을 一〇〇으로 하여 빵 가격은 一八七로、밀가루 가격은 二四五로、육류 가격은 二五四로、빠터 가격은 二三〇으로、사탕 가격은 二〇〇으로 각각 등귀하였다。

재무장 정책은 서부 독일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부단히 저하시키고 있으며 물가와 세금을 등귀시키고 있다。서부 독일 련방 통계국의 계산에 의하면 식료품 가격이 고등된 결과 서부 독일 주민들의 지출은 一九五〇년부터 一九五四년에 이르는 기간에 二七억 마르크나 증가하였다。금년에 파리 협정이 실시되기 시작함과 관련하여 물가 등귀는 더욱 격심하여졌다。공식 보도에 의하면 서부 독일에서는 금년 五월에만도 식료품

가격이 六·七% 높아졌다. 집세、까스 및 전기 료금이 오르고 있으며 운수 료금、극장 및 영화관 입장 료금도 계속 높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과 그들의 생활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 서부 독일의『소비 조사 협회』의 보도에 의하면 서부 독일 주민들의 실질 수입은 금년 八월에 작년 동 기간보다 四·二%나 감소되였다.

일본、이태리 등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로동자들의 기본 대중은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에도 어려운 임금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만성적인 실업은 전체적으로 로동 계급의 생활 형편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

一九五五년 一월 현재 미국에는 一천 四백만명의 완전 실업자와 반실업자가 있었으며 一九五四년에 서부 독일에는 一二○만명의 실업자、불란서에는 五○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었다. 현재 이태리에서는 실업자가 二三○만명(도시와 농촌의 거의 三백만명에 달하는 반실업자를 계산하지 않고)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九六二만명이 완전 실업자로 되여 있거나 또는 一주일 동안에 三四시간 미만 밖에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자본주의 각국에서는 독점 자본가들이 소위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한다는 구호 밑에 로동자들의 로동 강도를 높임으로써 로동자들에 대한 육체적 및 정신적 착취를 극도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자본주의 나라들의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생활 수준 제고와 민주주의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독점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파업 투쟁 및 기타 대중적 진출로써 독점 자본가들의 착취에 항거하고 있다.

최근 년간에 로동 운동은 불란서、이태리、일본 등 즉 로동자들의 정치적 투쟁과 경제적 파업이 호상 긴밀한 련계 밑에 진행된 그러한 나라들에서 특히 거대한 규모로 전개되였다.

불란서에서의 로동 계급의 파업 투쟁의 특징은 그의 대부분이 불란서 로동 총련맹의 지도 밑에 전국적 규모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것이다. 이 파업 투쟁 행정에서 계급적 련대성과 행동 통일에로의 지향이 강화되였다. 행동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은 파업자들은 항상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최근 몇해 동안에 불란서에서는 매년 二천五○○건 이상의 파업이 진행되였다. 지난해에 불란서의 기계 건조 및 금속 공업 로동자들、방직 공업 및 제지 공업 로동자들、철도 및 체신 부문 종업원들 및 기타 공업 부문 로동자들은 자기의 생활 조건과 로동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 파업 투쟁의 대부분은 파업 로동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례를 들면 파데 칼레현의 탄부들、산리

바르드의 수도공들、산 데니에 있는 바르덴 공장 로동자들、룰론의 여러 기업소 로동자들은 임금을 인상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최근 몇달 동안에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 개선을 위한 불란서 근로자들의 투쟁은 더욱 강화되였다. 금년 一월에 진행된 불란서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바로 그러한 방향에서 현재 불란서 로동 계급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금년 六월에 진행되였던 불란서 로동 총련맹 제三○차 대회는 로동 임금의 三○% 인상、三주간 유급 휴가、로동 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라고 호소하였다. 이 호소는 불란서 근로자들 속에서 광범한 공명을 일으켰으며 근로자들의 파업 투쟁을 일층 격화시켰다. 금년 七월과 八월에 걸쳐 금속 공업 부문에서만도 七六八건의 파업과 수 많은 작업 중지가 진행되였으며 또한 九월 二二일에는 철도 종업원들의 총파업이 단행되였다. 로동 계급의 투쟁은 기업주들로 하여금 부득불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로동 임금이 二○——二五% 인상되였으며 기타 요구 조건들도 수락되였다.

이태리 로동 계급의 투쟁은 농민 운동과의 련계 하에 광범한 규모로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태리 근로자들은 군비 경쟁과 해고를 반대하여、민족 산업을 옹호하여、민족 산업의 군사화를 반대하여 일련의 대규모적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태리 로동 계급의 력량과 조직성은 파업 투쟁의 대부분이 승리로써 종결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즉 지난해에 로동자들은 六천 五백 개소의 기업소들에서 임금을 인상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북부 이태리의 고용 농민들은 一년 동안에 지주들로부터 一二○억 리라를 더 받았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대중적 해고와 기업주들의 테로를 반대하여 최근 수개월 간에 리보르노의 금속공들과 로마와 플로렌스의 근로자들、전국의 방직공들、중등 학교 교원들이 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二백만 이상의 고용 농민들과 농업 로동자들의 四八시간 총파업은 커다란 성과로써 끝났다.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이태리 력사상 처음으로 지주들로 하여금 농업 로동자들에게 실업 보조금을 지불케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 이태리 로동 총련맹은 로동 조건과 로동 임금에 관한 교섭을 진행할 권리를 로동 총련맹 산하 직맹 단체들로부터 박탈하려는 반동의 기도를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에 七백건 이상의 로동 쟁의가 일어났다. 지난해 무로란시에 있는『닛꼬』회사의 기업소들에서 해고를 반대하여 진행된 대규모적 파업은 二○一일간이나 진행되였는바 이는 일본 력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친 파업 투쟁이였다. 이 파업은 로동자

들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으며 기업주는 해고하였던 모든 로동자들을 다시 채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해에 일본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대규모적 파업이 여러번 진행되였다. 금년에 들어 와서 벌써 약 二백만 이상의 탄부들과 체신 부문 로동자들과 기타 근로자들이 파업 투쟁에 참가하였다.

서부 독일 로동 계급도 자기의 리익을 옹호하여,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서부 독일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해마다 장성하고 있는바 작년 하반기에 이르러 파업 투쟁은 가장 광범한 규모에 달하였다. 금년 一월에 단행된 八四만명이 참가한 광부들과 금속공들의 총파업, 또 금년 六월초부터 八월까지에 서부 독일에서 진행된 四〇건 이상의 대규모적 파업 투쟁은 대부분의 경우에 로동자들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승리로 끝났다. 식료품 가격과 집세가 새로 인상된 금년 八월에 서부 독일 근로자들의 투쟁은 특히 광범한 규모로 전개되였다. 처음에 함부르그의 공영 시설 로동자들이 파업하였으며 이에 뒤이어 바바리야에 있는 六백 개소 기업소들의 二五만명 금속공들이 파업을 단행하였다. 금년 一월과 八월에 진행된 대규모적 파업은 서부 독일 로동 계급이, 재군국화를 실현하려는 독점가들의 기도에 결정적 반격을 주리라는 것을 뵈여 주었다.

영국에서도 파업 투쟁이 장성하고 있다. 공식적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영국에서는 거의 二천건의 파업이 진행되였다. 영국 로동성 기관지 『미니스트르 오브 레이보르 가제트』에 발표된 최근 자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에 영국에서는 四三만 六천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한 一천 二〇五건의 파업이 일어 났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二〇만 五천명이 참가한 一천 六〇건의 파업이 일어났던 것이다. 영국에서의 금년 상반기는 전후 一〇년간에 있어서 파업 건수가 가장 많은 시기였다. 금년 五월 二八일에는 최근 년간에 있어서 영국 철도 종업원들의 가장 큰 파업이 시작되였다. 파업자들 ─ 전체 기관사들과 화부들의 八〇% ─ 은 임금을 인상하라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 파업에 의하여 영국의 철도 운수는 완전한 마비 상태에 빠졌었다. 『뉴스 크로니클』 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파업은 一九二六년의 총파업 이래 가장 큰 파업이였다. 철도 종업원들의 파업과 동시에 영국 항구들의 二만명의 부두 로동자들의 파업이 일어 났다. 이 파업의 결과 영국의 대부분의 항구는 그 활동이 마비 상태에 빠졌었다.

미국에서는 一九五四년에 一五三만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한 三천 四六八건의 파업이 단행되였다. 그런데 금년 첫 五개월 동안에 미국에서는 작년 첫 五개월간의 파업 참가자보다 一二만 一천명의 로동자들이 더 파업에 참가하였다. 금년 여름에 들어서면서 로동 계급의 새로운 대렬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六월과 七

월에는 『제네랄 모터스』 자동차 공장 로동자들과 수만명의 유색 금속 로동자들과 三만명의 동부 해안 부두 로동자들이 파업 투쟁에 참가하였다. 九월에는 『크레이슬레르』 회사의 六一개 기업소들의 一三만 九천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 투쟁의 결과 로동자들은 새로운 단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후 뉴욕 항구 부두 로동자들의 파업이 수일간 계속되였으며 이 파업은 약 一〇만명을 망라하였다.

파업 운동의 장성은 二차 대전 후 시기에 있어서의 미국 국내 정치 생활의 특징으로 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은 문자 그대로 완강한 계급 투쟁의 무대로 되고 있다.파업 운동은 중 근동 제국,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서도 장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나라들의 근로자들은 빵과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더욱 조직적으로, 더욱 결정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 * *

현 단계에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운동의 특징들은 우선 상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 파업과 경제적 파업이 호상 긴밀한 련계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있으며 이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진출이 대중성과 높은 조직성과 완강성과 인내성을 표시하고 있으며 전 민족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불란서, 이태리, 일본, 미국 등의 근로자들의 파업 투쟁에서 금년에 특히 눈에 띄우게 나타나고 있다. 실생활은 경제의 군사화의 조건 하에서는 성공적 파업 투쟁이 불가능하다는 독점가들의 허위 선전을 철저히 론박하여 주고 있다. 로동 계급의 진출은 더욱 더 전투적 성격을 띠고 있는바 이는 로동 계급에 대한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의 약화를 실증하여 준다. 사회 민주당들의 우익 지도자들은 로동 운동을 독점가들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우익 사회주의자들이 『랭전』 정책을 지지하여 나선 것은 많은 나라들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서구라파의 사회 민주당들은 심각한 위기를 체험하고 있으며 대중으로부터 더욱 더 고립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공산당의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있으며 공산당원들이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리익의 진정한 옹호자이며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위한 철저한 투사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계급 투쟁의 선두에는 항상 공산당들이 서고 있다. 공산당의 영향력의 장성과 그의 령도적 역할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운동으로 하여금 보다 대중적이며 보다 조직적이며 보다 완강한 성격을 띠게 하고 있다.

현 계단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운동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는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각이한 대렬들의 행동 통일과 그들의 국내적 및 국제적 련대성이 강화되고 있는 그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계급은 자기의 생활적 리익과 평화를 위한 투쟁 행정에서 자기 대렬의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파업 투쟁은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학교로 되고 있다. 이 투쟁 경험에서 로동자들은 각이한 계급, 정당, 단체들을 정당히 평가하는 것을 배우며 자기의 진정한 동맹자와 원쑤들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을 배우고 있다. 파업 투쟁 행정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각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대렬의 통일이 강화되고 있다.

로동 계급의 정치적 각성의 제고와 그의 행동 통일은 자기의 생활적 리익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화를 위한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의 투쟁에서의 승리의 강력한 담보로 되고 있다.

국제 로동 운동 앞에 나서고 있는 모든 복잡하고 커다란 문제들 중에서 로동 계급의 통일을 보장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브·이·레닌은, 통일은 로동 계급에게 있어서 무한히 귀중하며 무한히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국제 로동 운동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은 국내적 범위에 있어서나 또는 국제적 범위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로동 계급의 통일을 위한 투쟁 —— 이는 로동 운동을 약화시키려는 반동의 시도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독점가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은 로동 계급을 분렬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선 여러가지 경제적 압력의 방법이 리용되고 있다. 기업주들은 각이한 직맹과 직업에 속하는 근로자들을 매수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공업 부문, 례를 들면 군수 공업 부문의 로동자들을 특수한 특권적 지위에 놓이게 하며 로동 계급의 대렬을 분렬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독점가들은 로동자들의 정치적, 종교적 및 민족적 차이를 리용하여 그들 간의 분렬을 획책하고 있다.

현재 로동 계급의 대렬을 분렬시키려고 체계적으로 획책하고 있는 주요 세력은 사회 민주당들의 우익 지도자들과 반동적 직맹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중상적 운동을 전개하며 자기의 그루빠를 형성하여 우로부터 로동 계급의 분렬을 획책한다. 따라서 사회 민주당의 우익 지도지들과 반동적 직맹 지도자들을 폭로 규탄하는 것은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본주의 나라들의 공산당들은 원자 전쟁을 반대하며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관철시키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위하여 로동 계급의 통일을 보장하며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을 단결시키는 투쟁을 견결히 진행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계급은 공산당들의 령도 밑에 자기의 생활적 리익을 옹호하며 또한 국제 긴장 상태의 가일층의 완화와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국제 정세의 발전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강력한 평화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근로자 제一一호 (루계 제一二〇호)

一九五五년 一一월 二〇일 인쇄
一九五五년 一一월 二五일 발행

편집위원회

발행소 로동신문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값 四五원)

ㄱ—30222호

도 서 안 내

《중국 인민 해방 전쟁 략사》

료 개 릉 저

판 형 4×6판
페지수 270페지
정 가 57 원

이 책에는 1945년 8월부터 1953년 8월까지의 중국 인민의 투쟁사가 수록되여 있다. 8·15 해방 직후 중국 국민당 반동파는 전국적인 국내 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리하여 중국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령도 하에 인민 해방 전쟁의 길에 들어서 국민당 반동파를 소멸하고 중국 대륙을 해방한후 중화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 책은 본사에서 발간된 《중국 민족 해방 운동사》,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사》와 함께 최근 중국 인민의 해방 투쟁사를 계통적으로 연구함에 있어서의 귀중한 참고 서적이다. 그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국민당 반동파 또다시 대규모의 국내 전쟁을 도발.
제2장 인민 해방 전쟁의 방어 단계.
제3장 방어로부터 공격에로의 전환.
제4장 결정적 승리.
제5장 신중국의 탄생.
제6장 경제 복구의 완성.

상기 도서는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근간 예정임